

襄陽文化

제26호



襄陽文化院

앙앙8경

※ 사진제공 : 제8기 어르신문화학교 사진반 회원들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1경 연어들의 고향, 남대천



남대천은 오대산, 구룡령, 오색령에서 발원하여 서쪽에서 약 70Km 하상을 따라 동해로 흘러가는 청정수역이며 4~5월이면 활어, 7~8월에는 은어, 10~11월에는 연어가 소상하는 회기 본능의 "어머니의 강"이다.



5경 하룬과 조준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하조대



조선의 개국 공신이었던 하룬과 조준이 한 때 은거했던 곳으로 두 사람의 성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해안에 우뚝 솟은 기암절벽 위 노송 사이에 육각정자가 있으며 천연송 일출의 명소이다. (양양군 명승 제68호)



2경 태고의 웅비를 간직한, 대청봉



설악산 주봉인 대청봉 (1,708m)은 서면 오색리 산1번지이며 공룡릉, 화채릉 등 주요 능선의 출발점으로 내삼악과 외삼악의 분기점이다. 주로 눈썰나무 군락지이며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6경 파도소리와 죽향이 가득한, 죽도정



파도소리와 죽향이 가득한 인구리 해변의 죽도섬 위에 세워진 정자이다. 송죽이 사계절 울창하여 옛 시인과 묵객들이 즐겨 찾던 명소이다.



3경 자연도 함께 쉬어가는 신비로운, 오색령



영동과 영서를 44번 국도로 잇는 오색령 (920m)은 남설악 쪽으로 오색약수, 만경대, 선채탕, 만물산, 옥녀폭포의 남설악과 심이선녀탕, 옥녀탕, 봉정암 방향의 외설악을 함께 아우르는 아름답고 험준한 경이다.



7경 강원도의 베네치아, 남애항



한남연 남애리에 위치하며 강원도 3대 미항 중 하나이다. 한 때 386세대의 흥금을 울린 영화 "그레사냥"의 촬영지로 유명하며 새벽 항구에 일출하는 싱싱한 생선을 값싸게 먹을 수 있다.



4경 시원한 폭포와 가을단풍이 아름다운, 오색주전골



임반석이 5색을 띄며 오색석사의 한 나무에서 5색의 꽃이 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오색령에서 발원한 맑은 물과 비경은 금강산을 옮겨놓은 듯 장편이며 가을 단풍이 백미이다.



8경 일출이 아름다운, 의상대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대사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하며 송강정철(1536~1593)의 관동별곡에 소개된 관동8경 중에 으뜸이며 동해안 일출의 명소이다. (강원유형문화재 제48호, 양양군 명승 제27호)

襄陽文化

제26호



襄陽文化院



고마워요! 50년, 함께가요! 100년

꿈을 주는 양양새마을금고

양양새마을금고는 회원분들의 신뢰에 부응하여
사회전체를 이롭게 하는 인간중심의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예금, 대출, 공제(보험)

 **MG새마을금고 양양**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59

033) 671-4413 . 4414

FAX) 671-4415

PHOTO CLUB



문화학교 개강식



제6회 물치만세운동 기념식행사



제4회 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제36회 양양현산문화제 기미만세운동재현행사



양양문화원장 이·취임식



제19회 강원도사물놀이경연대회



문화원 회원 선진지 견학



어르신연극단 공연



문화학교 학생 유적지 답사



경로효친문예작품 시상식



연암박지원 문화콘텐츠조명 심포지엄



청소년지역문화창프로그래م 특강



청소년과 함께하는 도자기체험



교계에 관한 역사적 고찰 연구발표회



복무장병 전통문화 교육사업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전시회



목차 Contents

발간사 양양문화원장 윤여준	8
신년사 양양군수 김진하	10
신년사 양양군의회의장 최홍규	14
신년사 국회의원 정문헌	16

특별기고

- 안중근의사(安重根義士)와 한시(漢詩) 이야기 | 전 양양문화원장 양동창 18
- 양양부사 연암 박지원을 만나다 | 향토사연구소연구원 김양식 25

향토사료

- 6·25 한국전쟁시기 軍政이 襄陽地域에 미친 影向
(제24회 강원도향토사연구발표 장려상 수상) | 향토사연구소 이철수 33
- 연암박지원 문화콘텐츠 조명 심포지엄 | 편집실 54
- 「교계에 관한 역사적 고찰」 연구 발표회 | 편집실 127

문화학교 운영

- 2014년도 문화학교 소개 및 학생 수상, 공연내역 | 편집실 165
- 2014년도 제8기 어르신문화학교 사진반 | 편집실 167

휴양림

- 서림계곡휴양지, 미천골자연휴양림 170



건강상식

- 골다공증 171

전설

- 오봉 175
- 누룩바위의 전설 176

명승

- 대청봉 177

경로호친문예작품

- 심사평 179
- 입상현황 180

향토문화일꾼

- 양양문화원 임직원 181

- 2014 양양문화원 언론홍보 현황 | 편집실 182

발간사



양양문화원장
윤여준

희망찬 을미년의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오년을 보내고 행운과 따뜻함의 상징인 을미년 청양의 해가 무척이나 밝고 복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지난한해 배려와 보살피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모든 군민과 문화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7월 본인이 취임한 이래 문화원에 대한 다채롭고 새로운 모습에 감탄하며 앞으로 문화원의 발전은 물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강원도 문화원연합회 주관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2년에 이은 “연암 박지원 문화콘텐츠 조명”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연암과 연계한 우리군이 조명할 사업안을 제시 하였고, 전국에서는 아마도 처음으로 양양문화원 향토사연구원들이 발견한 현북면 장리 달하치 입구의 바위에 새겨진 “교계(校界)에 관한 역사적 고찰”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여 문화재 자료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문화원에서 2008년 발간한 “양양의 전통석조물 도감” 책자의 오류가 많아 증보판과, “양양문화 26호”를 발간하였으며, 향토사 연구소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물인 논문으로 6.25한국전쟁 중 유일하게 양양에서만 실시되었던 군정(軍政)에 관하여 “6.25한국전쟁시기 군정이 양양지역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과, “고려·조선시기 천민의 활동사례 연구” 제목으로 낙산사의 결승(乞升) 이야기와, 세조실록에 등장하는 양양의 관노이자 명창 “동구리”와, 양양의 관노에서 악공을 거쳐 장악원의 최고 지휘자인 전악으로 십 수년간 활약한 천재 음악가 허억봉에 관한 이야기 등을 담은 논문을 한국문화원연합회와 강원도

문화원연합회에 발표하여 양양문화원의 향토사 연구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문화원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탐방은 경북울진의 불영사와 신라비 등을 탐방하며 비문의 새로운 관리 상황을 살필 수 있었으며, 문화학교 수강생 문화 탐방은 도자기의 고장 경기도 광주의 도자 박물관과, 뼈아픈 비극의 역사 현장인 남한산성을 탐방함으로써 견문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문화학교와 어르신문화학교 사진반의 강사님과 수강생이 혼연일체가 되어 나날이 실력이 향상되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여러 차례 사진 전시로 우리 고장의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금년에는 오색케이블카의 성공적인 유치와 오색령의 지명이 복원되기를 기원하며 문화원 회원을 위한 문화강좌를 개설하여 지역의 역사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이면 우리 양양이란 지명을 사용(태종16년, 1416년)한지 600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가칭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사적인 도시 양양을 널리 알리고 관광상품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제37회 양양현산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제5회 강원도 양양 동구리전통민요경창대회를 더욱 발전적으로 개최하며, 지역의 향토사 연구 발굴을 위한 향토사 연구소의 꾸준한 연구활동 지원으로 지역문화 창달에 앞장설 것입니다.

앞으로 군민과 문화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산자수명한 우리고장의 전통문화가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면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양양문화를 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꿈을 꾸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올미년 새해 저와 함께 소박하면서도 원대한 꿈을 함께 꾸시기 바라며 저의 꿈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꿈에 제가 함께할 것임을 확신하며 따뜻하고 보람찬 한해를 열어가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새롭게 내딛는 새해 발걸음에 복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 양 군 수
김 진 하

연금술의 궁정으로 도시(양양군) 재생을 이끄는 한해가 될 것

존경하는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산하공직자 여러분!

신년 타종과 함께 2015년 을미년(乙未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각 가정마다 만복(萬福)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아침 달력 위엔 몇몇개의 동그라미들이 그려집니다. 특별한 날은 더욱 특별하게, 또 그렇지 못한 날들도 소외되지 않게 우리 모두에게 의미있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새해 달력을 보며 고대의 어떤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납을 가지고 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연금술사”라고 부릅니다.

연금술사들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배열을 달리하면 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수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졌지만 이들은 끝내 금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말 실패한 것일까요? 물질로서의 금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였지만 이들은 그 과정에서 금보다 더 값진 근대과학의 발전이라는 부산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토대위에 세워진 현대과학의 수많은 혜택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해엔 우리에게도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 꿈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 각자가 이것을 이룰 만큼의 능력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꿈을 이룸에 있어서의 본질은 그 꿈 자체보다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의지와 꾸준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의지와 꾸준함은 그것이 실현되도록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입니다. 지난해 대통령께서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평창 방문에서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2번의 좌절에서 다시한번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 사업의 땀과 노력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처음 이 사업을 이야기하고, 서류를 만들고, 여론을 만들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노선선정을 위한 힘겨운 답사와 공청회, 그리고 사업 검토과정에서 있었던 날선 비판과 비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여년에 걸친 수많은 토론회, 논리를 뒤로하고 정부부처내 여러 위원회를 돌고 돌아 어느 책상위에 놓여졌을 우리의 말없는 성실함에 대해 생각합니다. 고되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저는 이것을 우리의 꿈과 희망이 도전과 실험을 거쳐 조금씩 황금으로 변성되어가는 연금술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이 연금술은 우리앞에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땀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한 불굴의 도전과 실험, 이것이 올 한해 우리가 펼쳐 나가야할 연금술의 군정(郡政)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올 한해를 연금술의 군정을 바탕으로한 도시(양양군)재생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2015년에는 우리의 연금술이 진행되어야 할 다음 과제도 있습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남대천은 우리 군민들의 젓줄이자 마음의 고향이며, 도시재생을 이끌 핵심 원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남대천이 너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총 3개 단위, 17개 세부과제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여가가 살아 숨쉬는 새로운 친수공간으로서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미 28명으로 구성된 T/F팀이 발족되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여 새로운 남대천의 역사를 쓰겠습니다. 르네상스는 어원상으로 재생을 의미합니다. 수년간 정체되어 있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쇠퇴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가치입니다.

올 한해 이루어질 중심가 전선지중화 사업, 도시계획도로, 디자인거리 조성, 면소재지 정비사업, 종합운동장 건설, 어항개발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등도 모두 이 재생의 가치를 따를 예정입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낙산지구와 하조대, 오색지구 및 송암지구의 규제를 완화해 도시 재생을 이끌 원천을 넓혀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기회가 가까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회가 우리를 도우려할 때 우리도 기회를 잡기위한 모든 일을 해야합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확정되면서 우리의 외부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초 진행이 늦어지고 있던 동서고속도로는 2배이상 예산이 증액되며,

2015년 또는 2016년 전구간 개통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동서의 큰 축인 수도권과의 직항연결은 산업의 발전과 고용촉진, 그리고 인구증가 면에서 많은 생산과 소비를 일으키며 지역경제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양양국 제공항을 통해선 이미 중국의 자본과 관광객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자본과 관광객들이 우리의 경제와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엔 우리의 도전과 실험을 기다리는 수많은 원천들이 있습니다. 이 원천을 가공하고 재생하기 위하여 2,300억원이 넘는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의 많은 부분이 여러분의 창의와 도전을 도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연금술은 결과로서의 금을 향해 나아갔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더욱 빛나는 가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 도전과 용기가 불러들인 커다란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두 손을 활짝 펼치고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를 힘껏 움켜잡읍시다!
힘찬 도약의 한해를 만듭시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산하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양양군의회 의장
최 홍 규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희망의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향각지에서 고향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출향군민 여러분과 우리군의 자매도시로서 희로애락을 함께 해 주신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많은 힘이 되어주신 지역의 부대장님을 비롯한 주둔 장병 여러분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지난 한해는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동해·동서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군민의 오랜 염원인 오색 삭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관이 하나가 되어 지혜를 모은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대표축제인 송이·연어 축제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지역 경기 부양에 일조하였으며,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행사를 주제로 한 각종 마을 행사가 성황을 이루는 등 군의 관광 인프라 확충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니다.

올미년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속에서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할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군민들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은 제7대 의회의 기초를 공고히 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군민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아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민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으로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5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 회 의 원
정 문 현

**희망찬 을미년 새해, 『양양문화』
제26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양양문화』 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중국 남송(南宋) 때 문인 왕벽지(王闢之)의 『승수연담록(澗水燕談錄)』에, ‘책
을 펼쳐 놓으면 그것만으로도 유익하다’(開卷有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베고 자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고 하시던 우리 어르신들의 농(弄) 쉬
인 말씀이 떠오르는 구절입니다.

지난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 경기 불황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지만, 우
리 모두가 새해에 품은 희망과 기대를 잊지 않고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가
짐으로 노력한다면,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상당 부분 이룰 수 있을 것(不
忘有益)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가족, 친지들과 함께 내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나누며 정겹고 밝은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양문화』제26호 발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을미년 새해 독

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으로 김종길 시인의 시(詩), <설날 아침에>의 한 구절로 새해 인사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서도 한 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
어린 것들 잇몸에 돌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안중근의사(安重根義士)와 한시(漢詩) 이야기

전 양양문화원장 양 동 창

■ 금년 2015년(을미년)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일제의 국권침탈로 고통 받는 민족과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초개같이 버리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산화하신 선열들의 명복을 빌면서 수많은 애국지사 가운데 안중근 의사와 한시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계몽운동 및 의병활동

안중근 의사는 1879년 7월 16일 황해도 해주에서 출생하시어 태어날 때 배에 검은 점이 7개가 있어 어릴 때에는 응칠(應七)이라고 불렸으며 17세에 결혼하여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습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상하이[上海]로 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부친이 사망하자 돌아오셨습니다.

그 후 교육운동과 국채 보상운동 등 계몽운동을 벌였고,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 신협약의 체결로 군대가 해산됨에 따라 의병 활동이 일어났으나 국내활동이 여의치 않아 두만강 부근의 노브키에프스크를 근거지로 훈련하면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으며 이때 이범윤을 총독으로 김두성(金斗星)을 대장으로 추대하고 참모중장이 되었습니다.

국내 진입 작전 당시 읊었던 愛國詩(애국시)

男兒有志出洋外	(남아유지출양외)	사나이 뜻을 품고 나라밖에 나왔다가
不事入謀難處身	(불사입모난처신)	큰일을 못 이루니 몸 두기 어려워라.
望須同胞誓流血	(망수동포서류혈)	바라건 데 동포들은 죽기를 맹세하고
莫作世間無義神	(막작세간무의신)	세상에 의리 없는 귀신은 되지 말자.

2. 이토히로부미 저격사건

1902년 3월 2일 노브키에프스크에서 함께 의병활동을 하던 12분의 동지들과 단지회(斷指會 : 일명 단지동맹)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했다. 안 의사는 침략의 원흉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를 암살하기로 하고 3년 이내에 성사하지 못하면 자살로 국민에게 속죄하겠다고 맹세하였다.

그해 9월 블라디보스토크의 <원동보(遠東報)>와 <대동공보(大東共報)>를 통해 이토가 북만주 시찰을 명목으로 러시아의 대장대신(大藏大臣) 코코프체프와 회견하기 위하여 온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안 의사(당시 31세)는 하얼빈과 채가구(蔡家溝)를 거사장소로 정하고 채가구에 우덕순과 조도선을 배치하고 그는 하얼빈을 담당했다. 안 의사가 의거 전에 하얼빈에서 지은 “丈夫歌(장부가)”인데 그 당시 일본경찰에 압수되었다고 합니다.

丈夫歌 (장부가)

안중근

丈夫處世兮 (장부처세혜)
 其志大矣 (기지대의)
 雄視天下兮 (웅시천하혜)
 何日成業 (하일성업)
 時造英雄兮 (시조영웅혜)
 英雄造時 (영웅조시)
 東風漸寒兮 (동풍점한혜)
 壯士義熱 (장사의열)
 憤慨一去兮 (분개일거혜)
 必成目的 (필성목적)
 鼠竊伊藤兮 (서절이등혜)
 豈肯比命 (기궁비명)
 豈度至此兮 (기도지차혜)
 事勢固然 (사세고연)
 同胞同胞兮 (동포동포혜)
 速成大業 (속성대업)
 萬歲萬歲兮 (만세만세혜)
 大韓獨立萬歲 (대한독립만세)
 萬萬歲 大韓同胞 (만만세 대한동포)

장부가 세상 살아감이여
 그 뜻이 크도다.
 크게 천하를 보노니
 어느 날에나 사업을 이룰 건가.
 때가 영웅을 만들고
 영웅이 또 때를 만드는구나.
 동풍이 점점 추워짐이여
 장사의 열은 끓도다.
 분개하고 한번 감이여
 반드시 목적을 달성하리로다.
 쥐처럼 도둑질 하는 저 이등이여
 네가 어찌 살리오.
 몇 번이나 이에 이르렀던고
 사세가 그러하였구나.
 동포여, 동포여,
 속히 대업을 이루리로다.
 만세, 만세,
 대한독립만세.
 만만세, 대한동포여!

안 의사는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이토가 코코프체프와 열차에서 회담을 마친 뒤 러시아 의장대를 사열하고 환영군중 쪽으로 가는 순간 권총을 쏘아 이토에게 3발을 명중 시켰다. 이어 하얼빈 총영사 가와카미[川上俊彦], 궁내대신 비서관 모리[森泰二郎], 만철(滿鐵)이사 다나카[田中清太郎] 등에게 증경상을 입힌뒤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 뒤 러시아 검찰관의 예비심문과 재판과정에서 한국의병 참모중장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이토가 대한의 독립주권을 침탈한 원흉이며 동양평화의 교란자이므로 대한의용군사령관의 자격으로 총살한 것이므로 나는 포로로 취급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며, 5개월 동안 여러 차례 재판을 받으면서 이토의 죄상을 15가지나 제시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밝혔으나 일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묵살하면서 변호사의 선임까지 허용하지 않았으며 1910년 2월 14일 사형선고를 받고, 3월 36일 뤼순감옥

에서 사형당하였다. <국가에서는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다음은 창강 김택영(滄江 金澤榮)이 을사보호조약으로 나라를 잃자 비분강개하여 1908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출판활동 중 안 의사가 나라에 보답하여 원수 갚은 일을 듣고 지은 시를 소개합니다..

聞安重根報國讐事(문안중근보국수사)

창강 김택영(滄江 金澤榮)

萬里飄然一粟身	(만리표연일속신)	만리에 표연히 떠도는 좁쌀 같은 한 몸
舟中皆敵有誰親	(주중개적유수친)	한배 안에 모두 적인데 누구와 친하리오.
今日腐心潛水客	(금일부심잠수객)	오늘 절치부심 물속에 잠긴 듯 한 나그네요
昔年嘗膽臥薪人	(석년상담와신인)	지난해 와신상담하는 사람이었네.
張椎荊劒胸藏久	(장추형검흉장구)	장량(張良)의 철주와 형가(荊軻)의 칼을 가슴속에 품은 지 이미 오래고
魯海屈羅思入濱	(노해굴라사입빈)	노중련(魯仲連), 굴원(屈原)처럼 물(일라 강)에 빠져 죽는 것도 생각했네.
此行已決平生志	(차행이결평생지)	이번의 거사를 이미 평생의 뜻으로 결심하였으니
不問東關更向津	(불문동관갱향진)	동관을 불문하고 또다시 항구로 향하였네.
平安壯士目雙張	(평안장사목쌍장)	평안(황해)출신 장사가 두 눈을 부릅뜨고
快殺邦讐似殺羊	(쾌살방수사살양)	마치 양을 죽이듯 나라의 원수를 통쾌히 죽였구나.
未死得聞消息好	(미사득문소식호)	죽기 전에 이같이 좋은 소식을 듣게 되다니
狂歌亂舞菊花傍	(광가난무국화방)	국화 옆에서 미친 듯이 노래하고 춤추네.
海蔘港上鷓磨空	(해삼항상골마공)	해삼 항(블라디보스톡)에는 송골매가 하늘높이 날아 오르고
哈爾濱頭露火紅	(합이빈두벽화홍)	하얼빈 역두는 벼락불로 붉게 물들었다
多小六州豪健客	(다소육주호건객)	오대양 육대주의 많은 호걸들이
一時匙箸落秋風	(일시시저낙추풍)	가을 낙엽 떨어지듯 일시에 수저를 떨어뜨렸다
從古何嘗國不亡	(종고하상국불망)	예로부터 망하는 나라 어이없으랴.
織兒一倒壞金湯	(섬아일도괴금탕)	금성탕지(金城湯池) 굳은 성도 어린아이가 헐었구나.
但令得此撐天手	(단령득차탱천수)	단지 하늘을 펼 만한 이런 분이 있으니
却是亡時也有光	(각시망시아유광)	도리어 나라 망한 때에 광채는 빛나리랴.

- ❖ 魯海屈羅(노해굴라) : 노중련은 바다에서 순사하고 굴원은 먹라수에 빠져 죽음
- ❖ 東關更向津(동관경향진) : 안중근 의사의 행적(산동-상해-북간도-블라디보스톡)
- ❖ 平安壯士(평안장사) : 실제로는 황해도 장사인데 착각한 듯.
- ❖ 海蔘港(해삼항)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
- ❖ 未死(미사) : 이미 죽어야 하는데 아직 못 죽었다는 뜻
- ❖ 邦讐(방수) : 나라의 원수

* **창강 김택영(滄江 金澤榮 : 1850~1927년)**은 매천 황현(梅天 黃玹)과 문장의 영재 이견창(寧齋 李建昌)과 더불어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유학자로 1905년 학부 편집위원이 되었으며 시인 산문가 비평가로서 반봉건적 문화운동을 벌였고 탁월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역사책을 집필하였음.

3. 안중근 의사와 의암 류인석(毅菴 柳麟錫)

춘천문화원과 의암학회 자료에 의하면 안 의사가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그대는 의병이라고 말하는데 의병의 총지휘자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팔도 총독 김두성(金斗星)이며 강원도 사람이다.”라고 답변하자 일제는 김두성을 찾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 또한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부미 저격거사를 류인석 선생에 보고했고 이에 류인석 선생은 거사가 성공하면 “이토히로부미의 동양평화를 교란하는 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다.”고 격려했다고 했다. 조동걸 국민대 교수는 1969년 “안중근 의사 재판 기록상 인물 김두성 고”에서 김두성은 류인석 장군의 가명이라고 밝혔다. 의암선생은 “다행이 죽이면 국가의 원수를 갚을 뿐 아니라 동양의 평화를 교란하는 죄를 더욱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는 대의명분을 온 천하에 천명하여 세계인을 인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4. 안중근 의사의 유묵(遺墨)

안 의사의 유묵은 수십 편이 있습니다. 그중 한시와 관련된 몇 수만 소개합니다.

<보물 제 569-9 호> 이백시를 차운하여 쓴 유묵

五老峯(오로봉)

五老峯爲筆	(오로봉위필)	오로봉으로 붓을 삼고
三湘作硯池	(삼상작현지)	삼상의 물로 먹을 갈아
青天一丈紙	(청천일장지)	푸른 하늘 한 장 종이 삼아
寫我腹中詩	(사아복중시)	뱃속에 담긴 시를 쓰겠다.

이백(李白)의 望廬山 五老峯(망려산 오로봉)

廬山東南五老峰	(려산동남오로봉)	여산 동남쪽 오로봉이여
青天削靄金芙蓉	(청천삭출금부용)	푸른 하늘에 금색연꽃이 불쑥 솟아 있구나.
九江秀色可攬結	(구강수색가람결)	구강의 빼어난 경치를 모두모아 놓았으니
吾將此地巢雲松	(오장차지소운송)	내 장차 이곳에서 구름과 소나무를 벗 삼아 살리라.

<보물 제 569-11 호>

思君千里	(사군천리)	천리 밖 임금님을 걱정하니
望眼欲穿	(망면욕천)	바라보는 눈 허공을 뚫으려 하네.
以表寸誠	(이표촌성)	작은 충성을 표하였으니
幸勿負情	(행물부정)	저의 충정을 저버리지 마소서.

* 고종황제에게 남긴 유묵이라고 함.

<보물 제 569-21 호>

欲保東洋	(욕보동양)	동양을 보호하려면
先改政略	(선개정략)	먼저 전략을 고쳐야한다.
時過失機	(시과실기)	때를 놓쳐 실기하면
追悔何及	(추회하급)	후회한들 무엇하리요.

〈보물 제 569-12 호〉

丈夫雖死心如鐵	(장부수사심여철)	장부가 비록 죽을 지라도 마음은 쇠와 같고
義士臨危氣似雲	(의사임위기사운)	의사는 위태로움에 이를지라도 기운이 구름과 같도다.
年年點檢人間事	(연년점검인간사)	해마다 세상일 헤아려 보니
惟有東風不世情	(유유동풍불세정)	다만 봄바람만이 세태를 따르지 않네.

5. 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

중국 하얼빈 도안구 안승가 85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3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 방문시 시진핑 주석에게 요청하여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일본의 반발을 예상하여 극비리에 하얼빈 역의 기존 1등석 승객대기실을 허물고 2014년 1월 19일 기념관을 개장 하였으나 일본의 반발이 거세었다고 합니다. 기념관에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이토를 암살하는 모형과 사진 등 유품 3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으나 매우 협소하였습니다.

* **하얼빈(哈爾濱)**은 중국의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로 겨울은 길고 여름은 짧으며 그 짧은 여름도 덥기보다 시원한 느낌을 주고 빙설 문화가 발전한 곳이며 “얼음의 도시”로 빙설 및 피서 관광지로 면적은 5.78 평방키로미터이고 인구는 960만명이라고 합니다.

〈하얼빈 항일 유적지 탐방〉

강원도 문화원 연합회에서는 2014. 5. 20 ~ 5. 23(3박 4일) 하얼빈과 목단강 지역의 항일 독립 운동 유적지를 탐방하였다. 필자도 일행과 함께 안중근 기념관, 백야 김좌진 생가와 일본 군국주의의 세군전쟁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731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으며 안중근의사의 기념관을 하루 속히 확장 보완하여 대외에 일본의 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사적지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안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참고자료

1. 컬러판 한국사 (신흥서관)
 편저자 李鉉淙 朴性鳳 河炫綱
2. 춘천문화원과 의암학회 자료
3. 안태평의 한문교본 대가법첩
4. 강원도민일보(제6751호) 기사
5. 인터넷 자료 안중근 의사



양양부사 연암 박지원을 만나다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연구원 김양식



최근 연암 박지원부사를 양양군 문화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되면서 “연암 박지원 문화콘텐츠 조명 심포지엄”이 2012년 6월에 이어, 2014년 11월 24일 강원도민일보사와 양양문화원이 주관하고 양양군과 양양군의회 후원으로 양양군문화복지회관에서 두 번째로 열렸다. 그러면 과연 연암 박지원은 누구이며 양양과는 어떤 인연이 있었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1. 시대적 배경

조선왕조 18세기 지성사에 3대 축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정조대왕이 있었고 집권세력인 노론학통의 연암그룹과 또 한편으로 재야 남인의 다산학파가 있었다. 연암그룹은 연암 박지원을 중심으로 명말정초의 양명학을 지향한 박제가, 이덕무, 홍대용, 정철조 등이 병자호란 이후 북벌론이 만연하던 시기에 청나라의 앞선 문명과 기술을 배우자는 북학과 모임이었고, 다산학파는 서양과학과 천주학을 내세우는 정약용, 정약중, 이승훈, 권철신, 이벽 등의 남인그룹이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 건국 이래 세계화로 접어드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2. 연암 박지원은 누구인가?

〈유년기〉

영조 13년 1737년 2월 5일 서부 반송방(盤松坊) 야동(冶洞)에서 박사유(朴師愈)의 4남매 중 막내로 출생하였다. 연암의 5대조는 선조의 딸인 정안옹주(貞安翁主)와 혼인하여 노론학통의 왕실가문이었지만 조부 장간공 필균(弼均)은 40세가 넘어 경기도 관찰사를 지냈고 부친은 당시 심한 당파싸움에 염증을 느껴 아예 관직을 포기하였다. 이에 가세가 기울어 유년기의 연암은 조부슬하에서 성장한 관계로 학업에 열중하지 못했다.

1752년 16세에 전주이씨 이보천(李輔天)의 딸과 혼인하였고 홍문관 교리였던 처 삼촌인 이양천(李亮天)에게 맹자(孟子)와 사마천의 사기(史記)를 중심으로 문장 쓰는 법을 배웠다. 장인은 당시 우암 송시열의 학문을 계승한 뛰어난 학자였으나 청빈을 가문의 트렌드로 내 세우는 바람에 살림은 어려웠다.

체격은 아주 건장하고 양기 충만한 성격에 목소리는 얼마나 컸는지 면천군수 시절에는 담 너머 귀신이 달아날 지경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18세에 재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현실 적응이 어려워 율화병으로 고생한다. 아버지는 백방으로 약을 구했지만 별 차도가 없자, 마침 남양에 사는 민유신을 만나 함께 거리로 나간다. 여기에서 분노장수, 도사, 건달, 장사꾼 등 다양한 천민들과 소통한다. 이들은 의외로 양반들 보다 세상을 보는 눈이 해박했고 이치에 밝았다. 이들과 의기투합하면서 병도 낫고 인생을 새롭게 바꾼 계기가 되었다. 이 때 연암은 과거를 통한 입신양명의 길에서 완전히 탈주하고 새로운 글쓰기에 몰입한다.

2~30세 전후에 당시 양반들의 무기력하고 위선적인 생활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기록한 “양반전”과 민옹전(閔翁傳), 광문자전(廣文者傳), 금신산전(金神仙傳), 우상전(虞裳傳), 예덕선생전(穢德先生傳), 마장전(馬駟傳), 역학대도전(易學大盜傳)과 봉산학자전(鳳山學者傳)의 총 9편이 방궐각외전(防瑠閣外傳)에 수록되어 있다.

〈중년기〉

1759년 10월에 모친상을 당하고 이듬해 8월 조부 장간공 마저 상을 당하자 1760년에는 북한산 암자로 입산하여 학문에 몰두한다. 1761년 25세 때에는 성균관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고목과 노송만 그려놓고 퇴장하여 과거에 뜻이 없음을 밝히고 평생 프리랜서로 학문에 매진한다.

1765년 가을에는 천재 음악가이자 과학자인 홍대용(洪大容), 괴짜 발명꾼인 정철조(鄭喆祚), 유언호 등과 금강산을 유람한다. 그 때 “충석정관일출 叢石亭觀日出”을 짓고 만폭동에서 이름을 새기고 삼일포(三日浦)의 사선정(四仙亭)에 현판을 세웠는데 현재는 북한땅이라 현존하는지는 알 수 없다. 안의현감 퇴직 후 백성들이 선정비를 세우려 했으나 완강히 거절하였다는 기록과 최근 설악산 계조암 좌편 암자에 아들 종간(宗侃)과 유학금(柳學金)이라고 새긴 음각이 유일하다.(2013.10 양양문화원에서 현지 확인)



설악산 계조암 암각

1767년 6월 31세에 부친이 사망하자 가족들을 경기도 광주석마 처가로 보내고 파고다 옆 원각사지 10층 백탑(白塔) 근처 전의감동 우사에 기거하면서 북학파의 대가 박재가(朴濟家), 이덕무(李德懋), 유득공(柳得恭), 서상수, 무사 백동수 등과 만나 낙후된 조선을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발전시키고자 노력한다. 이들은 매일 밤 한쪽에서는 풍류와 명상을 또 한 쪽에서는 학문과 토론으로 지성의 향연을 펼쳤다.

1770년 34세에 지인들의 권유로 과거에 응시하여, 초, 종장에 장원하여 영조의 총애를 받았지만 회시에는 결국 시권을 내지 않고 또 다시 벼슬길을 단념하고 이덕무, 이서구, 백동수 등과 송도, 평양, 가야산, 단양 등지를 유람한다. 이 때 개성 부근의 연암골을 발견하고 “연암(燕巖)”이라는 자호를 얻는다.

1776년 우여곡절 끝에 정조가 즉위하면서 공이 큰 홍국영이 실권을 잡자 반대편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연암도 위기를 느끼고 형님인 희원가족과 함께 황해도 연암골로 피신하였다. 당시 개성 수유였던 유언호의 도움을 받아 농사, 과수, 목축, 양봉을 치며 농업개발에 힘을 쏟았다. 이 때 쓴 농서의 기초본이 1799년 면천군수 재직 시 정조의 농서를 구하는 교서에 의해 쓴 “과농소초(課農小抄)”의 기초가 된다.

2년 후인 1778년 실권을 남용한 홍국영이 갑자기 실격되었다. 연암은 다시 백탑으로 돌아 왔지만 옛 친구들은 이런저런 사유로 모두 떠나고 없었다. 하루하루를 아주 답답한 심정으로 암울한 시절을 보내던 차에, 정조 4년 1780년 44세에 삼중형 박명원이 청나라 건륭황제(고종)의 만수절(칠순잔치)에 사절단장

으로 임명된다. 이때 자제군관(개인 비서격)으로 동행하여 한양에서 열하까지 약 3천리 길을 6개월 동안에 걸쳐 다녀 온 여행후기를 일기형식으로 쓴 것이 바로 불후의 명작 “열하일기(熱河日記)”이다.

연암은 체격이 아주 크며 무더위를 잘 견디지 못하는 체질이면서도 여정이 힘들면 힘들수록 사물을 관찰하고 사유하고 기록 또한 더욱 왕성하였으며 유머가 넘쳤다. 천리까지 아득히 펼쳐지는 요동벌판에 들어서자 “아, 참 좋은 울음터로구나. 크게 한번 울어볼 만하구나!”라며 요동이 옛 우리의 고조선의 땅임을 한탄한다. 「호곡장론(好哭場論) 중에서」 또한 청나라의 화려한 문물을 접하자 “청나라의 장관은 버려진 기와조각과 퐁부스러기에 있구나”라든가, 정진사와 일찍 식사를 마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성을 쌓는데는 벽돌이 돌보다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서 걷는 잡고 대 장면은 유머가 흘러 넘치면서도 후일 이용후생의 실학문으로 정립된다.



열하일기 이동로

당초에는 연경(북경)길에 올랐으나 황제가 여름피서 산장인 열하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연경에서 다시 7백리 길을 역참도 건너뛰면서 무박나흘을 자지도 먹지도 못하며 가야만했다. 때는 여름철이라 변화무쌍한 기상, 찌는듯한 무더위가 계속되었다. 아뵤사! 연암의 병마잡이가 부상을 입는 바람에 한손에는 햇불을 들고 직접 말고삐를 잡는다. 협곡사이로 흘러넘치는 강물을 하룻밤에도 몇 번씩 건너면서 모래톱에 갇히기도 한다. 이 때 남긴 야출고북구기(夜出古北口記)는 조선에 한문이 유입된 지 5천년 이래 가장 뛰어난 명문장이라 할 수 있다.

“그토록 길길이 날뛰며 싸우던 전쟁터건만,
 지금은 온천하가 조용하여 군대를 일으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방으로 산이 둘러싸고 있어,
 수많은 골짜기들이 쓸쓸하고 적막하기만 하다.
 때마침 상현이라 달이 고개에 드리워 떨어지려 한다.
 그 빛이 싸늘하게 버려져 마치 솟돌에 갈아놓은 갈날 같았다.
 마침내 달이 고개 너머로 떨어지자,
 뾰족한 두 끝을 드러내면서 갑자기 시뻘건 불처럼 변했다.
 마치 햇불 두 개가 산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북두칠성의 자루 부분은 반쯤 관문 안쪽으로 쏘였다.
 별레 소리가 사방에서 일어나고 긴 바람이 싸늘하다. 숲과 골짜기가 함께 운다.
 짐승같이 가파른 산과 귀신같이 음산한 봉우리들은 창과 방패를 벌여 놓은 듯 하고,
 두 산 사이에서 쏟아지는 강물은 사납게 울부짖어,
 철갑으로 무장한 말들이 날뛰며 쇠북을 울리는 듯하다.
 하늘 저편에서 학 울음소리가 대여섯 차례 들려온다.
 맑게 울리는 것이 마치 피리 소리가 길게 퍼지는 듯하다.

누군가 말했다. 고니 소리네”

-야출고북구기 중에서

열하는 청나라가 북방 오랑캐들을 제어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러자 황제가 방어 차원에서 자주 머물게 되자 하루가 다르게 연경보다 더 화려하게 발전되었다. 연암은 웅장한 성지와 온갖 특이한 인간 군상들과 코끼리나 낙타와 같은 기이한 동물들도 이곳에서 처음 만난다. 그리고 중국 선비들과의 고담준론(高談峻論)도 아주 진지하게 펼친다.

건륭황제가 티베트의 법왕 판첸라마의 황금 전각을 지어 아주 특별히 대접하고 있었는데 우리 사절단에게 크게 인심을 쓴답시고 예를 표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그러나 우리 사절단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왜냐하면 성리학을 조선의 국가 이념으로 삼던 조선인에게 티베트 불교는 이단 중에 이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제의 명령을 거절할 수도 없어서 대충 적당히 때운 것이 화근이 되었다. 이런 모습을 본 황제는 나의 성의를 무시했다면서 “그 나라는 예를 아는데 그대들은 어찌 예를 모르냐”고 화를 내는 바람에 6일 만에 쫓기듯 연경으로 귀환한다. 여기에서 열하일기는 막을 내린다.

〈만년기〉

노년의 늦은 나이에 관직에 나가는데 음관으로 얻은 벼슬이다.

50세 1786년 정조 10년에 종 9품 선공감 감역으로 제수받고,

53세에는 사복시 주부로 승진하고,

54세에 의금부 도사직으로 임명되었다.

55세 1791년에 한성부판관에서 안의현감(경남 함양군)으로 부임한다.

61세 정조 21년 1797년에는 면천군수(충남 당진군)로 부임 후 농업 진흥책인 “과농소초” 15권과 “한민명전의”를 부록으로 저술하였다.

64세 1800년 6월에 정조임금이 갑자기 승하하고 동년 7월 4일 순조가 즉위하면서 8월 18일 양양부사로 승진 부임한다. 그리고 정조임금의 황장목을 쓰기위한 진영(鎭營)이 설치되었다. 연암부사는 필요한 황장목을 보내고 나머지 판자를 강가에 모아놓고 매년 장마기에 고충을 겪는 백성들을 위해서 황장목 패다리를 튼튼하게 놓아줌으로서 몸소 이용후생을 실천하였다.

65세 1801년 순조의 천주교(신유사옥) 대 탄압으로 정국이 혼란해 지고 건강이 나빠지자 10개월간의 부사직을 사임하고 한양으로 돌아와 요양과 독서로 노년을 보낸다.

69세 1805년 10월 20일 가회방 재동 자택에서 약을 물리친 후 옛 친구들을 불러 술자리 만들게 하고 “깨끗이 목욕시켜 달라”는 유언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일생을 마쳤다.

3. “연암 박지원 문화콘텐츠 조명 심포지엄”에 관한 내용 (2014.11.24일자)

1) 토론 배경

최근 양양문화원에서는 앞으로 디지털의 유동화 시대에 맞는 “지역 문화콘텐츠”를 찾는데 주목하였다. 아름다운 자연을 활용해서 관광산업으로 연결하자는 인문학적 창발상인 셈이다. 이것이 1800년에 양양부사를 지낸 연암 박지원의 “경관녹봉록”이다. 연암이 사임을 하고 퇴직한 사또들의 모임에서 저마다 녹봉에 관한 이야기 나왔다고 한다. 서로 많고 적음을 얘기하던 중에 연암은 일만 이천냥을 받았다고 했다. 모두 놀라며 의아해 하자, 연암은 “양양의 바다와 산의 빼어난 경치가 만냥은 될 만하고 고을의 등급이 이천냥이니 넉넉히 금강산 일만 이천봉과 서로 나란하다 할 만 하지요”라고 한 양양의 자연경관에 초점을 맞췄다.



연암 박지원 문화 콘텐츠 심포지엄

2) 지정 토론자의 의견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양군 발전과 연암 문화콘텐츠 확장”이라는 주제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의 기조발표가 있었고 주제발표로는 이학주 강원대학교 강사의 “연암 박지원과 양양군 스토리텔링”이라는 명제로 2016년 8월 10일(음) 양양군 정명 600주년을 기념하는 마을 박물관 개념의 “연암 테마거리”를 조성하자는 내용과 양언석 강원도립대학 교수의 “연암 박지원과 양양의 역사문화유적지 연계방안”으로 “양양도호부 관아 및 이화정 복원”의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또한 천남수 강원사회조사연구소 연구위원의 사회로 여러 교수들과 진중호 양양군의원의 지정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근세 국민대교수는 열하일기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영아 한양대 국문과 교수는 소나무길 조성, 엄찬호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는 “경관녹봉론” 우선적 홍보방안을, 엄현섭 강원문화연구소 연구교수는 연암 실학사상과 문학 연계성을, 진중호 양양군의원은 “탁장사 고을 전통문화축제”와 연계한 구룡령 옛길, 현남면 입암상여소리와의 스토리텔링 개발과 관리소홀로 유실된 황장금표 발굴 조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3) 종합 토론 내용

양양군에서는 지난해에 오색령 정상에 포토존을 설치하였다. 그곳에 “연암부사의 경관녹봉론 포토존”이라는 입간판을 연암 초상화와 함께 설치하여 양양의 이미지 브랜드로 홍보하자는 의견과,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에서 2013년에 발표한 “양양의 루정대”를 보면 33개소의 루, 정, 대 터와 이에 관련된 165수의 시를 발굴 조사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루, 정, 대 복원사업과 연암 문학관, 문예 창작마을을 지정하자는 의견과, 해마다 시월이면 마을단위 축제인 “탁장사 고을 전통문화축제”가 원일전리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데 “양양 패다리놓기” 재연행사를 하고 있다. 이것을 “연암 패다리놓기”로 명칭을 변경하여 양양현산문화제, 송이축제, 연어축제에 연암 부사도 함께 등장시켜 전통민속놀이로 확대 재연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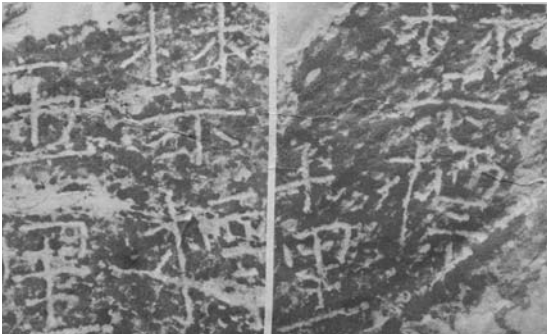


2014 양양패다리놓기 재현

또한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에서 2013년도 “양양 지방의 황장금표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내용을 보면 현재 현존하여 확인된 금표 표지는 없으나 1996년도 까지 현존하였던 현북면 법수치리 용화사 입구의 “금표”는 그 후 교량 확장공사 시에 교각밑에 매몰되었다고 하며 (구술자:김진목 법수치리장)

현북면 원일전리 강변에 있던 “금표 5리”는 2009년도 경까지 현존하였으나 그 후 새농촌건설 하천정비사업 시 훼손되었다고 하며(구술자:박상우 원일전리)

현북면 어성전리 “금표 10리”는 1984년도까지는 원일전-어성전간 구 도로 길가에 현존하였으나 그 후 군도 확장공사 시 도로 지반 밑으로 매몰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구술자:박상우 원일전리)



원일전, 어성전 금표



법수치 금표 탐사

기념사업으로는 연암 기념비 설치, 연암 열하일기 둘레길 조성 등이 논의됐다.

4. 맺는 말

조선왕조 5백년을 대표하는 대 문장가인 연암 박지원이 1800년 양양부사로 재직 후 “경관녹봉론”을 주창했다. 이 콘텐츠를 확장하여 힐링 양양의 새 브랜드로 창조하고자 한다. 최근 제3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폴 호큰의 자연자본론”보다 약 200년이 앞선 것이다. 앞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면 세계의 많은 체육인과 관광객이 강원도를 찾을 것이다. 이 기회에 오색 케이블카와 연계하여 하늘이 내린 지역의 보물로 활용하여 식어가는 강원관광에 새로운 불씨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문화융성의 시대에 양양의 문화유산으로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방안을 창조해 내자는 연암부사의 실학사상과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거듭나기를 기대 한다.

〈參考文獻〉

燕巖集, 過庭錄, 日省錄, 熱河日記, 防瑠閣外傳, 襄陽의 樓亭臺, 襄陽地方의 禁標

6 · 25 한국전쟁시기

軍政이 襄陽地域에 미친 影向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 연구원 이철수

I. 서론

1. 지정학적으로 분쟁이 많은 양양

양양은 동으로는 동해, 서는 험준한 태백산맥이 장벽을 이룬 고장으로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지역으로 고려 고종 40년(1253년) 몽골군을 막지 못해 양주성이 함락되어 부병과 부민이 몰살당하는 참극을 입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4월 만세운동이 극렬하였으므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당함은 물론 항일운동이 강렬하게 일어나 전국에서 독립정신을 높게 평가 받는 지역이다.¹⁾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양양은 38° 선으로 분단되어 5년간 북한 공산주의의 정치체제에 편입되어 고초를 겪었다. 동해 북부선 종착역이었던 양양에는 1950년 6·25남침 직전까지 북한군은 전쟁준비를 위한 병력과 군수물자를 집결시킨 본거지로서 피비린내 나는 6·25한국전쟁 속에서 국군이 1950년 10월 1일 38°선 돌파 최초 양양입성, 1951년 1·4후퇴, 3월 재입성, 밀고 밀리는 전화 속에서 양양지역은 초토화되었고 수많은 군민이 희생되었으며 헤아릴 수 없는 이산가족이 발생한 비극의 역사를 지니고 세계인이 주목하는 유엔군의 관할하에 당시 7만 양양군민은 군정을 체험하면서 비로소 자유세계의 품에 안긴 행운의 지역이 되었

1) 양양군지편찬위원회. 양양군지.2011.11.pp129~159

다. 38°선 이북 지역에서 강원도 7개군과 경기도 2개군 가운데 양양군만이 완전 수복되어 민간인들도 거주할 수 있었으나 기타 지역은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기전까지 비상계엄상태에 놓였으므로 원주민은 모두 소개 피난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접근도 금지 되었다. 휴전이 이루어 질 때까지 민간인 거주를 허용한 지역은 유엔군(미군)이 통치한 양양군뿐이었으며 당시 이 지역은 남한의 국회의원과 이승만 대통령도 미군의 동의를 있어야만 방문이 가능했다고 한다.

2. 연구의 방법

양양군은 격동기를 지났지만 아직도 전쟁의 후유증이 남아 있다. 그때의 기록들은 비밀이 해제되어 많은 부분 공개되고 있고 연구물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 시절의 전쟁에 참전했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은 분들은 돌아가셨거나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들도 고령화 되어 가고 그때의 기억이 흐려지고, 표현도 어눌해지고 또 그 수도 줄어들고 있다. 이 처럼 양양군만 ‘일면 작전, 일면 건설’을 하며 유엔군을 대표하는 미군이 군정을 실시하게 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군정은 어떤 형태로 실시되었을까? 미국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었을까? 주민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군정이 38°선 이북 점령지역에 미친 영향, 의의 및 문제점은 무엇인가? 6·25한국전쟁의 비극이 일어난지 64년이 지나갔고 휴전협정이 조인된지 60년이 지났지만 그 비극이 남긴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 이렇게 큰 상처를 남긴 문제에 대하여 1950년 10월 북진 이후부터 행정권 이양이 이루어진 1954년 11월까지 38°선 이북지역에(양양지역) 대한 유엔군정이 실시되었고 이런 험난한 시대에 양양 군민들은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아왔는지 고찰해 보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때의 생존자들의 면담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그 시절 양양군의 행정, 일면 작전 일면 건설 상황, 농어촌의 생활, 교육 재건상, 치안관계, 신앙의 자유, 고아원 운영, 민간인 구호시설, 산업, 교통 및 통신, 정치, 문화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II. 軍政의 시기 및 배경

軍政의 근거는 1950년 7월 7일과 10월 12일 유엔결의였다. 7월 7일 결의로 유엔은 미국이 한국 전쟁을 주도할 수 있게 했으며 미국 통합사령부가 유엔군 사령부를 설치하게 했다.²⁾ 10월 12일 결의를 통해서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38°선 이남으로 한정제한 된다는 점과 통합사령부가 잠정적으로 북한지역 통치를 맡는다는 점이다. 군정체제는 군사적 명령체제와 일치하였다. 통합사령부에 의해 설치된 유엔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 미 군단, 그리고 미군의 지휘를 받는 한국군 군단에 의해 현지 軍政이 실시되었다.

2) 한모니까. 유엔군 사령부의 ‘수복지구’ 점령정책과 행정 이양. (역사비평). 2006. p362

1. 軍政의 시기

한국 현대사에서 모두 세 번의 미 군정이 실시되었다. 첫 번째 군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38° 선 이북지역에 소련군이 점령해 왔고 남쪽 양양은 미군이 진주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시기이며, 두번째 미군정은 6·25한국전쟁기 북한지역을 일시 점령하던 시기인 1950년 10월 중순부터 12월초까지 대략 45일간이었다. 이때는 전쟁중이므로 주민들도 전쟁에 휩쓸려 생존을 위협받고 피란생활이나 동굴속에 숨어 힘겹게 지내던 시기이다. 세 번째 미군정은 양양군에서 6·25한국전쟁중인 1951년 8월부터 1954년 5월 국군이 인수하였다가 동년 11월 15일 한국정부가 인수하기까지 3년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38° 선을 재 돌파한 이후 세번째 군정 위주로 연구한다.

2. 유엔군의 참전과 작전 지휘권 이양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하루만인 6월 26일 04시(한국시간) 유엔은 ‘북한군은 즉각 전투행위를 중지하고 38° 선 이북으로 철수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한강철교 폭파 직후인 28일 04시(한국시간) “유엔군 파병”을 결의 유엔의 신속한 참전결의에 따라 맥아더 원수는 우선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제24사단을 7월 1일 이동하여 7월 5일부터 한국전에 참전하였다.³⁾

미국이 현지 작전지휘의 어려움을 들어 유엔군사령부 설치결의안을 7월 7일 채택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을 지휘하게 되는 통합사령부의 발족이 이루어진 것이다.⁴⁾ 한국정부도 유엔의 7.7결의에 따라 국군의 작전권 이양문제를 검토한 끝에 7월 13일부터 육군본부도 제8군사령부와 합동회의를 가짐으로써 사실상 합동작전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유엔은 미국에게 유엔군사령부 설치와 사령관 임명 권한을 부여하고 유엔기 사용을 승인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7월 15일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이것이 미군에게 국군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근거가 되었다. 이에 따라 7월 24일 정식으로 유엔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맥아더 원수가 유엔군 총사령관에 임명되었으며 우선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3개 사단중 제24사단에 이어서 제25사단, 1기병사단이 부산과 포항으로 7월 22일까지 이동하여 참전하였다. 미군의 선발대로 파병된 미 제24사단 스미스 부대는 7월 5일 오산 죽미령에서 북한군 제4사단의 공격에 맞서 분투하였으나 많은 피해를 입고 천안으로 철수하였다. 이 전투의 패배는 전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던 미군과 국군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미군의 패배 원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병력과 장비를 감축하고 훈련이 부족했으며 북한군을 과소평가하는 등 전투준비가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긴급히 투입되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국군은 병력과 화력이 열세하여 후퇴하고 유엔군은 금강 방어선과 대전전투에서 패배하는 등 북한군의 공세에 밀려 7월 말 낙동강 선까지 후퇴하였다. 이후 전선을 정비하고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하여 10월 1일 38° 선을 돌파하여 압록강까지 진

3)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월간신문), 2014.7.

4) 결의안 요지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안전보장이사회를 대신해 한국에서 침략자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권한을 위임하고 유엔회원국들이 파견한 군대는 미국의 통일된 지휘체제하에 둔다’는 것이었다

격하였으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1·4후퇴로 삼척까지 후퇴하였다가 3월 재북진하여 양양지역은 다시 수복되었다.

3. 軍政의 필요성

1951년 8월 군정이 시작되던 당시 유엔군이 점령한 38° 선 이북지역은 강원도의 양양군과 고성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춘성군과 경기도 연천군과 북포천군 2개군이다. 이 지역 가운데 북양양군에만 민간인들이 거주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유독 그 지역에만 군정을 실시했던 것일까? 좀 더 구체적인 군정 실시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오스본(J. Osborne)의 보고서를 미국국무부로 보냈던 주한미대사관의 입장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⁵⁾

나는 이 지역이 많은 정보실험과 교육실험이 수행될 수 있는 곳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그곳을 계속해서 공백지역으로 내버려두는 상태에 대해 의문시한다. 물론 그 곳은 철의 장막이 몇 마일 뒤로 밀리게 될 러시아제국의 주변부에 속하는 유일한 장소이다. 따라서 공산주의 행정연구와 공산주의 지역 재건을 위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위의 보고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점령과 통치의 목적은 한마디로 각종 ‘실험’이다. 즉 주한 미군은 그 지역에 대해 정보실험과 교육실험, 공산주의 행정연구, 피폐한 지역 재건 등을 목표로 군정을 실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군사 전략적 거점과의 연관성

이런 정황을 놓고 볼 때 군정이 실시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그 지역의 군사, 전략적 거점과의 연관성과, 둘째 과거 공산주의 지역에 대한 문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군사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지역적 특성은 수많은 인구를 필요로 했고 동시에 군정의 실시를 필요로 했다. 양양(속초)에서 원산에 이르는 동해전선에는 미8군 제 10군단을 비롯한 국군 1군단, HID 동해사령부, 해병대 등과 같은 첩보부대와 미군, 국군 유격대가 주둔해 있었다. 따라서 적계는 몇 만 명에 달하는 군인들이 속초를 거점으로 동해안 지역에 급작스럽게 배치됨으로써 군부대를 지원할 여러 종류의 민간인 군노무자가 필요했다. 속초에는 100여단(부대장 오광선 대령)군노무단 부대가 창설되어 몇 천 명이 복무하다가 정전협정이 조인된 후 9월에야 해산되었다. 노무부대는 수송, 보급, 잡역을 겸한 1인 3역을 담당하였으며 전선 전후방에서 국군뿐 아니라 미군에도 배속되어 수많은 탄약과 식량, 무기를 운반하고 부상자를 후송하였다. 특히 무더웠던 날씨가 치러졌던 산악 고지전에서

5) 오스본(주한 미 대사관 대사-당시 부산소재)은 1952년 2월 28일자로 오스본이 10일간 수복지구여행기록을 미 국무부로 보냈다. "Field Report on Yang Yang Gun, North Korea" Liaison Officer. USIS. 1951.)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노무단 노무자 외에도 속초의 미 10군단은 급작스럽게 4곳의 부두를 만들어 미군 군수 물자를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역 및 운송을 ‘상호운수주식회사’라는 미군의 용역하청회사가 담당했다. 이 회사에는 평균 500~600명의 노무자가 고용되었다. 노무자의 70~80%는 월남인이었다. 국군 1군단도 수 많은 민간인들을 임의로 고용했다. 비록 1951년 8월부터 북양양군에 군정을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원주민이 아닌 타 지역민들은 임의로 북양양군에 진입할 수 없도록 통제되었고 연고 없는 이주민들은 추방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⁶⁾ 그런데도 군부대는 군 후생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을 고용하게 되고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월남인들이 포함되었다. 민간인들의 임무는 첫째 군부대의 부식으로 쓸 어류를 잡아주는 일, 둘째 원산 앞 여도 등의 도서나 함북의 성진 앞 양도 등에 주둔해 있던 국군이나 유격대, 첩보부대 등에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일, 셋째 HID나 미군부대, 육군 소속 첩보부대 활동을 지원하는 일, 즉 첩보원들이 북한지역에 침투하거나 작전을 수행한 후 돌아올 때 배로 실어주는 일 등이었다. 월남인들이 1951년 이래로 북양양군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바다와 관련된 ‘군 후생사업’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일제시대 양양군 속초에 어업종사자는 20% 미만이었으나 그들에 비해 농업종사자는 68%로 훨씬 더 많아 속초는 농업지역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1955년 직업별인구를 보면 속초 전체인구 2만 3,699명 가운데 농업인구가 4,901명(20.7%) 어업인구는 5,666명(23.9%)이었다.⁷⁾ 특히 월남인들이 주로 거주했던 속초 청호동의 경우에는 거주민의 과반수가 어업에 종사했다. 즉 북양양군에 수많은 군부대가 들어오자 동부전선뿐만 아니라 동해안 전선에 전직 어부출신의 노무자들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노무자로서 월남인의 상당수가 충원되었다.

2) 사회주의 사상의 순화

종래 공산주의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여 적성을 제거하고 순화시키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려는 기획은 군정을 요구했다. 유엔이 점령한 38°선 이북 양양 지역은 역사적으로 3·1운동으로 민족사상이 급진적으로 팽배하여 주민의 자주정신은 계몽되어 군내 청년회와 농민조합을 조직하여 순수한 사회운동으로 발전하였으나 소련에 유학파가 귀국하면서 사회운동은 소련 예찬파가 군 내 모든 기관을 점유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이 주민에게 널리 파급되어 있었다. 이렇게 5년간 사회주의 혁명(민주개혁)을 맞던 중 한국전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계속 북한 영토를 점령하고자 희망했던 유엔군이나 이승만정부로서는 점령지역 주민을 어떻게 순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미국은 처음으로 점령한 사회주의 지역에 대해 사회주의적 요소와 적성을 제거하고 민주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했다.

6) 김귀옥. 국회사무처. 1951.

7) 속초읍. 1955.p14

Ⅲ. 양양군의 軍政 실태

1. 민사행정을 실시하기까지

10월 1일(일요일) 05:00 국군 3사단 23연대(연대장 김종순 대령) 3대대(대대장 허형순 소령)를 선두로 양양에서 역사적인 38°선 이북진격을 개시하였다. 이로써 5년간의 공산치하에서 고초를 겪던 양양군민은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또 10월 2일 오후에는 제3사단 지휘소가 양양으로 이동해 왔다.⁸⁾ 이때 지방 유지들은 10월 4일 치안확보를 위하여 군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진공상태의 질서유지에 노력하였다. 군사자치위원회 구성은 1950년 이전 공산주의가 싫어 월남했던 반공주의자들이 유엔군과 함께 들어와 치안대 및 반공단체를 구성하였다. 1950년 10월 유엔군이 북한 지역을 점령했을 때 대한민국의 주권은 38°선 이남으로 제한되었다.⁹⁾ 이승만 정권의 점령정책은 '실지회복'이라는 구호와 1950년 10월 12일에서야 내무장관을 통해 <북한 시정방침>을 발표했다. 그 방침은 북한지역의 모든 사법행정은 대한민국을 주간으로 하는 시정이었다. 하지만 미합참본부는 1950년 9월말경 <9.27훈령>을 맥아사령부에 보내 북한점령정책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북한공산군의 무장해제와 잔적소탕은 한국군에게 위임하며 유엔군은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군사작전과 점령과정에서 한국정부와 한국군으로부터 협력을 받을 수 있으나, 이북 지역에 대한 통치권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계획에 의거 미국은 북양양군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해 나갔다. 미국은 유엔군이 점령한 이 지역의 민정문제와 관련하여 유엔군 사령관의 통제아래 두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언커크-UNCURK)가 지역민과 한국정부 모두에 대해 권고나 상담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이 지역의 처리와 관련하여 한국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정치안정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10월 12일 유엔소총회 결의에 따른 것이었다.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 간의 통치권 및 행정부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으나 그 갈등은 해결되지 못한 채 중공군의 남침으로 12월 28일 국군과 함께 삼척까지 후퇴를 하였다. 1951년 3월 27일 국군의 재 진군으로 수북 민간인들이 입주하게 되자 양양군 자치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민정관에 박종승, 치안대장에 김민하를 추대하고 행정적 질서유지와 국군에 대한 물심양면의 협력사업 및 난민 구호사업을 하던 중 동년 7월 4일 군정행정법령에 의하여 군정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7월 5일 재차 군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1951년 8월 1일 제1군단 관하 지방자치행정 잠정규정에 의하여 군청을 양양면에 두고 군정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성군지역에서는 전선이 교착상태가 계속되자 동부전선 점령지의 일부를 제외한 지역에 군정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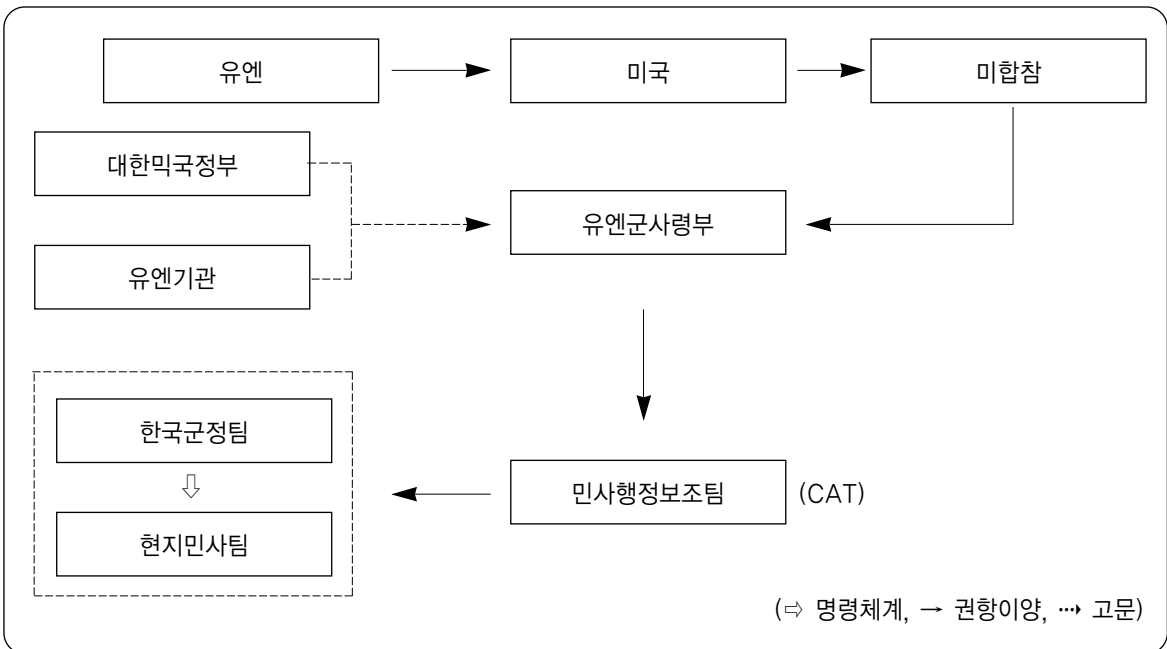
8) 백골전우회(왕선구), 23연대 전투사. 2006.4.p

9) 양양문화원, 양양의 6.25비화. 2009.12.20. p261.

2. 軍政의 체계

1) 軍政의 상위 조직 체계

양양군 지역에 대한 유엔군정의 통치구조는 군사지휘체계와 일치한다. 유엔은 한국전쟁발발과 함께 미군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로 하여금 군사력 및 각종 원조를 운용하도록 했다. 통합사령관은 미국이 지명했는데 극동사령관이던 맥아더를 사령관에 임명하였다.(7월 10일) 맥아더는 도쿄의 총사령부에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했다.(7월 25일) 맥아더는 극동군사령관과 통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을 겸했다.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는 미국합동참모본부로부터 임무수행에 관한 지시를 받았고 맥아더는 미8군에 한국의 지상군 작전책임을 부여했고 워커 장군이 미8군사령관이 되었다. 결국 북양양군 통치는 미합참의 지시를 받은 유엔군사령관 맥아더의 관할사항이 되었다.¹⁰⁾ 유엔군사령관은 이 지역 내 군정의 최고사령관이 되었으며 유엔군사령부 내 한국민사원조처(KCAC)가 한국에서의 모든 민사 군정 기능을 관리하고 군단과 사단에 민사 군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군사령관의 지시를 받았으며 8군사령관은 군사적인 면을 포함하여 모든 민사 군정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미제8군 민사처가 민사군정 수행을 위한 명령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8군사령관에게 조언했다. 8군사령관은 그 책임을 다시 각 군단장에게 위임했다. 미 군단장들은 군정장관의 직책을 한국군단장에게 위임했다. 이 지역은 명목상 유엔군사령부의 통제 아래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미 8군의 계획과 조직을 통해 통치되었고 구체적인 집행은 한국 군단장을 통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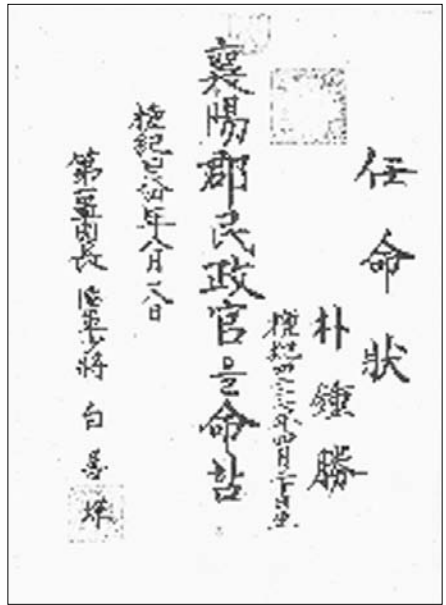


〈그림 1〉 유엔군정 상위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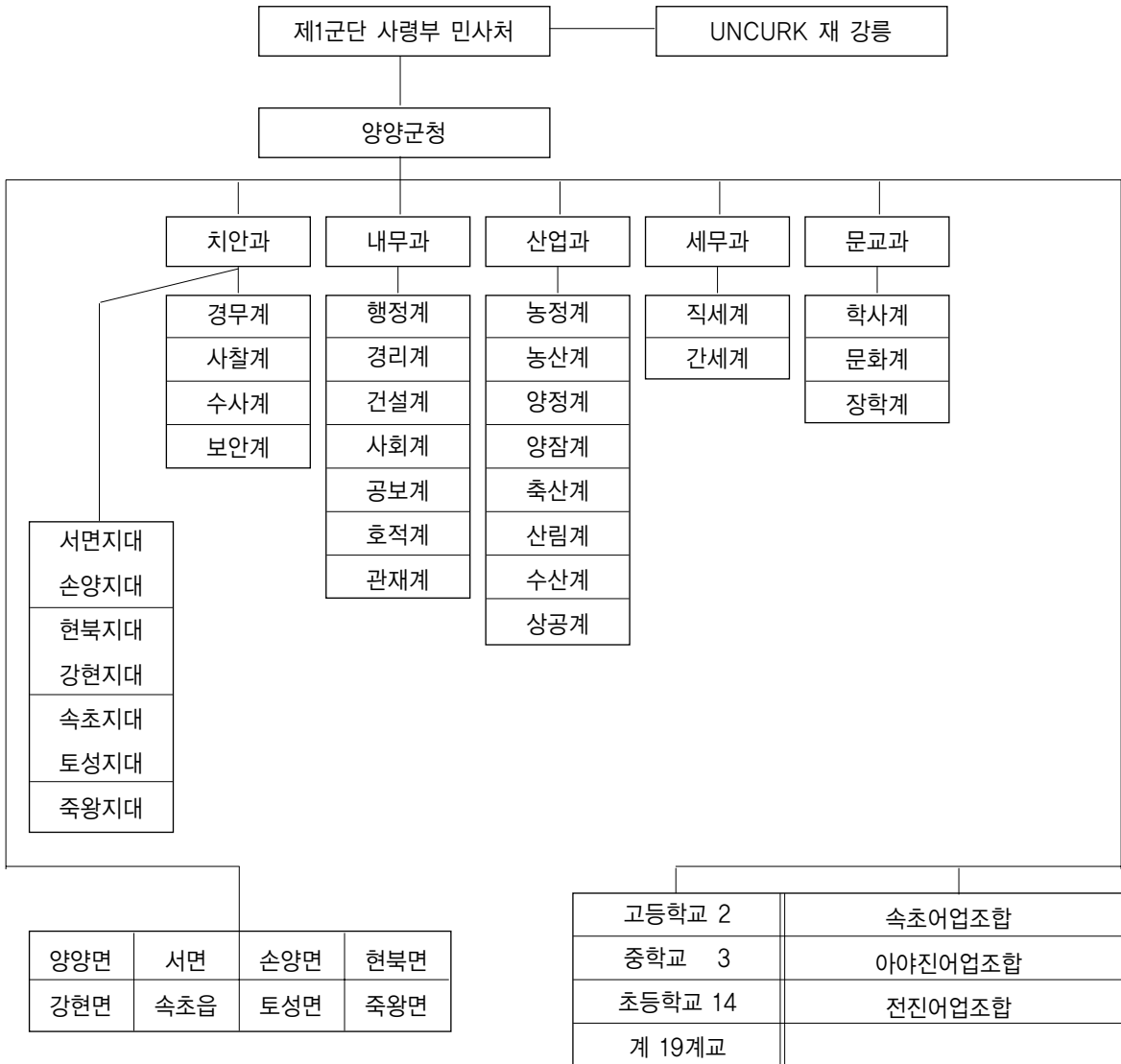
10) 한모니까. 전게서. 유엔군 상위조직체계. p365

2) 현지 軍政조직

38° 선을 두 번째 돌파한 1951년 3월 북진을 하여 양양군은 공산 학정에서 벗어났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이남으로 피난 갔던 수만 주민들은 국군이 진격하자 정든 고향을 찾아왔다. 양양지역 유지들은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치안대를 조직하여 질서를 유지해 나갔다. 또 국군에 대한 물심양면의 협력사업과 난민구호 사업을 하였다. 1951년 7월 4일 미제8군 사령부 행정 명령 제34호 부령에 의거하여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양양·고성지구에 주둔해 있던 국군 제1군단(군단장 이형근 중장)이 군정을 맡아 실시하게 되었다. 군단사령부는 민사처를 통해 민정을 실시했고 구체적으로 행정을 집행한 것은 현지 민사팀이었다. 이에 따라 양양의 8개 읍면이 수복을 개시하여 주민 총수 7만에 이르고 수복지구 총면적(고성 간성지구 제외)은 582km²에 달하고 있다. 7월 5일 군내 전반에 걸쳐 읍면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10일에 군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8월 10일에는 군 관하 지구 행정잠정규정을 공포하고 각 리장 읍장을 선거한 다음 동 10일에는 군(郡) 민정관(군수)을 선출(초대 민정관 박종승씨)하고 9월 19일에는 각 읍면 협의원을 선출하였다. 선출방법은 과장급 등 간부직원은 일제강점기 군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중견(주사급) 간부를 임명하고 하급직원은 중 2~3학년이상 다녔고 북한 공산당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을 추천하여 이를 군단에서 임명하였다. 제1군단 관하 지방행정 잠정규정에 의하여 군청을 양양면에 두고 군민정관 휘하에 내무과, 산업과, 세무과, 문교과, 치안과 등을 두고 각 과 아래는 계를 두어 행정을 관장하였다. 읍면에는 서무, 사회, 호적, 회계, 산업 등 읍면 자치행정을 운영하였다. 민정관은 민간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권한을 행사했겠지만 사단장이나 민사처장의 추천을 받아 군정장관으로부터 임명받은 민정관의 권한 행사는 어디까지나 군의 영향력 아래서 가능했다. 민사군정 프로그램은 미군에 의해 기획, 지휘된 것이었다.



〈표 1〉 현지 군정 조직



주택 및 공공시설은 미8군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과 자재를 받아 한국 군단의 공병대가 건설했다. 농기구, 농우, 의류 등 구호물자는 주로 유엔군사령관 산하 한국 민사원조처(KCAC)로부터 나왔다. 이와 같이 38°선 이북 지역에는 미군 통제 아래서 한국군의 명령으로 군정이 실시되었으며 이곳에 한국 정부의 영향력은 없었다. 피난민들은 가는 곳마다 등록을 하게 하여 신분증을 발급하여 그 신분증으로 배급도 타고 통행할 때는 검문도 받았다. 행정조치로서 군정을 실시하는데 군정 목표를 1) 주민생활 안정과 향상, 2) 교육의 재건, 3) 산업의 진흥으로 결정하고 간부 군인들은 주민과 더불어 호흡을 같이하고자 양양군에 이주하여 자녀교육도 이곳 학교에 입학시켜 수복지구 자녀들과 함께 공부하여 일반 주민들에게 군의 신뢰감과 안심감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3. 軍政의 施政方針

1)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국군이 진군하자 너도나도 앞을 다투어 고향을 찾아왔고 북한이 고향인 월남인도 고향 가까이 가기위해 38° 선 이북 양양으로 들어왔다. 집은 불에 타서 폐허로 변하였으나 그래도 피난살이보다 나았다. 우선 오두막집이라도 지어야 했고 농사도 지어야 했고 나무를 뜯어 식량으로 연명하여야 했다. 이에 1군단사령부에서는 ‘일면 작전, 일면 건설’이란 구호아래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공병대에서는 국유지에 집터를 측량, 집터공사와 전쟁전에 벌채한 목재를 제재소를 설치하여 목재를 생산케 하였고, 산에서 목재를 벌채하여 이웃끼리 합심하여 집을 짓고 함께 살았다.(이상준 증언) 피난에서 돌아온 주민들은 식량이 없었다. 한 달에 두 번 피난민에게는 면사무소에 구장이 가서 배급을 받아다가 구호 대상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구호대상자는 강현면이 30.3%에서 죽왕면이 64.2%였다. 구호품은 주로 안남미와 밀가루, 분유 등을 나누어 주었는데 2가마니 정도의 쌀을 70가구 정도에 나누어야 하니 량이 늘 모자랐다.¹¹⁾ 모자라는 식량은 산과 들에 나는 산나물, 쑥, 질경이, 해안가는 해초를 채취하여 식량으로 사용하였다. 정말로 초근목피로 식량을 대신하는 곤궁한 생활이었다. 의복, 식료품, 농기구 비료 등 없는 것이 너무도 많았다. 이때 군정사령부에서는 유엔 한국민사원조처(UN KCAC)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적극적인 구호시책을 실시한 결과 전적으로 구호식량과 물자를 도입하여 요구호 대상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었다. 구호 물품은 군, 면 민정관이 수령하여 각 마을 반별로 나누어 주었다. 주민의 거의 반수가 구호대상자로서 당국의 구호를 받았다. 또 시장을 열어 부족한 생필품을 구할 수 있게 하였다. 양양에는 5일장이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와 장날이면 각지에서 장꾼들이 몰려와 시장이 재개되었다. 하지만 속초에는 시장이 1953년에 현재 중



〈구호식량 나누어주는 장면〉

양동에 2개동의 골조 건물로 세워져 인근의 상권을 형성했다. 화폐는 남한이 1953년 2월 25일 화폐 교환한 화폐를 사용하였다. 이 시장에는 농촌과 어촌에서 모여든 농·수산물만은 말할 것도 없고 몰래 빼돌린 군수물자들이 상품으로 나왔고, 심지어 빈민구호로 나온 식량을 비롯한 각종 생필품, 의약품, 자재 등도 빼돌려 시장에 상품으로 나오는 일도 있었다.(이동호의 증언) 이상과 같이 북양양군, 특히 속초가 군사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급격하게 수 많은 부대와 군인, 군속, 민간인들이 몰려오면서 그 지역에 대한 질서와 통제를 수립하는 일이 절실했다. 1년간 재민구호실적과 구호물자 도입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1) 강원문화연구소. 양양군청. 수복연감. 1954.6.

(표 2) 요구호 대상자 (1952.6.1~1953.5말)

구분 면별	총 인 구		요구호대상자수		비고
	세 대	인 구	세 대	인 구	
양 양	1,506	7,474	1,047	3,141	42.0%
서 면	522	3,231	484	1,579	48.9%
손 양	1,272	6,695	732	2,357	35.2%
현 북	473	2,276	268	758	33.3%
강 현	1,321	6,939	879	2,103	30.3%
속 초	3,661	16,213	2,204	7,364	45.4%
토 성	2,869	13,361	2,520	7,915	59.2%
죽 왕	2,037	8,937	1,753	5,739	64.2%
계	13,721	65,126	9,887	30,956	47.5%

가) 구호물자 입하현황

모포	의류	식료	피화	포단	일용품	식염	천막
9,103	25,771점	2,312점	2,245 족	144점	4,552	1,224따	50개

시멘트	비료	제초기	보습	쟁기	낫	합계
200	50포	30개	160개	90개	902개	46,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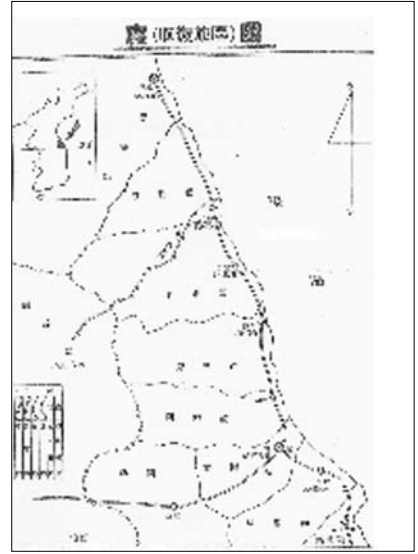
구분	외 미(kg)	소맥(kg)	대맥(kg)	고량(kg)	정수수(kg)	계(kg)
수량	402,510	275,092	332,903	512,017	54,060	1,576,583

2) 귀농선의 설정과 농어촌 생활

1951년 7월 4일 미 8군 사령부와 합의하여 귀농선(farmer line)을 설정하였다.¹²⁾ 귀농선은 양양군, 속초읍, 토성면 일부와 죽왕면 문암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허락하였다. 피난길에서 노숙하다 싶이 하며 밥을 얻어먹으며 지내던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제 땅을 도로 찾으니 농부들의 얼굴에 희망과 행복감이 넘쳐흘렀다.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적과 대치하고 대포소리 들려오고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군의 배려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다. 또 군은 대민지원으로 농사일도 도와주어 군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대단하였다. 그러나 피난에서 돌아온 농부들에겐 집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농기구도 남아있지 않았다. 또 시기도 늦었다. 그래도 땅속에 묻고 피난 갔었는데 종자는 땅속에 숨겨둔 것을 꺼냈으나 법씨를 담은 단지가 없어 마대자루나 가마니에 법씨를 넣고 눈물에 담구어 싹을 틔워 눈에 뿌려 못자리를 만들어 모를 키워 모내기를 하였다.(이중하 증언) 바닷가 어촌에는 피난길에서 돌아와 허물어진

12) 양양군, 수복지구건설위원회. 약진도상의 수복지구. 1953.7. p20

집을 수리하고 부서진 뱃조각을 다시 모아 수리도 하고 새로 건조도 하여 어로 작업을 추진하였다. 원양출어는 하지 못하고 근해 출어는 한정된 선박과 어로자재로서 충용하여 예상외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피난민들은 농토가 없기 때문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어나 농업인구가 많던 양양군의 어업인구가 훨씬 더 많아졌다. 거의가 소형어선이었으므로 전복 사고도 빈발하였다. 여인들이 근해에서 막대한 미역을 채취 건조하여 남한 일대에 팔기도 하였다. 양양의 여러 어항과 속초, 아야진, 문암 등 대소 어항마다 풍어를 이루었고 특히 명태가 많이 잡혔다.



〈귀농선 지도〉

3) 교량 및 도로 건설

이에 군단에서는 ‘일면 작전 일면 건설’의 표어아래 도로 교량의 복구 공사를 공병대원들의 손으로 속속 완공되었다. 양양 읍내를 관통하는 양양교가 목재와 흙으로 좁게 된 교량이 전쟁으로 파괴된 것을 1101 공병단 102대대가 맡아서 1952년 6월 25일 기공하여 9월 15일 준공식을 하였다. 이 교량은 전장 330m에 달하는 넓고 튼튼한 다리로 우리나라에서 군용교량으로서 최초의 가설이고 최장의 교량이었다.(당시 소대장 양재억 증언) 또 1102 공병단은 인제에서 속초에 이르는 미시령 도로 32km를 새로 개설하였는데 이 도로는 일제강점기 3년 9개월 동안 측량과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워낙 난공사이고 산이 험하여 개통하지 못한 도로를 우리 공병대와 양양주민 4~500명이 동원되어 미국제 크레인, 콤퓨레샤, 불도저, 발전기, 용접기 등 새로운 장비와 기술로 군과 주민들이 합동하여 불과 6개월 만에 개통한 것이다. 이 도로 개통으로 서울까지 종전보다 40km를 단축하였다.(이중우 증언) 그래서 이 도로를 충통로(忠通路)라 명명하였다. 또 신흥사 진입도로, 7번국도 확장공사 등 많은 도로를 확장하였다.



〈남대천 목교〉



〈미시령충통로 총통바위〉

4) 교통과 통신, 신문

6·25한국전쟁 전까지는 동해북부선 기차가 양양까지 운행되었으나 전쟁으로 파괴되었다. 1952년 4월 20일 군단장의 배려로 속초건설회에서 군용차를 이용하여 38°선에서 귀농선 문암까지 민간인 승용 자동차가 운행하였다. 하지만 돈도 없고 차도 자주 다니지 않아 이용자는 많지 않았다. 사람들은 거의 걸어서 다녔고 짐은 지게로 운반하거나 소를 이용한 우차로 짐을 운반하였다. 통신은 군용선을 이용한 행정기관에만 설치 이용되었고 언론기관으로는 제1군단에서 중군신문으로 제작되어 전황을 알리고 중앙소식을 지역주민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1952년 4월 15일 동해일보를 창립하여 사장에 김진익, 총무국장에 박천복을 선임하고 4월 17일 동해일보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1953년 8월 5일 주식회사로 재창립하고 사장에 박태송, 부사장겸 편집국장에 정두석을 선임 확대개편하고 지령 546호를 발간 수복지구 양양의 소식을 매일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5) 의료 구호 시설

수복지구에 가장 중대한 문제는 의료문제였다. 전쟁전에도 양양에 인민병원이 있었으나 시설도 의사도 약도 없는 이름뿐인 병원이었다. 병든 자가 의약이 없어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현실이었다. 군정에서는 각 읍면에 의사, 의생, 산파 2명을 배치함으로써 무의면을 없애는데 성공하였고 군단 의무부와 민사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구호병원 3개소를 설치하고 인술을 베풀었다. 또 장티브스와 여러 전염병이 돌았을 때 군 의무부대에서 민간인 구호소를 설치하고 병든 사람들을 무료로 시술하여 주었고 특히 전염병에 대하여 구호소 군 의무병이 마을마다 찾아가서 주민들에게 예방주사를 놓아 주어 국군에 대한 칭송이 대단했다. 그때의 약으로는 ‘다이아프과 페니실링’으로 만병통치약이었다.

〈표 3〉 보건 의료 기관

구호병원	양양, 속초, 교암	3개소
민간병원	군단 의무부의 면허증교부	각 읍면에 배치함

〈양양군 민사현황 p29〉

4. 軍政시대의 교육 재건

양양지방에서는 1950년 6·25한국전쟁 중에도 계속 인민학교에서 수업을 하였으나 전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교사들이 군에 징집되고 폭격으로 1950년 8월경부터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수 없게 되었다. 다시 개교한 것은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1950년 10월 10일 대한민국의 국민학교로 군내 일제히 개교하였지만 정식 교사도, 교재도 없어 배운 게 별로 없었다고 했다.(김주혁) 교장은 읍면 유지가 맡았다. 1951년 1월 국군이 후퇴하면서 많은 가옥과 공공건물을 비롯하여 학교들도 화재를 입어 또 휴교에 들어갔다.

1951년 국군이 양양을 수복하면서 6월에 다시 학교 문을 열게 되었다. 학교 교사(校舍)가 없는 상태에서 개교한 학교에서는 마을 동사나 교회, 마을의 큰 건물, 나무 밑에서 자리를 깔고 공부를 하거나 미군 군용텐트에서 공부를 했다. 손양에서는 교실이 없어 화재를 면한 남의 집 마구간에서도 공부를 하였고 교사는 월급도 없이 학생을 가르치다가 군정이 실시되면서 월 쌀 4말, 보리쌀 4말을 받고 교사로 근무했다.(이종우 증언) 수복지구 교육은 1951년 군청에 학무계를 두고 군수가 관장하였다. 교사가 부족하여 북한 교사도 공산주의에 빠지지 않은 교사와 고급 중학교 2, 3학년 학생도 교사로 임용했다. 또 교사를 50명을 모집하여 단기간(2개월) 강습을 시켜 군단장 명의로 자격증을 주었고 48명이 수료하였다.(당시장학사 오제정 증언) 하지만 남한에서 가져온 교과서가 많지 않아 교사가 칠판에 쓰면 학생들은 배껴서 사용하였다. 공책은 백로지를 칼로 잘라 책을 매어서 줄을 쳐서 사용했다. 가방도 없어 여학생은 책보, 남학생은 포탄 가방을 메고 다녔다.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에 입각한 애국애족 교육을 강조하였고 일제강점기 잔재를 없애고 반공교육을 중시하였다. 피난살이 고생에 시달리면서도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생각으로 자식을 학교에 보냈다. 또 각계 각 층으로부터 학교 재건에 대한 물심양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는 했지만 교수교재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와 칠판뿐이었다. 수복지구 교육을 위하여 1군단에서는 미8군 지원을 받아 북양양군에 학교를 신축하고 빈 탄약상자를 각 학교에 배분하여 책걸상을 만들어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다. 수복 후 새로 설립한 학교는 송포초등학교(1951년), 한남초등학교(1952년), 상운초등학교(1953년), 남천초등학교(1953년) 4개 학교와 분교가 개교하였다. 1953년 5월 1일 현재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교 계 19개 학교 남녀 학생수 12,720명, 교직원 233명이었다.¹³⁾ 군단장이형근 장군은 미 제8군단에 협조를 얻어 포탄상자 약 4,000개를 군 민정관에게 기증하여 그것으로 책걸상을 만들고 군 지원으로 교사(校舍)가 낙성되고 고등학생들은 목총을 만들어 군사훈련도 하였다.

1) 양양군 학교 현황

〈표 4〉 학교별 학생수, 교원수

번호	교종별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	학생수			원칙별	
					남	여	계	원주민	철수민
1	국민교	14	198	218	6,437	5,089	11,526	8,842	2,684
2	속초중	1	18	37	258	72	340	721	234
3	양양중	1			251	78	332		
4	동광중	1			237	46	283		
5	속초고	1	5	19	141	17	158	203	64
6	양양고	1			100	9	109		
	계	19	221	274	7,450	5,450	12,720		

13) 수복지구 건설위원회. 약진도상의 수복지구. 1953.7

2) 학생관계 3) 교실확보현황 4) 시설 확보상황

5. 치안과 사찰(査察)

1950년 10월 4일 지방 자위대를 조직한 것이 치안대의 전신이다. 당시의 대장은 김영재(金瑛齋)씨를 추대하고 대원은 220명이었다. 그후 12월 22일에는 임시경비대로 개편하고 일제강점기 경찰관 출신인 김민하가 대장에 취임하였다. 이들의 임무는 치안을 유지하여 패잔공비의 색출, 섬멸하는 게 임무였으나 사법권이 부여되지 않아 범죄 사실이 발생하면 지구헌병대로 넘겨 군단군법회의에서 판결을 내렸다. 대원들은 대부분 공산주의를 반대하다 박해를 받고 월남하여 반공활동을 하던 중 국군과 함께 들어온 철저한 반공주의 자들이었다.

1) 경비조직 상황

수복지구 북양양은 지형상 다수의 산간벽지와 고지를 점하고 있어 산악에서는 패잔병, 유격대 또는 불순분자들이 은약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아서 각면 소재지에 지대를 배치하고 검문검색을 주야교대로 실시하여 불순분자 검색 조사와 산악지대에 잠복하고 있는 공비토벌 및 적의 정보망을 분쇄하며 군단의 제반시책에 보조를 맞추어 협조하는 치안업무로 아래와 같다.



<치안대 정문>

- 가) 북단 죽양면 지대에서는 저지선분대를 설치하고 영농 감시 및 6개 부락에 대한 치안 유지하고
- 나) 토성면 지대 관내에서는 교암분대, 아야진 분대를 설치하고 24개 부락에 대한 치안 확보하고
- 다) 강현, 손양, 서면, 속초 재대에서는 요소에 분대를 설치하여 치안유지에 노력하였다.
- 라) 현북면 관내에서는 38분대를 배치하고 치안유지하고
- 마) 각 읍면 지대에 배치한 대원 외 특별조사대에 24명을 서면 영덕리에 주둔시켰으며 설악대 37명을 배치하여 각기 공비토벌 및 적보수집(敵報蒐集)에 주야로 노력을 하였다.

<표 5> 경무요원 배치

대별	대 장	계장	주임	분대장	대원	계
본대	김민하	4	8		32	45
현북	오주현		2	1	7	11
손양	이달하		3	1	8	13
서면	이종화		3	1	14	19
속초	정극모		4	1	30	36
강현	장복환		4	1	11	17

토성	한범구		4	2	17	24
죽왕			4	1	18	24
搜查隊					24	24
설악대					37	37
계		4	32	8	198	250

〈양양군 발행 민사현황 P26〉

2) 사찰(査察) 현황

수복지구는 독재와 암흑을 강령으로 하는 공산주의자를 근멸시키고 민주주의 자유국가 건설을 위한 사상전에서 사찰업무의 중요함은 물론 수복 후 행정기관을 위시한 군민의 사상 선도와 불순분자 적발 등 실로 다사하고 복잡한 상태이며, 관내 주민들은 대부분이 과거 수년간 괴뢰 치하에서 적색사상에 의식 또는 무의식으로 세뇌되었으며 많은 북괴자의 잔여가족이 적색분자와 협력하려는 책동을 막으려는 임무가 주어졌다. 그리하여 관내 사찰진을 동원하여 군내 주민들이 국토방위의 방첩 책임자라는 자각을 갖게 하며 불순분자 책동을 저지하는 동시 과거 5년간 공산주의의 허위선전에 깊이 생각할 겨를 없이 좌익정당에 가입 또는 협조하여 일시적 이적행위를 자행하였던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이념과 온정에 감동되도록 사상계몽에 치중하여 적성행위자로 하여금 전과를 스스로 청산케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도록 온후하게 포섭하여 동일민족으로 일치단결하여 조국의 통일독립 성업에 이바지하도록 제1군단장의 시정방침에 기반하여 민사처, 헌병대, 특무대 지도하에 제반업무를 수행하였다. 1952년도 취급한 범죄상황을 보면 범죄는 절도가 제일 많고(90건), 포고령 위반(68건), 방화범(34건), 횡령(13건) 등 전체 255건중 230건을 검거한 실적을 올렸다. 절도가 많은 것은 생활 곤란이 원인이고 방화는 불순분자들이 사회불안을 조성하기 위해 벌인 사건으로 보인다. 군단장 포고령 위반자는 군 치안대에서 조사 적발하여 제58헌병대 및 38검문소에 의뢰 추방하였으며, 추방된 자는 81명이나 되었다.(1953.6.30)

6. 종교 시설 건설 및 고아원 설립

1) 종교의 자유와 종교시설

북한 치하에서는 ‘종교는 아편’ 이라고 종교인을 잡아서 학살하는 등 억압하였다. 공산치하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寺刹도 승려는 없고 관리인에게 쌀과 보리쌀로 급료를 주고 건물 관리만 하도록 하였고 승려는 모두 추방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신앙은 절대로 자유이다. 전쟁으로 전소된 낙산사를 복원하고자 1952년 5월 3일 주지스님 회의를 열고 제1군단장의 지원을 받아 동년 11월 22일 낙산사를 준공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내외, 벤프리트 대장 부처 등 1만여명이 참석했고 승려들이 돌아와 예불을 하였다. 예수교도와 천주교도 포교의 자유를 보장하여 교회가 건립되고 군단 내에 진중교회를 설립하고 장병들은 주일 예배를 보고 있었다. 때로는 후방에서 교우들이 방문하여 군민합동예배를 보는 때도 있었다.

또 교회를 통한 구호물품이 전달되어 아이들은 구호품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가는 경우도 많았다.

가) 종교시설 현황

〈표 6〉 종교시설 현황

교회별	선교사, 주지	목사, 신부	사찰, 교회수	신도수
사찰	3		3	186
감리교	1	4	7	639
천주교		3	3	432
장로교			2	169
계	4	7	15	1,426

〈강원문화연구소 발행 P14~15〉

2) 고아원의 설립 운영

전쟁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아이들은 피난 도중에 부모를 잃거나 헤어지고 집은 불에 타서 갈 곳을 잃은 아이들이 수백명이 거리를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들을 모아 양양과 낙산에 고아원을 설립하였다. 1952년 5월 1일 천주교의 지원을 받아 원장 김영배가 직원 5명과 고아들을 모집 양양 고아원을 열었고, 낙산사 종무원에서는 1953년 11월 19일 정두석(건봉사에 입산하여 1942년부터 1945년까지 낙산사 주지역임)이 전쟁 고아들을 모아 낙산사 경내에 낙산 보육원을 설립하고 미8군과 육군 제1군단 민사처의 지원으로 90여명의 고아들을 양육하였다. 고아원에서는 그들의 양육은 물론 조산국민학교와 양양중학교 까지 다닐 수 있게 배려해 주었다.(당시 처사 이상준 증언) 양양 감리교회에서도 서원필 목사를 중심으로 유치원을 세워 전쟁 고아들을 양육 교육하였다.

〈표 7〉 고아원별 인원수

원명	직 원 수			고 아 수		
	원장	기타	계	남	여	계
양양고아원	1,김영배	7	8	27	25	52
낙산고아원	1,정두석	4	5			98

〈강원문화연구소, 수복연감 P28〉

7. 국군창설의 요람 양양

전쟁이 치열해 지면서 더 많은 군인이 필요하게 되자 국군의 전투력 증강을 위해 양양군에서 1952년 11월 8일 보병 12사단을 필두로 7개의 사단이 창설되었다. 강현면 주청리 7번 국도옆 연병장에서 12사단 창설기념식이 이승만 대통령과 미제8군사령관 테일러 장군, 신 국방장관 등 정부요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열을 받으셨다. 이어 15사단(승리부대)이, 1953년 1월 15일 21사단이 조산리에서, 1953년 2월 9일에 20사단이 주청리에서, 1953년 4월 21일 22사단이 장산리에서, 1953년 4월 21일 주청리에서 25사단이, 1953년 9월 18일 송암리에서 27사단이 창설되었고 제주도에서 창설된 29사단도 양양에서 훈련을 마치고 전선으로 투입되어 혁혁한 공을 세웠다. 1975년 8월 1일에 23사단, 102여단, 8군단도 양양에서 창설되었다. 12사단 창설 행사가 끝난 다음 이대통령께서는 통일없는 휴전결사반대 양양군민 총궐기대회에 임석하시어 3만군중의 환호를 받고 간곡한 훈시를 하고 귀경하셨다.(조산리 김사철 증언) 7번국도 옆 주청리 그 자리에는 창설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으나 2013년 양양의 사단 기념비들은 102여단 정문 앞에 한데 모아 세워져 있다.



‘보병 제 12사단 창설지’
‘1952년 11월 8일 창설되어
1952년 12월 5일까지
이곳에 주둔하다.
초대 사단장 준장 윤춘근’

IV. 軍政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만 3년간의 군정은 북양양군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 첫째, 지역 행정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1951년 8월 북양양군이 군정이 실시되면서 모든 행정이 군의 체계를 따랐고 민주적인 행정도 도입되었다. 즉 군(郡)과 읍면의 민정관은 주민에 의해 추천되고 군단장이 임명하였다. 군(軍)은 체계상으로만 행사하고 실질적인 행정은 민정관이 실행하였다. 둘째, 양양군은 농촌 지역이었으나 군정을 실시하면서 속초가 양양보다 더 발전하였고 인구의 41.4%로 어업 인구가 더 많은 어업도시로 발전되었다. 이처럼 속초가 양양군의 중심지인 양양을 제치

고 더 발전한 것은 분단이라는 상황으로 북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속초에 눌러 앉아 어업에 종사한 결과이다. 셋째, 또 다른 변화는 군정을 경유하면서 38°선 이북의 여러 지역은 월남인의 지역 성격을 갖게 되었다. 속초 전체로 보면 월남인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청호동의 경우는 70%정도가 월남인 1세와 후세대로 이루어져 있다.(김귀옥, 1999) 넷째로는 의료기관의 설립과 방역활동으로 의료 시설이 현대화되었고 질병으로부터 많은 혜택 받게 되었으며 다섯째로는 공병단의 활약으로 강이나 하천에 다리가 없던 곳을 튼튼한 다리를 놓았고 좁은 단선 도로를 확장하여 자동차가 충분히 비켜 지나갈 수 있도록 확장되어 물류의 이동이 용이해져 지역발전을 몇 년 앞당기게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양양지역은 전쟁이 격화되면서 7개의 보병사단이 창설되어 국군창설의 요람이 되었고 휴전 후에도 군단과 여단이 더 창설되어 휴전선을 지키는 군사전략적 성격을 가진 지역으로 변화되어 여전히 주요부대가 그곳에 남아 있고 출입이 허용된 지역이나 바다를 제외하고는 군사적으로 민간인의 통행이 제약되었다. 정전 협정결과 형성된 DMZ에는 민간인들의 통행이 금지되고 군수공장 등의 설치가 금지되어 출입이 60여년 통제된 DMZ지역은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되었다.

군정의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다. 38°선 이북 점령지역은 그저 한반도 어느 지역의 의미가 아니라, 미국 등의 자본주의 국가가 최초로 점령한 과거 사회주의 지역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군정의 의의는 5년간 사회주의 북한의 통치를 받았던 주민들을 재교육 및 전향시켜 생활양식을 바꾸도록 하는데 있었다. 나아가 군정은 북양양군의 배경이 되는 군사·전략적 거점 역할을 원활하게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

하지만 1950년 10월 북한지역 점령 당시 대한민국의 군정정책의 부재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치안대가 치안을 유지하고 공산패잔병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권한의 남용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일반 빈민들에게 배급하기로 되어있던 각종의 물자들이 불법적으로 횡령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또한 군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던 적성을 제거하기 위한 주민순화 교육도 주민들은 생명보존을 위해 반공주의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軍政하에서 주민들에게 강압적으로 대한민국의 반공주의적 가치관을 주입하고자 했다.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양민 폭행사건과 같은 문제가 북양양군 지역에서도 수차에 걸쳐 일어났다. 원주민에게 자행된 양민 폭행사건에도 유가족이 무고함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은 결국 분단과 전쟁이 낳은 비극이다. 동시에 월북자의 유가족들은 공포감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권을 박탈당하고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왔다. 대부분의 유가족들은 ‘빨갱이 집안’이라는 낙인과 연좌제로 인해 부당한 처우나 인격적 모욕을 감내하며 인고의 세월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 군정과 반공주의를 앞세운 대한민국정부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살았다. 한반도의 참된 평화를 원한다면 남북 정권은 모두 무력 상황을 전제하는 수복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흡수통합정책도 폐기하지



〈장산리 사단창설 기념비들〉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나아가 38°선 이북점령지역에 대한 군정과 행정권 이양문제는 민족 자주권 박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1950년 7월 이승만 정부는 군작전권을 미국측에게 내주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남측의 모든 군사상의 권한을 미국측이 장악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기도 우리 정부는 점령지역에 대한 행정권을 이양 받지 못해 그 이양을 미국측에 하소연하게 되었고 미국은 선심 쓰듯 내주는 모습을 보였다.

V. 맺는 말

제2차세계대전후 세계정치의 흐름 속에서 미국은 국내, 국제적 상황에서 미군을 한반도에서 1949년 철수하였다. 이 틈을 이용하여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조국해방전쟁이란 허울을 앞세워 1950년 6월 25일 새벽 남침을 하였다. 3년 1개월 동안 치열한 전쟁 동안 미국을 비롯한 유엔 16개국의 군인과 5개국의 물자지원으로 참전하여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내고 1953년 7월 27일 포성이 그쳤다.

북한 공산치하에 속해있던 양양지역은 5년간은 계속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져 왔고 6·25한국전쟁으로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으나 유엔군의 통치를 받으므로 남한의 국회의원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지역으로 남았다. 그러나 유엔군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남한의 정치를 받아들이기 위해 자치조직을 구성하여 적응해 갔다. 일면 전쟁을 치르면서 일면 복구 및 건설을 하기 위한 행정 조직이 구성 군, 면(읍), 리로 구성되었다. 유엔군 사령관의 통치를 받았지만 고문으로만 존재하였고 한국군 1군단 민사처에서 통치를 하고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민정관이 모든 행정을 관장하였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생산기반이 파괴되고 주택 및 학교가 불타거나 파괴되고 국민생활은 궁핍해져갔다. 이에 민정관은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고 북한 간첩을 색출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지원으로 식량을 지원받고 질병퇴치에 노력하였으며 또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를 받아들여 학교를 개교하고 미군의 지원으로 학교시설을 확충해 나갔다. 초기에는 전쟁 중이므로 반공을 중시하고 무력복진 통일을 주장하고 북한에 우호적인 말만 해도 ‘빨갱이’라고 부르며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부쳤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과 적대관계로 보기보다는 비교적 우호적으로 변했고 남북적십자 회담으로 전쟁으로 흩어졌던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벌어지고, 북한의 금강산을 관광을 할 수 있고 북쪽의 개성공단에서는 120여개의 공장에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 5만 여명의 노동자들의 솜씨로 세계에 수출할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물품은 북한에 보내는 것은 허락하고 있다. 이제 북한도 적대 관계가 아닌 통일로 함께 살아가야 할 같은 민족으로 변화된 생각을 하여야 한다.

3년여간의 군정통치는 38°선 이북 점령지역에서 공산주의의 통치를 받은 수복지구의 경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분단을 극복해야 하며 진정한 자주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성찰하도록 한다.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은 북한을 이해

하고 동질성을 회복하여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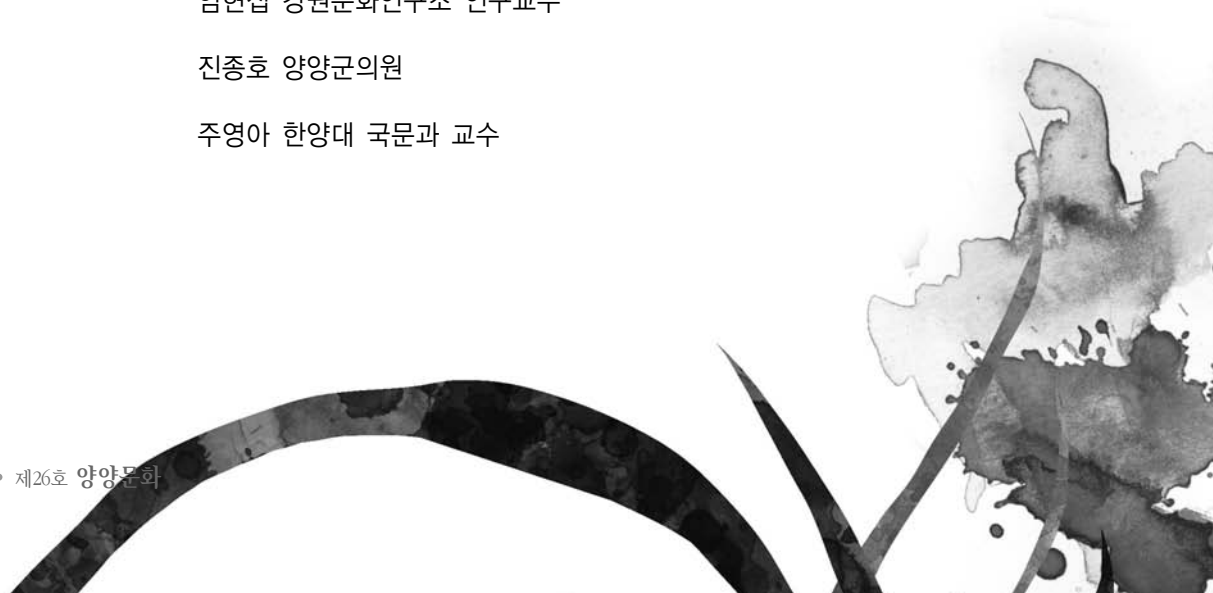
- 가미야 후지(이기택 역). 조선전쟁. 프로젝트 한반도. 서울. 2004.
- 김귀옥. 『잃어버린 또하나의 역사』(한국전쟁시기 강원도 양양군 미군정 통치와 반성)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1999.
-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1999. 11.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찬수. 『내가 겪은 6.25.』 명문당. 서울. 2007.
- 유광정. 『백선업을 말한다』. 책발. 서울. 2011.
- 이한길. 『양양의 6·25 비화』. 양양문화원. 2009.
- 장정용. 『현산문화 23』. (양양문화원). 2011.
- 정용욱. 『한국전쟁』(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2010.
- 한모니까. 『역비논단』(유엔군사령부의 '수복지구' 점령정책과행정권이양). 2006. pp360~389.
- 한모니까. 『한국전쟁전후 '수복지구' 의 체제변동 과정』.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강원문화연구소. 수복연감. 양양군청. 1954. 6. 양양군청. 군세일반. 1952. 9.
- 양양군. 민사현황. 1953. 5
- 양양군지편찬위원회. 양양군지. pp605~610. 2010.
- 양양군. 수복지구건설위원회. 약진도상의 수복지구. 1953.
- 양양군. (강원향토사문화연구회). 양양역사 자료집. 도서출판 산책. 2003.
- 양양군. 양주지. pp147~152. 1991. 9.
- 양양군. 향토지. pp114. 1976. 9.
-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월간신문). 2014. 7. 1.

증언 하신분

- 김기정. 1923년생. 양양읍 내곡리
- 김남규. 1936년생. 양양읍 남문 2리
- 고경재. 1930년생. 양양읍 구교리
- 김동소. 1927년생. 양양읍 남문 3리
- 김사철. 1936년생. 양양읍 조산리
- 김주혁. 1936년생. 노인회 양양군 지회장. 강현면 석교리
- 박상형. 1955년생. 양양읍 사천리. 민정관 박종승 손자
- 양재익. 1930년생. 양양읍 남문리.
- 오제정. 1926년생. 양양읍 군행리
- 이상준. 1936년생. 낙산사 지킴이. 강현면 주청리.
- 이종우. 1935년생. 양양문화원 향토사 연구원. 손양면 수여리
- 이종하. 1939년생. 강현면 전진리
- 추종삼. 1942년생. 강현면 둔전리
- 한용한. 1925년생. 양양읍 구교리
- 함병목. 1925년생. 손양면 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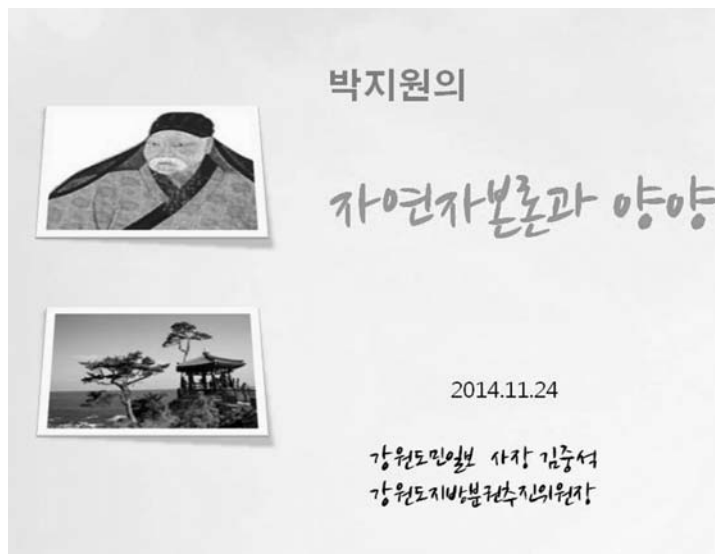
『연암 박지원 문화콘텐츠 조명』 심포지엄

- 기조발표 양양부사 박지원의 자연자본론 (김중석 강원도민일보사장)
- 주제발표 1 연암 박지원과 양양군 스토리텔링 (이학주 강원대학교 강사)
- 주제발표 2 연암 박지원과 양양의 역사문화유적지 연계방안 (양언석 강원도립대학 교수)
- 토론 김양식 양양문화원 향토사연구원
이근세 국민대 교수
엄찬호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엄현섭 강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진종호 양양군의원
주영아 한양대 국문과 교수



양양부사 박지원의 자연자본론

(김중석 강원도민일보사장)



3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제러미 리프킨)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석탄 증기기관차
봉건왕조 - 산업화

전기전자통신
화석연료(탄소)
중앙집권 산업시대

녹색 재생에너지
상생 공존 협업
에너지 인터넷
지방분산시대

신영복의 변방을 찾아서



“변방은 창조의 공간입니다.
역사는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하고 중심은 변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강원도의힘 - 오늘

유명연예인 : "전국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저 멀리 강원도에서부터 전국을 다 다녔어요"
 축구해설가 : "강원도 사람 어리버리", 80년대 초 국세청장 "비리공무원 강원도로 조치"
 자살률 1등도, 자살 선호지역(09년 자살시리즈)



$$E=mc^2$$

Mass(질량) Celelity(광속)



Maverick(독자적 입장을 취하는 지식인)
 Contrary(역행) = 독립변수 감자바위깡

새뮤얼 스마일스 자조론(self-love)



Samuel Smiles

“ 타인의 도움은 사람을 나약하게 하지만 스스로 돕는 것은 언제나 강력한 힘이 된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남의 도움을 받으면 자립심이 없어지고 지도와 감독에 길들여져 무력한 존재가 되기 십상이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도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결국 자기결정성과 자기책임성을 확보하는 것

양양부사 박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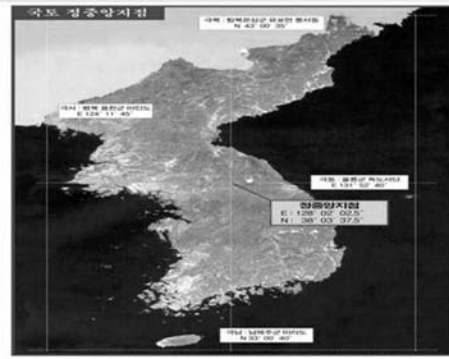
자기애 = 애향심과 내발적개발의지

내 고향을 내 몸같이 사랑하자.

지역의 보물을 찾자.

지방 뉘를 되찾자.

지역의 보물찾기와 브랜딩



양구 국토정중앙 발견 및 조형물 건립
배꼽축제

지역의 보물찾기와 브랜딩



양구 배꼽축제



양구 배꼽 태항아리(세종대왕 태항아리)

지역의 보물찾기와 브랜딩



이해인시인 안병욱 김형석 철학의 집 개관(2012.12)

지역의 보물찾기와 브랜딩



지역의 보물찾기와 브랜딩



강릉 스마일캠페인

지역의 보물찾기와 브랜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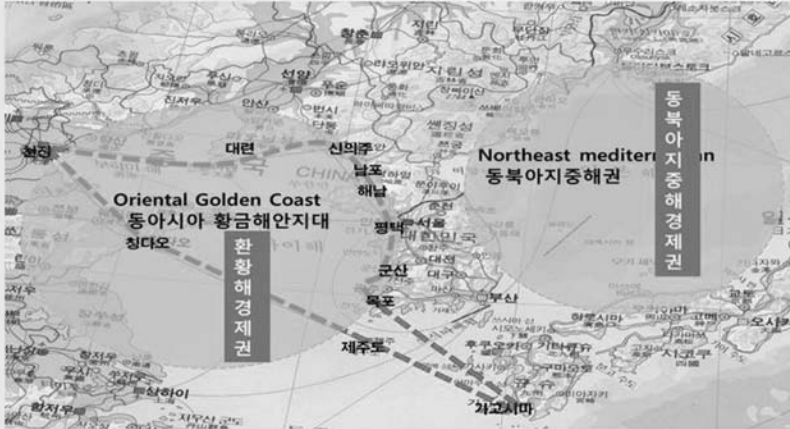


영월 김삿갓길

일본 시코쿠길



지역의 보물찾기와 브랜딩



동북아지중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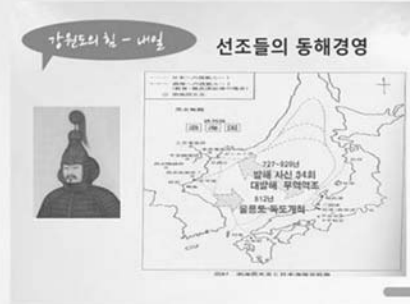
지역의 보물찾기와 브랜딩



동북아지중해론



지역의 보물찾기와 브랜딩



이사부 선양사업

지역의 보물찾기와 브랜딩



화천 비목문화제

지역의 보물찾기와 브랜딩



고성 평화통일 공원 조성

지역의 보물찾기와 브랜딩



입춘대승- 춘천호국문화제

양양부사 박지원

희망의 땅 아시아의 스위스
기후의 바다 동북아의 지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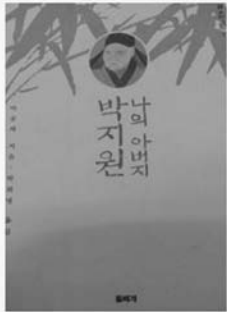


아시아의 스위스, 동북아의 지중해
헬베티아 깡다구 - 다자간 교류협력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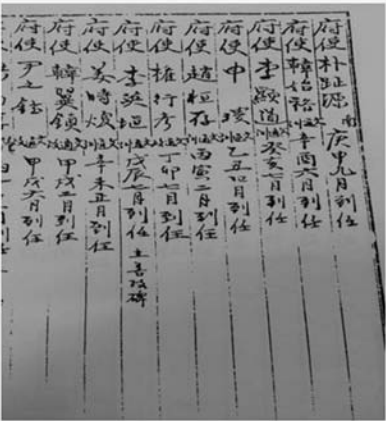
양양부사 박지원

박종채 : 과정록(과정록)

◎ 아들 박종채가 쓴 '나의 아버지 박지원' 에서 '경관녹봉문' 의 가치를 발견



양양군지



양양부사 박지원



경관녹봉론

“바다와 빼어난 산의 경치가
1만냥은 될만하고 고을의 녹
봉이 2천냥이니 넉넉히 금강
산 일만이천봉과 서로 나란
하다 할 만하오.”

“海山之勝, 可值萬, 邑俸爲二
千, 優可與金剛之萬二千相
埒”

양양부사 박지원



황장목 위민교

“황장목 널빤지를 시냇가에
모아 백성을 위한 다리를 놓
아주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유언에 따라 해송(海松)으로
만든 널(잣나무로 만든 널빤
지)을 썼다. 그걸 보고 경탄
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양양부사 박지원

메가 트렌드

西

東

산업사회

자연자본

대안중심

가치중심



양양부사 박지원

서에서 동으로



원주-강릉 고속철도 착공



- 동서고속도로(서울-양양)
- 양양공항 동북아 허브공항
- 동해항만 기능 확대
- 제2 영동고속도로 건설
- 원주-강릉 고속 전철
- 금강산 관광, TSR TKR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양양부사 박지원

변방에서 중심으로 겨울스포츠메카

ASIA의 SWISS, ASIA의 ALPS – 2018 동계올림픽



정치 경제성을 뛰어넘는 글로벌 쿼터 이벤트

양양부사 박지원

환경올림픽 세계생물다양성총회(평창)



양양부사 박지원

양양 오색케이블카 설치





이상구박사 설악뉴스타트센터

양양부사 박지원



이와쿠니 데쓰도 전 이즈모 시장

“이즈모의 호수와 산을 도쿄에 조성 하려면 25조 엔이 든다. 우리는 하늘 로부터 공짜로 전원을 선물 받았다”



양양부사 박지원

신 임원(林園)경제론



산소 힐링 명상 치유 마케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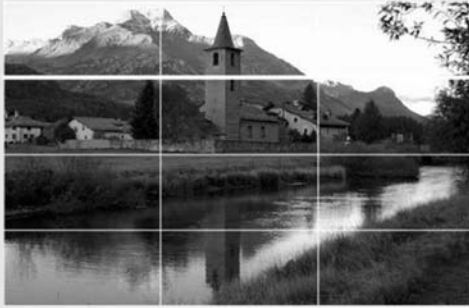
양양부사 박지원



국회의정연수원 고성건립 착공식(2014.11.21)

양양부사 박지원

신임원(林園)경제론



이시형박사 이상구 박사 명상치유

- 창문 있는 학교
 - 미 캘리포니아 포우쿠스 초교
 - 창문있는 곳 이전, 평균성적 20% 상승
 - 캐나다 앨버타 5개 초교는 성적 키 상승
- 아이디어 창출 환경
 - 텍사스 A&M대 올리치 교수 연구결과 식물 사무실에 놓아두면 제안 15% 증가
- 산책하며 창조 활동
 - 칸트 동네산책하며 자연에서 창조활동
 - 베토벤 루스 에디슨 키에르케고르 산책하며 메모
- 녹색공간이 건강한 아동정서 함양
 - 스웨덴 울살라대 테리 하르티그 교수
 - 창밖으로 녹색나무를 보는 횡수만 늘어도 아이들의 집중력 향상

양양부사 박지원

약무강원 시무국가



양양부사 박지원

강원도의 인물론 - 인성가치



퇴계 이황 어머니 춘천 박씨



율곡 이이 강릉 오죽헌 탄생



율곡 이이 어머니 신사임당

김중석의 지방 준거주의(Local standardism)

「新 林園 江原論」

- 미래 트렌드가 강원도로 흐르고 있다
 - 제3차 산업혁명은 녹색자연자원에서 창출(Jeremy Filkin)
 - Paul Hawken : 산업자본주의에서 자연자본주의(Natural Capitalism)로 이행
- 연암 박지원의 자연녹농론과 서유구의 임원경제론
 - 나는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1만 양을 받았으니 녹농의 한이 1만2천남이오. 『박지원』
 - 과거공부에 매달려 쌀 한 톨 생산할 줄 모르는 서울서생들을 위해 임원경제지를 저술(서유구)
 - 창조적 지역 지식인 주장
 -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무리 좋은 정부, 법과 제도도 자초의식(self-love)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Samuel Smi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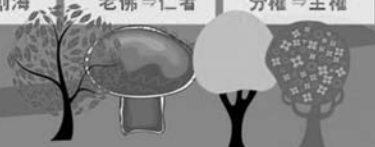


강원도가 없으면 나라가 없다



1 국토 중심부론	2 평화 보루론	3 林園 강원론	4 동북아지중해론	5 풍요 인성론	6 뜨거운 감자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지리적 중앙점 (양구군 남면 도촌리) • 단전과 배전의 기능 • 변방론 불식의 상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일 분단도 • 남북평화 교류보루 • 통일의 전진기지 • 평화담보 희생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두대간 한반도척추 • 한강 낙동강 발달지 • 국토의 생명수 공급 • 산소원(23%) 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릉도 독도영토확립 • 동해 자유무역지대 • 4개국 다자교류공간 • 북극항로 전진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사임당 춘천 박씨 • 난설헌 윤희순 도전 • 여성상, 인자요산 • 약자균형지원,중립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춘천분권선언 • 혁신도시 중심지와 • 세종시-에코산업지대 • 산골-동북아 스위스
邊方 ⇒ 中心	冷戰 ⇒ 平和	山村 ⇒ 生命	冷海 ⇒ 劃海	老佛 ⇒ 仁者	分權 ⇒ 主權

■ 전원생활, 전원교향곡, 전원주의 VS 임원생활, 임원교향곡, 임원주의





양양부사 박지원

녹색가치의 상징- 경관녹봉론

양양국제공항, 양양군계, 오색케이블카 입간판 홍보

민선자치시대 자기애 함양

연암 황장목 위민교 건립

벽제소리 금지, 토호부패 척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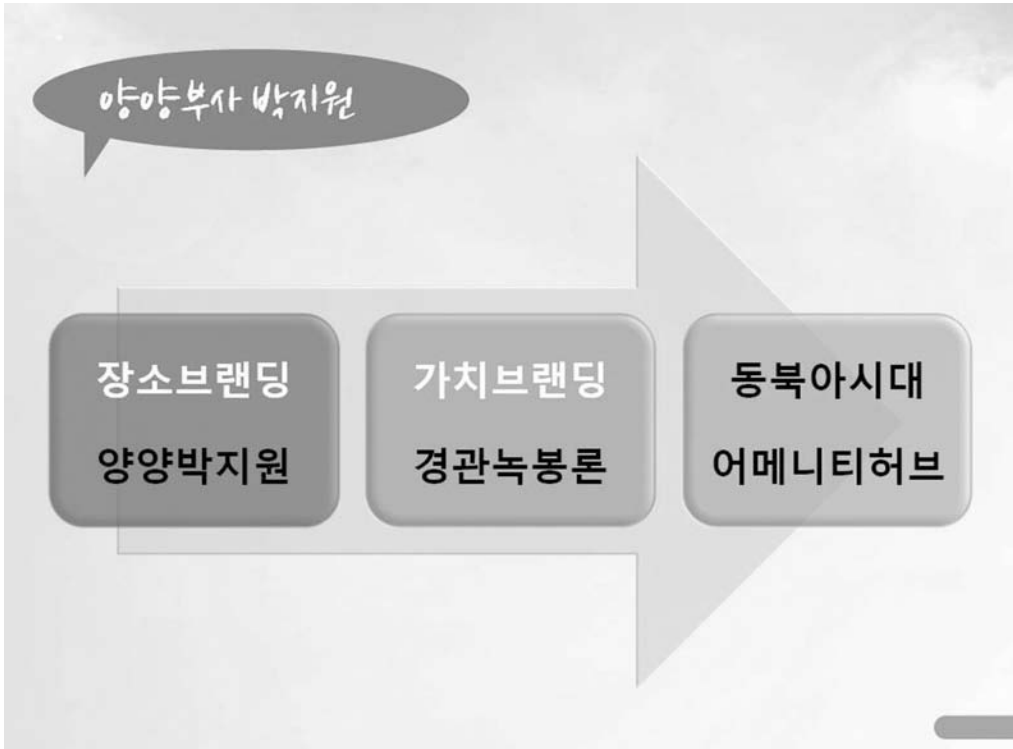
스토리텔링 개발 마케팅(정선 양반마을 참고)

양양부사 박지원



“나는
양양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에서
1만 냥의
녹봉을 받았소”

양양군



양양부사 박지원

GDP의 시대에서 GNH시대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은 모두 행복한 것일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적은 사람들에 비해 더 행복한 것일까?

양양부사 박지원

박지원 브랜딩 주안점

집중

- 선제
- 집중

지속

- 차별화
- 콘텐츠

참여

- 공유
- 민주도

Amenity yangyang

한국의 정원, 동북아의 진주

감사합니다



연암 박지원과 양양군 스토리텔링

이학주 (강원대학교 강사)

1. 연암과 양양

연암 박지원(1737~1809)과 양양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연암은 일찍이 과거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의 나이 55세에 처음으로 벼슬을 한다. 1791년 음직으로 안의현감으로 간 것이 그의 첫 벼슬길이다. 다음은 61세 되던 1797년 면천군수를 제수 받아 지내게 된다.

그 후 64세 되던 1800년 8월 18일 역시 음직으로는 처음으로 양양부사를 제수 받는다. 양양부사를 제수 받고 임지로 부임한 후 9월 29일 정조가 승하하시자, 오지 말라는 문상을 했다가 의금부에 가서 처벌을 받는다. 이후 양양에서 관아의 어려운 살림을 추스르며 많은 곤혹을 치르게 된다. 그러나 연암의 재치와 지혜로 인해서 양양부의 창고에 비축미를 가득 채우고 소신껏 일을 맡아 진행한다.¹⁾ 연암의 양양부사 시절은 이처럼 아주 힘들었다.

특히 그가 양양부사를 그만둔 계기는 아전의 농간과 승려의 횡포 때문이라고 한다.²⁾ 그 해가 65세 되던 1801년 5월 4일이었다. 당시의 상황을 그의 아들 박종채가 쓴 『과정록』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선군이 분개하여, “이런데도 비려둔다면 이는 나라에 법이 없는 것이다.” 하시고 논죄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니, 감사는 돌아보고 꺼리는 바가 있어서 그 역시 두루뭉실하니 대답을 하여 결론을 낼 마음이 전혀 없었다. 선군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어찌 官長으로서 官屬과 僧徒들에게 제재를 당하면서 관리와 백성을 다스리고 政畧을 내는 자가 있단 말인가?” 하시고, 마침내 휴가를 요청해 서울에 올라가 병을 일컫고 사임 하셨다.(『과정록』)³⁾

1) 김동석, “박지원의 양양부사 활동과 작품세계”, 『양양부사 녹봉은 일만이천양이라네』(양양문화원, 강원도민일보, 2012), pp. 53-7 참고.

2) 위의 논문, pp. 65-8 참고.

3) 위의 논문, p. 66 재인용.



인용문에 의하면 연암이 양양부사를 그만 둔 사실이 분명하게 나와 있다. 결국 아전들과 승려의 횡포를 문제 삼은 사실을 강원도 감사가 그냥 넘어가자 병을 핑계로 사임한 것이다. 관직(자리)에 연연해하지 않는 올곧은 정신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올곧은 정신은 다음의 황장목 사건을 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

〈황장목사건〉양양에는 벌목을 금하는 황장목(黃腸木) 숲이 펍 많았다. 매번 조정에서는 감독관을 파견해 황장목을 베게 했는데 양양부사에게는 오래 사사로운 이익이 많이 떨어졌다. 비록 청렴한 수령이라 할지라도 황장목을 남겨 자신의 장례 때 쓰게 했다. 아버지가 양양에 부임하시자 친지들은 황장목 이야기를 자주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듣고도 못 들은 척하셨다.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본심을 아느냐? 너희가 혹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후일 나의 장례 때 황장목을 쓸 생각을 한다면 이는 내 뜻을 크게 거스르는 일이다. 황장목으로 나의 관을 짜는 일도 옳지 않다고 여기고 있거늘, 직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일이야 말해 무엇 하겠느냐?” 황장목은 감독관의 입회 아래 벌목되어 대궐에 진상되었다. 그러나 진상하고 남은 널빤지들이 온 고을에 낭자했다. 아전들이 이 사실을 보고하자, 아버지는 아무아무 곳 시냇가에 옮겨 놓으라고 하셨다. “여기에 다리가 없어 사람들이 다니는데 괴로워한다. 이 나무로 다리를 놓으면 몇 년은 편리하게 지낼 수 있을 게다.” 그리하여 널빤지를 깔아 다리를 설치하였다. 그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유언에 따라 해송(海松)으로 만든 널을 썼다.〔『과정록』〕⁴⁾

연암의 올곧은 정신과 양양 백성들을 위해서 황장목으로 다리를 놓은 목민관으로서 백성들을 위하는 정신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인용문 하나만 보더라도 박지원이 목민관으로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연암은 자신의 사리사욕은 멀리하고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했다. 연암은 양양부사를 그만 두고도 양양에 대한 생각이 애뜻했음을 알 수 있다. 양양의 경치를 말하고 있는 경관녹봉에 대한 사례는 연암이 양양의 경치 뿐 아니라 양양백성들의 마음까지 사랑했음을 알 수 있다.

〈경관녹봉론〉고을의 형편이 넉넉하다 각박하다 따지는 사람들을 보시면 곧 씩씩하니 아무 말씀 않으셨다. 그때 양양에서 돌아오셔서 이웃 여러분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바야흐로 일찍이 거친 고을들의 봉급이 많고 적고를 서로 말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양양은 어떠했는지 묻자 선군은 우수개로 “일만 이 천이었습니다.”하셨다. 듣는 사람이 놀라서 “어찌 그리 많을 리 있습니까?”라고 하자 “사실이 그렇답니다.”하셨다. 여러 사람들은 그렇다 아니다 하는 사람이 절반씩이어서, 어서 상세한 내용을 듣고 싶어 하였다. 선군은 웃으며 “바다와 산의 빼어난 경치가 만 냥은 될 만하고 고을의 봉급이 이천 냥이니, 넉넉히 금강산 일만이천봉과 서로 나란하다 할 만 하지요.”하니 좌중이 모두 크게 웃었다.〔『과정록』〕⁵⁾

4) 박수밀, “목민관 박지원과 이용후생의 생태 정신”, 『양양부사 녹봉은 일만이천냥이라네』(양양문화원, 강원도민일보, 2012), p. 87 재 인용.

5) 김동석, 앞의 논문, p. 61 재인용.



물론 우수개소리로 말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연암이 양양에 대한 갖는 마음이 아주 특별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물론 양양의 경치가 빼어나기도 했겠지만 그 경치를 세계 최고의 경관을 가진 금강산의 경치와 같이 대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결국 연암이 양양에 대한 생각, 곧 양양 백성들에 대한 특별한 생각으로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연암의 이런 기발한 발상은 어디서 나왔으며, 또 그런 발상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스토리텔링이라는 차원에서 보기로 한다.

2. 연암의 실학적 원천 법고창신과 스토리텔링

연암의 실학적 원천은 溫故知新에서 비롯했다. 이를 연암은 法古創新이란 말로 스토리텔링을 했다. 연암 박지원이 법고창신의 정신을 가진 원천은 儒學에 있었다. 따라서 연암이 가지고 있던 스토리텔링의 원천은 조선조 당시 시대의식을 지배했던 유학사상에서 비롯한 것이다. 연암의 학문 기저가 유학적 소양에 있었고, 그가 이뤄낸 스토리텔링의 백미라 할 한문소설의 주제 또한 그 당시 유학자들이 지향해야 할 선비정신의 바탕을 나타낸 것이다.

〈허생〉에서 허생이 학습에서부터 장사로 시험을 해 본 일과 마지막에 이완 대장을 만나 국정에까지 참여하는 일련의 과정은 선비정신의 구현이었다. 무인공도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꿈 꾸는 것도 유학적인 선비정신의 발로였다. 항상 새롭게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매진하는 선비정신이 이상적인 無人空島를 생각하게 한 것이다.

〈예덕선생전〉에서는 엄항수란 똥을 줍는 늙은 역부를 내세워서 선비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다. 작품에서 엄항수는 연암이 추구하는 참 선비로 당시 선비가 추구하던 바로 성인이며 군자인 것이다. 가장 낮은 층의 사람을 聖人으로 형상화하여 물욕에 물든 세인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만족과 행복을 엄항수를 통해 보여 준 것이다. 이는 연암의 자서에 명백하게 나와 있다.⁶⁾

원래 儒學은 선비정신을 구현하고자 새로운 학문이란 의미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것이 세월이 오래 되면서 원래의 의미가 퇴색되어 구태의연해지자, 신유학과들이 생겨나게 된다. 바로 이 신유학과를 후대인들이 일러서 실학과라 부르게 되었다. 그러니 실학은 결코 새로운 학문이라기보다는 원래의 유학 개념을 받아들여서 타락한 유학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원래 유학이 가지고 있던 실용적인 학문과 실생활에 적용되던 학문을 조선후기의 신유학과들이 계승을 한 것이다.

6) 연암의 자서에 의하면, “선비가 구복(口腹)으로써 몸을 더럽힌다면 여러 가지의 행실이 결핍될 것이며, 큰 술에 많은 음식을 쌓아 놓은 이는 음식 탐하는 자를 경계하지 않는 법이다. 이제 엄항수(嚴行首)는 스스로 더러운 똥을 날라서 먹을 것을 장만하고 있다. 그의 자취는 더러우나 그의 입은 조졸하기 짝이 없다. 나는 이제 이 〈예덕선생전〉을 쓰노라.”했다.(이가원 역, 『연암·문무자소설정선』, 박영사, 1986. p. 50.)



이 때문에 실학파들이 주창했던 실용 중심의 학문은 옛 것을 본받아서 새롭게 한다는 취지의 것이다. 이는 곧 법고창신이라는 단어가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고창신은 연암의 경우 ‘利用厚生正德’과 ‘生生の法則’으로 나타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용후생정덕은 『서경』에서 나온 ‘정덕이용후생’을 앞뒤로 바꾼 것이고, 생생의 법칙은 『주역』의 이론을 계승한 것이다.

연암은 이런 법고창신의 사고를 바탕으로 그의 소설창작 및 일기 등으로 스토리텔링을 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곧 일기를 매체로 『열하일기』를 작성했으며, 소설을 매체로 〈허생〉, 〈양반전〉, 〈예덕선생전〉, 〈마장전〉, 〈호질〉, 〈민옹전〉, 〈김신선전〉, 〈광문자전〉, 〈이상전〉, 〈열녀함양박씨전〉을 지었다. 이밖에도 다양한 글 쓰기 매체를 활용해서 시대의 욕구에 맞춰 작품을 썼다. 그것이 현재 전하는 『연암집』이라는 문집을 통해 전하고 있다. 그의 아들 박종채도 『과정록』이라는 글을 통해 아버지 연암 박지원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景觀祿俸論’도 아들 박종채가 저술한 『과정록』에서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 본고에서는 연암 박지원이 스토리텔링을 한 근원인 법고창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이용후생정덕과 생생의 법칙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이용후생정덕론

〈利用厚生正德〉 ↔ 〈正德利用厚生〉

연암은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의 사상 속에 잠재해 있었고, 중국의 『春秋左氏傳』에서 비롯하여 『易經』에 이르러 집대성된 陰陽思想과 『書經』 「虞書」의 「洪範」篇에서 일상생활의 利用厚生을 위하여 그 성질과 효용을 나타낸 五行說에 대하여⁷⁾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洪範羽翼序〉에서 글방 선생님의 말을 빌려, 「洪範」篇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漢代 이후에 학자들이 원래의 뜻을 왜곡해서 점성술에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개탄해 하면서, 아래 인용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바르게 사용할 것을 나타낸 말에서 잘 나타난다.⁸⁾ 아울러 그의 문집 전반에 걸쳐 이와 같은 관심과 易의 원리를 이용하여 사물의 자연법칙을 이해하고자한 것은 이미 고구한 바 있다.⁹⁾ 그리고 이러한 “利用然後可以厚生 厚生然後德可以正矣”라는 이론은 연암의 생활철학이 되었으며, 그의 유학, 곧 實學的 이론의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⁰⁾

7) 金義淑, 『韓國民俗祭儀와 陰陽五行』(집문당, 1993), pp.43-70.

8) 『燕巖集』卷一. 어떤 이는 이 부분에서 연암이 오행설을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데(崔光烈, 『한 民族史와 思想의 源流』, 思社 研, 1987, pp.245-6. 金義淑, 위의 책, p.53.), 필자가 보기에는 오행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바로 사용할 것을 나타낸 것이라 사료된다.

9) 이학주, “許生의 人間像 考,” 『國語國文學論叢』(太學社, 1995).; 이학주, “許生의 人物像과 『周易』,” 한국비교문학회 발표요지, 1995.10.21.

10) 이러한 글귀는 『熱河日記』 「渡江錄」에서 “嗟乎如此 然後 始可謂之利用矣 利用然後可以厚生 厚生然後 正其德矣 不能利其用 而能厚其生 鮮矣 生既不足以自厚 則亦惡能正其德乎”라 하여 더욱 구체화 되어 있다.



무릇 五行이란 것은 하늘에서 만들어 내고 땅에 쌓아둔 것이니 사람들이 얻어서 사용하는 재료다. ... 그 ①내용인즉 바른 덕을 펴고 물건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생활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요. 그 ②작용인즉 천지가 조화를 이루어 온갖 물건을 생성하는 것일 뿐이다. ... ③왜냐하면 이용한 후에야 후생 할 수 있고 후생한 후에야 덕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암집』 권1〈홍범우익서〉)¹¹⁾

생활에서 사람들의 유익과 조화를 펴서 물건을 생성하는 것으로 이용후생정덕을 한다고 했다. 이를 내용과 작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곳에 연암의 두 가지 스토리텔링의 원리가 담겨있다. 이 원리는 곧 연암의 학문적 바탕이 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는 본고에서 논의하는 ‘이용후생정덕’과 ‘생생의 법칙’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여 새롭게 하는 법고창신의 원리를 항상 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물건을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시대에 맞는 상품으로 새롭게 꾸며가는 것이다.

연암이 추구한 이용후생정덕의 이론도 그의 법고창신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미 있었던 『書經』 「虞書」의 〈大禹謨〉편에 “正德利用厚生”이라는 말을 연암이 “利用厚生正德”으로 고쳐 쓴 것에서도 법고창신을 볼 수 있다. 『서경』에는 오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가 이르시되 오호, 황제여! 생각하소서. 덕은 정사를 좋게 하고, 정사는 백성을 보양하는 데 있나니, 물과 불과 금과 나무와 흙과 굳셈을 잘 다스리며, 덕을 바르게 하고 쓰임을 이롭게 하며 삶을 두텁게 한 의 고르게 되어, 이 아홉 가지 공이 퍼서 아홉 가지 편을 노래하거든 경계하되 선하게 하시며, 독려하시되 위엄으로 하시며, 아홉 가지 노래로써 권하시어 그르치지 않게 하소서. (『서경』 〈우서〉)¹²⁾

이처럼 『서경』에서 오행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덕이용후생이 언급되었으며, 연암도 오행을 설명하면서 이용후생정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오행은 우주를 이루는 구성체이다. 그 구성체를 바탕으로 인간 삶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인간 삶이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곧, 이용후생을 정덕 앞에 둘 것인가, 아니면 뒤에 둘 것인가에 따라 지향하는 바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곧 ‘정덕이용후생’과 ‘이용후생정덕’은 얼핏 보면 같은 개념인 듯싶지만, ‘正德’과 ‘利用厚生’의 先後問題로 인하여 개인이 가지는 人生觀의 본질적 차이를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조선조 성리학자들은 德을 바탕으로 한 名分論的 정신구조에 치중한 나머지 경제의 허약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四民의 계층의식이 조장되고, 그에 따른 직업의 구별도 이루어졌으니, 경제의 궁핍은 더욱

11) 『燕巖集』卷一. 夫五行者天之所賦地之所蓄而人得以資焉…其事則不過正德利用厚生之具 其用則不出乎中和位育之功而已矣…何則利用然後可以厚生厚生然後德可以正矣.

12) 『書經』 〈虞書〉의 〈大禹謨〉편에 “禹曰 於帝 念哉 德惟善政 政在養民 水火金木土穀 惟修 正德利用厚生 惟和 九功 惟叙 九叙 惟歌 戒之用休 董之用威 勸之以九歌 俾勿壞”(『書經』, 한국교육출판공사, 1986. p. 56)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儒學 원래의 실천덕목은 개인의 명분과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써 왜곡되었으며, 민중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피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조선조 후기의 실학자들은 물질적 가치를 정신적 가치 보다 우선 하였다.¹³⁾ 이것은 심오한 학문의 논쟁보다는 인간의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학문과 실천행위로의 방향전환을 의미한다. 유학이 가지는 원래의 실천덕목을 명분과 실리만 좇는 잘못된 인식에서 회복하자는 의미인 것이다. 곧, 도덕적 이념에 얽매어 사람들의 진정한 삶을 뒷전으로 미루어 두었던 것을 바꾸어 보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기에 ‘利用’이 ‘正德’에 앞서게 된 것이다.¹⁴⁾ 史馬遷도 『史記列傳』에서 “부유하면 즐겨 그 덕을 행하는 자의 표본이 되며, 오랫동안 빈천하게 살면서 즐겨 仁義를 말하는 패거리도 역시 부끄러운 일”¹⁵⁾이라고 일찍이 말했던 것이다.

이런 이용후생의 언급은 『열하일기』서에도 나온다.

그리고 풍속이나 관습이 치란(治亂)에 관계되고, 성곽(城郭)이나 건물, 경목(耕牧)이나 도야(陶冶)의 일체 이용(利用)·후생(厚生)의 방법이 모두 그 가운데 들어 있어야만, 비로소 글을 써서 교훈을 남기려는 원리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¹⁶⁾

이 서는 누가 썼는지는 모르나 연암의 학문적 바탕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쓴 서문임에 틀림없다. 앞서 이야기한 ‘이용후생정덕’이 『열하일기』에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연암은 스토리텔링을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허생>이라 할 수 있는데, 작중 주인공 허생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학습-이용-후생-정덕-국정’¹⁷⁾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2) 生의 法則

연암(1737-1809)은 20세 되던 해 李胤永(1714-1759)의 집에서 『주역』을 연구했는데, 이윤영은 연암이 『주역』에 관하여 논설한 바를 듣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연령을 초월하여 교유할 것을 허락했다고 전한다.¹⁸⁾ 이 밖에 易學과 理氣哲學의 대가였던 金錫文(1658-1735)·金元行(1702-1772)·洪大容(1731-1783)

13) 이러한 이론은 北學派로 알려진 洪大容·朴趾源·朴齊家·李德懋·柳得恭 등의 저서에서 잘 나타나 있으며, 李之菡(1517-1578)을 비롯한 여타의 실학자들도 주장했음을 이미 선행들에 의하여 밝혀진 바 있어 참고가 된다.

14) 金泳은 “燕巖의 ‘士’意識과 讀書論”이라는 논문에서 “연암은 書經의 ‘正德利用厚生’의 논리를 ‘利用厚生正德’이라는 실천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하고 자연에 대한 합리적 이용을 통한 민중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했다. 다시 말하면 士의 임무는 實用之學과 科學的知識을 제공하여 ‘민을 이롭게 하고 萬物에게 혜택을 입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고 하여 연암의 士意識을 고찰한 바 있다. 『東方學志』집(연세대 국학연구원, 1986), pp.137-8.

15) <貨殖列傳>참고.

16) 李家源 譯, 『熱河日記』上(良友堂, 1988), p.32.

17) 이학주, “‘허생전’의 구조와 의미”, 『한겨레어문연구』(한겨레어문학회, 2001), pp. 291-314 참고. *본고의 2장에서 논의한 이용후생정덕과 생생의 법칙은 필자의 본 논문에서 전적으로 도움을 받아 다시 작성한 것이다.

18) 宋旭 譯, 「나의 아버지 朴燕巖」, 『文學思想』통권 20·21호 (1974. 5. 6), p.373.



등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師弟關係를 맺고 교류를 했다.¹⁹⁾ 이로 인하여 연암이 중국 여행 시에 그곳 학자들과 대화했던 地轉說은 선배학자들의 영향에 지나지 않았다.²⁰⁾ 그러나 연암은 이 같은 이론을 단순히 습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깊은 학문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론으로 구체화 시켜서 직접 생활과 저서에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¹⁾ 그 가운데 易學의 生生法則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연암은 <楚亭集序>에서

“천지는 아무리 오래 되었어도 生生의 활동이 끊이지 않고 日月은 아무리 오래 되었어도 광명이 날로 새로우며, 서적은 아무리 방만해도 내용의 의미가 저마다 다르다.”²²⁾

고 하여 ‘生生’의 법칙을 이야기하였다. 『熱河日記』序에도 『易經』과 『春秋』와 관련하여 글 쓰는 방법을 서술해 놓았다. 이곳에서는 ‘감춤(미묘성)과 ‘드러냄(표현;사건의 기록)이라는 두 축을 이용하여 ‘神明의 경지를 통하고 事物의 자연법칙을 꿰뚫어’ 사물과 인간사의 일체 利用厚生의 방법을 『熱河日記』속에서 나타냈다고 했다.²³⁾ 또한, 연암은 글의 組織方法과 그 運用에 대하여 用兵術에 비유한 바 있다.²⁴⁾ 이러한 用兵術 곧, 서술책략은 隊伍의 유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오의 조직운용을 얼마나 적절히 이용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암이 이와 같은 용병술을 이용하여 글을 쓸 때, 과거의 구태의연한 책략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며, ‘王褒僮約’이라는 故事를 앞세워 질타의 방패막이로 삼고자한 것도 아니요, 연암 나름의 책략을 피해서 작품을 쓰고자 함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앞서 살펴 본 ‘利用厚生’이 ‘正德’에 우선하고, 生生法則이며 法古創新과 같은 이론과 일맥상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서론에서 인용한 <洪範羽翼序>의 내용에서도 ‘利用厚生正德’의 작용은 “천지가 조화를 이루어 온갖 물건을 생성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했듯이, 연암이 추구한 법칙은 우주만물의 원리에 따른 생생법칙인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周易』의 원리와 일치하는데, 그것의 원리와 스토리텔링의 적용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⁵⁾ 『周易』의 典範은 우주질서에 입각한 君子와 聖人の 思考와 行動樣式을 주제로 삼고 있다. 이것의 기본

19) 이에 관하여는 朴宗采의 위의 글과 閔泳珪, “十七世紀 李朝學人の 地動說,” 『東方學志』 16輯(延世大 國學研究院, 1975) 및 姜東燁, 『熱河日記研究』(一志社, 1988) 등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20) 姜東燁, 위의 책, p.141.

21) 이러한 이론은 『燕巖集』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熱河日記』에 집중되어 있다. 이학주, “許生의 人間像 考”, 앞의 논문과 “許生의 人物像과 『周易』” 앞의 글을 참고 할 것.

22) 『燕巖集』 卷一. 天地雖久 不斷生生 日月雖久 光輝日新 載籍雖博 旨意各殊.

23) 李家源 譯(1988), 앞의 책, pp.31-2.

24) <騷壇赤幟引> 『燕巖集』 卷一. 이에 대하여는 姜東燁, 앞의 책, pp.48-9. 에서 연암의 문학론을 고구 하면서 상세히 언급 하였으며, 金學成, “兩班傳의 作品構造와 主題,” 『人文科學』 輯(成均館大 人文科學研究所, 1989).에서 위의 방법을 이용하여 <양반전>을 분석 하였으며, 黃滄江, “『兩班傳』,” 『韓國古典小說研究』(새문社, 1983).; 成賢慶, “『虎叱』研究,” 앞과 같은 책.; 趙東一, “朴趾源,” 『韓國文學思想史試論』(知識産業社, 1978). 등에서 이미 상술한 바 있다. 글의 내용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므로 생략 한다.

25) 이 내용은 필자가 “許生의 人間像 考”와 “許生의 人物像과 『周易』”이라는 앞의 글에서 상술한 바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 둔다.



원리는 생성과 소멸이라는 자연의 순환법칙에 놓여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周易』의 체계는 道(太極)∞兩儀(陰陽)∞四象(老陰·少陽·少陰·老陽)∞八卦∞六十四卦라는 발전론적인 변화 요인을 卦(易의 象)와 辭(經文)로 구성해 놓았다. 卦는 易의 질서를 陰爻(--)와 陽爻(—)로 본뜬 象과 象의 함축적 개념인 卦名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卦의 해설인 辭(經文)는 卦와 爻의 象을 자연법칙의 원리에 입각하여 인간사에 대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卦 자체는 靜的인 現像을 나타낸다면, 卦와 卦간의 관계는 動的인 움직임으로 보다 앞으로의 변화와 생성을 예고하는 來象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卦 자체로 멈추어 있는 실상은 의미가 없으며, 卦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변화를 유발하고, 그 변화는 生成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또한 『周易』의 卦와 辭를 보충 설명한 十翼이 있어 易의 체계를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周易』의 체계는 근본적으로 陰(--)과 陽(—)의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一陰一陽으로 迭運하는 道의 自己展開에 의한 生命의 창조를 그 본질로 하는²⁶⁾ 유기적 구조로 짜여 있다. 곧, 『周易』은 “恒久如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原理를 大前提로 제시해 놓고, 天地自然의 變化現象으로 人間界의 變化現象을 설명하고 있다.”²⁷⁾ 『繫辭傳』에서는 “역의 도는 자주 변천하는 것이다. … 오직 변화하는 것만이 적당한 것이다.”²⁸⁾ 고 했으며, 乾·坤 두 卦로 천지만물의 현상을 설명하면서 변화의 幾微와 生成의 원리를 易의 행동주체와 관련하여 설명해 놓았다. 易의 법칙이 상술한 바와 같이 변화와 생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唯變所適” 하고 “生生之謂易”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幾微라는 미묘함과 때를 기다려 움직여야 이익됨이 있다²⁹⁾는 전제가 함께 수반되어 있다. 이것은 易의 활용상과 순환법칙을 말한 것이다. 그것은 일정한 반복구조로 이루어지는 기계적이며 도식적인 구조가 아니라, 변화하고 생성하는 반복구조인 유기적이며 상호작용적 구조로 형성돼 있음을 뜻한다.³⁰⁾ 같은 종류의 생명체일지라도 그 성장의 속도 및 크기와 모양 등이 다르게 나타남이나, 그 시기에 따라 성장하고 퇴락하는 과정이 생성이라는 창조성을 본질로 달리 나타나는 것과 같다. 아울러 이러한 생성은 無에서 有를 창조해 내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어떠한 실체를 기본적 바탕으로 하여, 뒤에 올 상황과 관련되어 진행되는 것이다. 곧, 太極은 兩儀를 낳고 兩儀는 四象을 낳고 … 하는 파생적인 체제와 卦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³¹⁾ 이런 『주역』의 이론이 곧 연암이 추구했던 법고창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26) 崔英辰, “『繫辭傳』에 있어서의 善의 成立根據,” & 『人文科學』 第19輯(成均館大 人文科學研究所, 1989), p. 24.

27) 金敬琢 譯著, 『周易』(明文堂, 1987), p. 16.

28) 易之爲書也 不可遠 爲道也 屢遷 變重不居 周流六虛 上下无常 剛柔相易 不可爲典要 唯變所適.

29) 『繫辭傳』 易无思也 无爲也 寂然不動 感而遂通 天下之故 非天下之至神 其孰能與於此 夫易 聖人之所以極深而研幾也 唯深也 故能通天下之志 唯幾也 故能成天下之務 唯神也 故不疾而速 不行而至 子曰 易有聖人之道四焉者 此之謂也. 『繫辭傳』. 待時而動 何不利之有.

30) 정금철은 易의 태극과 음양을 相生的이자 相同的인 태극∞음/양의 체계로 간주하고, 태극은 일치이고 음/양은 대립이므로 역은 일치 ∞대립의 변증법적구조 (상생적∞상동적)에 기반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시의 기호학적 연구』(새문사, 1990), p.14. 그러나 음/양은 상호작용에 관련하여 파생적인 생성운동을 하고 있음으로, 일치와 대립의 발전론인 변증법적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31) 여기서 말하는 有에서 有의 生生은 “자연의 도로부터 무(無)로, 무가 유(有)를 낳는다.”(鄭炳碩 譯, 『周易哲學의 理解』高懷民 著, 文藝出版社, 1995, p. 588.)는 老子의 說과는 다르다. 太極이라는 요소가 정신과 물질을 함께 공유하고 있음으로, 이러한 실체적 요소가 陰과 陽이라는 또 다른 실체를 낳는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다.



또한 정신과 물질이라는 이원적 요소를 놓고 볼 때, 『周易』은 정신과 물질의 生生作用이 일원적 사상체계로 형성되어 있다.³²⁾ 곧, 연암은 <答任亨五論原道書>에서 만물의 生은 모두 氣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천지는 大器이니, 가득 차는 것은 氣이고 가득 차게 되는 까닭은 理인데, 陰陽이 서로 부딪치면서 理가 그 가운데 있으며, 氣가 理를 복숭아가 씨를 품고 있듯이 둘러싸고 있다.”³³⁾ 고 하였다. 이것은 연암이 “一元論的 主氣論의 입장에서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이해”³⁴⁾한 것이다. 『주역』과 연암의 이기적 입장도 같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주역』의 원리는 곧, ‘차면 기울고, 기울면 찬다.’는 易의 기본법칙이 단순한 운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운동현상에는 幾微·時期·相關性 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스스로 변화하여, 生成인 창조를 이끌어 내는 법칙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의 모든 물질이 계속 그 생명을 유지하고 새롭게 변창해 가는 것과 같이, 스토리텔링도 하나의 유기적 구조로 볼 때, 內·外部的인 영향과 함께 자체 내로 생명을 갖고 새로운 창조를 위해 계속적인 운동을 진행해야 함을 볼 수 있다. 연암의 법고창신 정신과 같이 스토리텔링은 낳고 또 낳는 자기 변화를 계속 추구해야 함을 볼 수 있다. 이때 기미, 시기, 상관성과 연계해 보면, 스토리텔링은 해야 할 기미가 보이면, 그 때를 봐서 해야 하는데, 아무한테나 다 통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을 잘 살펴서 진행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연암은 문집 곳곳에서 『주역』을 거론하고 있으며, 『주역』의 원리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생생의 법칙을 통해서 자신의 학문 및 생활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허생>의 경우이다. <허생>의 경우 연암이 추구했던 ‘이용후생정덕’과 ‘생생의 법칙’이 잘 나타나 있다. 허생이 독서를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치고, 그를 바탕으로 변 부자에게 만 냥을 빌려 장사를 하고 몇 번의 장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생을 두텁게 했으며,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른 덕을 펼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마지막에는 이완 대장을 통해서 국정에까지 참여하고 있으나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세상을 등진다. 이런 상황은 곧 연암이 『주역』의 생생법칙을 활용해서 작품을 서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때 생생법칙은 곧 법고창신과 다르지 않다. 이에 연암은 <허생>의 경우만 보면, 법고창신을 활용해서 <허생>을 스토리텔링 한 것이다.

32) 위의 책, pp,588 -593. 이 책에서는 “건원, 곤원 이후로 변화하는 현상세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 태극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신과 물질이라는 것은 후천적인 구분일 뿐이다.”고 하고, 정신과 물질이 하나로 관통하는 것과 같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원물질도 동시에 생겨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연암도 이와 비슷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33) 이 글에서 연암은 理와 氣의 성질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세히 고구하고, 그 실천 방안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인용문은 趙東一, “朴趾源” 앞의 책, p, 266.의 譯文을 게재함. 아울러 <原土>에서는 理氣論에 너무 집착하여 한 쪽으로 귀착되려고 하면 性情이 어긋나니, 講學에서 조차도 實用에 힘써야 한다고 하여, 치우친 논쟁을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다.

34) 조동일, 위의 책, 같은 곳.



3. 연암을 활용한 양양의 스토리텔링 방향

지금까지 연암이 추구했던 법고창신의 정신적 바탕은 『서경』에서 언급한 ‘정덕이용후생’을 ‘이용후생정덕’으로 바꾼 것과 『주역』의 생생법칙을 바탕으로 나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연암의 법고창신은 거꾸로 ‘이용후생정덕’과 ‘생생법칙’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연암은 실제로 법고창신을 어떻게 활용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양에서는 연암을 바탕으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알다시피, 연암 박지원은 법고창신의 대가였다. 그것은 다음처럼 〈호질〉을 쓴 기록을 통해 볼 수 있다. 연암이 열하에 갔을 때 심유봉이란 사람을 만난다. 그 집에 들렀는데 벽에 작은 글씨로 쓴 奇文이 있어서 같이 여행을 하던 정군과 함께 글을 베끼다. 앞쪽은 연암이 베끼고, 중간부터는 정군이 베끼다. 그 마지막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다.

“선생은 이걸 베껴 무얼 하시려오?”

하기에 나는

“돌아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 번 읽혀서 모두들 허리를 잡고 한바탕 웃게 하려는 거요. 아마 이걸 읽는다면 입안에 든 밥알이 별처럼 날아갈 것이며, 튼튼한 갓끈이라도 썩은 새끼처럼 끊어질 것이야.”하고 말을 마쳤다. 사관에 돌아와 불을 밝히고 다시 훑어 본 즉, 정군이 베끼는 곳에 그릇된 곳이 수없이 많을뿐더러, 빠뜨린 글자와 글귀가 있어서 전혀 맥이 닿지 않으므로 대략 내 뜻으로 고치고 보충해서 한 편을 만들었다.(『열하일기』)³⁵⁾

연암이 〈호질〉을 쓰게 된 내력이다. 인용문에는 〈호질〉을 쓰게 된 목적과 스토리텔링 방법을 말하고 있다. 곧 법고창신의 방법이다. 기존에 있던 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방법은 기존에 있던 것을 매개로 놓고 놓으며, 기존에 있던 것을 매개로 이용하고 후생하고 정덕하는 것이다. 실제 〈호질〉에서는 범이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인간 삶의 모순, 비리, 불합리 등을 꾸짖고 있다. 그리고 비방 등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남의 것을 베꼈다고 했다. 이는 한·중·일전기소설의 작가들이 서문에서 쓴 내용이나 조선조 야담집 작가들이 서문에서 우회적으로 쓴 내용과 일치한다. 그러면서 실제 작품에서는 현실의 모순, 불합리 등을 꼬집어 새로운 이상향을 설정해 주고 있다. 아주 훌륭한 스토리텔링의 방법이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우리는 연암의 스토리텔링방법을 활용해서 연암과 양양을 연계하여 양양에 보탬이 되는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을 이끌어 내야 한다. 스토리텔링의 과정은 통상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를 이야기 하고 있다. 곧, 스토리텔링은 원형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

35) 이가원 역(1986), 앞의 책, p. 268.



여 새롭게 加工하는 것이다. 이를 굳이 단계를 나타내면 원형-발상-연상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렇다면 연암과 양양의 原型은 무엇일까? 연암이 양양부사를 지내던 시절은 연암의 학문과 경륜이 절정에 달하던 시절이다. 연암의 일생에 있어 그야말로 耳順의 시절인 것이다. 그 때문에 적은 녹봉에 경관녹봉을 더해 받을 수 있는 재치도 있었던 것이다. 충분히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여 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한편 연암이 양양에 있을 당시의 절정에 이른 경륜과 학문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發想을 할 수 있을까? 절정에 달한 학문과 경륜은 이 지역에 연암의 모든 것을 풀어놓는 것을 의미한다. 평생 쌓아 온 모든 재능과 업적을 모두 풀어헤칠 때란 것이다. 연암의 모든 업적을 양양읍내에 풀어 놓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암의 모든 업적을 양양읍내에 풀어놓는 것에서 어떤 聯想을 할 수 있을까? 이에 필자는 양양에 연암의 테마거리를 만들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2012년에 혹자가 주창했던 것³⁶⁾처럼 여러 개를 할 수도 있지만, 먼저 가장 구심점을 이를 바탕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 구심점을 ‘연암테마거리’로 하자는 것이다. 연암테마거리는 필자가 주장하는 ‘마을관광박물관’의 개념으로 하면 된다. 박물관을 따로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을 자체를 박물관 개념으로 하자는 것이다. 마을에 기존에 있던 자원을 충분히 살리면서 연암의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것이다. 양양읍내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상점, 관공서 등등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연암의 업적을 입히면 된다. 가령, 열하일기거리, 허생전거리, 양반전거리, 육방관속거리, 연암산책길 등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21세기의 생활에 1800년대의 생활상을 입혀 공존하게 하는 것이다. 옛 물건도 팔고, 연암의 작품에 나오는 대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만든 거리에서 주변 및 시대 요구에 맞게 바꾸어주면서 이벤트도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 경관녹봉론(금강산과 같음을 경관홍보, 지역의 자긍심), 황장목 다리 놓기(축제, 민속놀이 등), 연암테마거리(마을관광박물관의 개념)

36) 정호완, “양양의 역사문화성과 연암의 문화콘텐츠”, 『양양부사 녹봉은 일만이천냥이랴네』(양양문화원, 강원도민일보, 2012), 100-130쪽. 이곳에서 정 교수는 양반전의 아리랑화, 연암문학의 창극화, 연암문학의 마당놀이, 양반전의 실현장르 개발, 양반전과 호질의 융합 콘텐츠풍자개그, 연암문화축제, 연암문학의 판소리공연, 연암문화체험, 연암문예창작마을,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한 한-중 문화교류 등을 주장했다. 여기서 〈양반전〉을 언급한 것은 연암이 양양부사재임시절 〈양반전〉을 창작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양반전〉은 그 배경이 정선이며, 정 교수가 주장하는 아리랑은 아무래도 정선의 이미지가 강해서 양양하고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 교수가 주장하는 여러 콘텐츠를 모두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많은 시간을 두고 타당성을 진단해 가면서 해야 할 것이다.

연암 박지원과 양양의 역사문화유적지 연계방안

양언석 (강원도립대학 교수)

I. 緒論

양양은 오랜 역사와 우수한 문화, 그리고 담론(談論)을 간직한 고을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문화가 미래인 시대, 양양의 문화는 우리의 기억과 삶과 생활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불교의 聖地로, 화랑들의 중심 수련장이었다. 신라의 고승인 慈藏(건평왕32, 610-태종무열왕1, 654), 元曉(진평왕39, 617-신문왕6, 686), 義湘(진평왕47, 625-성덕왕1, 702), 道義(출생연도 미상), 梵日(헌덕왕2, 810-진성여왕3, 889) 등이 향성사, 낙산사, 영혈사, 진전사 등 사찰을 창건하여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신라가 강성해지면서 양양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역을 먼저 점령한 것은 통일을 위한 中心地 이었기 때문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고구려가 이 지역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 것은 신라의 정책이었다. 불교를 통한 一心과 佛國土를 통해 이 지역을 관리해 왔다. 그러므로 삼국시대 양양의 불교는 불교의 聖地답게 우수한 문화유적이 전해 오고 있다. 이처럼 양양지방은 5세기 중반 이후 신라와 고구려의 격전장이 되었으며, 5세기 말엽에서 6세기에 접어들면서 신라의 영향력에 놓였던 것으로 보인다. 6세기 중반에 이르면서 양양은 신라의 영역에 편제되어 익령으로 수성군의 속현에 편제되었다.¹⁾

조선조에는 왕조의 外鄕으로 양양을 부로 승격하고 특별히 관리해 왔다. 『擇里志』山水條에 의하면 산수의 승지는 당연히 강원 영동이 제일이다.(山水之勝 當以江原嶺東第一)²⁾ 『新增東國輿地勝覽』樓亭條 形勝條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수의 훌륭한 경치는 관동이 첫째다.(我東韓 山水之勝 關東爲最)

1) 이규대, 양양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릉대 박물관, 1994, P27

2) 『新增東國輿地勝覽』 본래 고구려 翼峴縣인데(伊文縣이라고도 한다), 신라에서 翼嶺이라 고쳐서 守城郡의 屬縣이 되었다. 고려 顯宗 때 縣丞을 두었다. 高宗 8년(1221)에 거란군사를 방어한 공이 있다고 하여 읍호를 襄州로 하고 防禦使를 파견하였으나 高宗 44년 적에게 항복하여 德寧으로 읍호를 바꾸고 강등하여 監務를 두었다가 元宗 원년(1267)에 다시 양주로 회복하고 知襄州事를 파견하였다. 본조 太祖 6년(1397)에 임금의 외가 고을이라 하여 승격하여 府로 하였으며 太宗 13년(1413)에 예에 따라 都護府로 하였고, 태종 16년(1416)에 지금의 명칭인 襄陽으로 고쳤다.



儒家사회에서 연암이 景觀祿俸錄을 언급하기 이전부터 선비와 문인들이 風光 좋은 양양을 찾아 은둔하거나, 유람하며 심회를 표현한 시와 山行記는 양양의 역사이고 문화로 자리하고 있지만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양양은 오랜 역사와 많은 문화유적을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 도시 브랜드로 이미지를 창출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연암 박지원이라는 유명인물을 활용한 역사문화콘텐츠 확충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II. 시대별 문화유적

1. 신라시대

1) 불교

신라는 삼국통일을 위한 중앙집권 체제를 위해 새로운 이념인 불교를 수용하였다. 불교를 수용하면서 사찰이 건립되었고, 사찰의 상징인 불전과 탑이 양양을 중심으로 건립되어 불교의 聖地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대표적인 승려로는 자장을 비롯하여 의상, 원효, 도의 등을 들 수 있다. 승려들은 대부분 입당구법(入唐求法)으로 중국의 선진문화와 불교로 教化에 힘썼다. 대표적인 사찰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香城寺

진덕여왕 6년(652) 창건하였고, 효소왕 7년(698)에 소실되었다가 효소왕 10년(701)의상대사가 향성사 능인암터에 중건하고 選定寺하였다. 그 후 인조22년(1644)에 신흥사라고 하였다.

자장(건평왕32, 610-태종무열왕1, 654)이 활동했던 7세기 중반은 선덕여왕이 재위했던 시기이다. 여자가 왕위에 올라 백제의 공격을 받아 40여개 성을 빼앗기면서 위태로워졌다.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선덕여왕의 귀국령으로 유학 중이던 승려들이 귀국하여 왕과 왕실의 후원을 받으며 불교로 민심을 통해 지배체제를 강화하였다. 자장은 진골출신으로 조정의 자리를 포기하고 출가를 실행하였다. 이때, 왕명으로 위협하자 “백년을 파계하며 살기보다는 차라리 하루를 살더라도 계를 지키겠노라”라고 한 것으로 보아 승려의 꿈을 굽히지 않았다.

자장의 사상 중에 眞種說을 주장하였다. 진종설은 인도의 석가모니를 탄생시킨 왕실과 신라왕실이 같다는 신성성의 주장이다. 석가모니 종족이자 전륜성왕(인도의 이상적인 정복군주)이 다스리는 신라사회는 현재 부처와 보살이 머무르는 신라불국토설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상으로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상주처이고, 설악산을 靑山이라고 명칭한 것(영혈사, 역성사, 오색석사)은, 설산이 석가모니가 득도한 신성한 장소로 자장에서 비롯되었고, 설산(설악산)의 지류인 오봉산의 낙산사는 관음보살의 상주처가 되었고, 신라시대 양양을 불교 聖地の 토대로 만든 것이 자장이다. 양양지역은 불국토사상과 호국불교사상으로 불교의 성지로 확인되



어 화랑도와 승려들의 중심수련장과 순례지가 되었다.

(2) 洛山寺

671년(문무왕11) 의상이 관음보살을 親見하고 낙산사 창건하였고, 그 후 범일선사가 불전을 짓고 정취보살 모셨다.

문무왕이 대당전쟁을 승리하고 통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 경주의 王城을 새롭게 하고자 의상에게 문자의상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성곽을 새롭게 하여 화려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政敎를 밝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자 왕은 이에 공감하여 역사를 그만두었다.

이러한 의식에서 의상은 변방의 양양지역을 중심으로 관음보살의 상주처로 인식하여 성지로 정착하고자 낙산사를 창건하였고, 이 지역을 불심을 통해 신라의 중앙집권적 통치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해용왕에게 수정염주와 여의주를 받은 설정은 불교의 성지임을 확인하고 있다. 변방이지만 군사적이고, 교통 중심인 양양을 중심으로 불국토 사상을 통해 신라의 중앙집권이 가능하였다. 이처럼 신라의 불국토사상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통일 후에도 불교를 신앙체계로 하여 변방의 기층민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주어 신라인으로서, 불교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우수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의상의 관음보살 상주처를 확인하고자 찾아온 원효가 낙산사에서 비찬한 시련을 겪게 된다.

낙산사 남쪽 교외에 이르니 눈 가운데서 흰 옷을 입고 벼를 베고 있었다. 원효가 희롱삼아 벼를 달라고 하자 여인은 벼가 익지 않았다고 한다. 원효가 또다시 가다가 다리 밑에서 월수백을 빨고 있는 여인을 보았다. 원효가 물을 달라고 청하자 여인이 더러운 물을 떠서 주었다. 원효는 여인이 준 물을 쏟아버리고 다시 냇물을 떠서 마셨다. 이때, 들 가운데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그 위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말했다. “휴제호(休醜訶), 화상아!” 하고는 보이지 않았다. 소나무 밑에는 신 한 짝이 벗겨져 있었다. 원효가 낙산사에 이르니 관음보살상 아래 전에 보았던 신 한 짝이 벗겨져 있었다.

이에 원효는 전에 만났던 여인이 관음의 진신임을 알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나무를 관음송(觀音松)이라 하였다. 원효는 결국 관음보살의 진신을 친견하려고 하였으나 풍량이 크게 일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떠났다.

원효가 물을 달라고 청하자 여인이 더러운 물을 떠서 주자, 원효는 그 여인이 준 물을 쏟아버리고 다시 냇물을 떠서 마셨던³⁾ 곳을 냉천이라고 한다.

이 냉천을 문화유적으로 활용하면 흥미로울 수 있다.

3) * 『신증동국여지승람』 냉천(冷泉) - 오봉산 아래 있다. 세상에 전해오는 말에 “관음보살이 여자로 변해서 벼를 베고 있는데 원효대사가 냉천 물을 마시면서 함께 웃으며 농지거리를 하였다”고 한다.

* 『여지도서』, 『관동읍지』, 『현산지』 냉천_ 부 북쪽 15리 오봉산에 있다. 세상에 전해오는 말에 관음보살이 덕녀로 변해서 벼를 베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원효대사와 냉천의 물을 마시면서 함께 실없이 말로 농지거리를 하였다고 한다. 鄭樞의 시에 “덕녀의 옛터엔 잔디가 섬돌을 덮었고 원효의 남긴 자리에는 나무가 하늘에 연했네” 하였다.



의상과 원효는 동학이면서도 서로 차이가 있다.

이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신라가 고구려, 백제와 치열한 전쟁을 치루면서 삼국통일을 이루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라왕실에서는 원효의 자율적인 사상보다는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를 위해 의상의 체계적인 사상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상은 당의 종남산 지상사에서 중국의 제2조인 지엄의 문하에서 10년 동안 화엄학을 공부하고 귀국하여 화엄교학을 펼쳤다. 의상은 우리나라 화엄학의 시조로 추앙받고 있다.

그러나 삼국통일 이후 경전 중심의 교종보다는 스승과 제자의 만남을 통해 마음과 마음으로 도를 계승하는 선종이 중시되었다. 이 선종이 도의에 의해 진전사에서 이루어졌다.

이처럼 양양은 화엄종의 시조인 의상과 조계종의 개시조인 도의선사가 개창한 진전사가 불교의 성지로 자리하고 있다.

일연국사가 저술한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의상과 원효의 담론과, 조신전, 그리고 범일선사의 정취보살에 관한 기록이 상세히 기록된 것은 일연국사가 낙산사에서 가까운 진전사에 출가하여 직접 들었던 연유로 보인다. 이처럼 양양의 불교는 신라시대부터 불교의 성지로, 그 활용가치는 무한하다. 불교의 성지순례로, 그리고 낙산사의 조신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로 그 가치와 소설사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문학적 가치도 활용 하여야 한다.

(3) 陳田寺

창건년대 미상으로 道義선사가 창건하였고, 九山禪門 중 迦智山門의 개시조이다. 그리고 일연스님 14세에 진전사로 출가하였다.

도의선사에 관한 기록은 『조당집』권17에 설악 진전사 원적선사전(도의)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도의선사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도의의 속성은 왕씨이고, 임신하기 전 그의 아버지는 흰무지개가 방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고, 어머니는 한 승려와 동침하는 꿈을 꾸었다, 이에 부모들은 반드시 聖子를 얻을 꿈이라고 하였는데 임신한지 39개월만에 도의가 태어났다. 출생하는 날 아침에 異僧이 錫杖을 짊고 문 앞에서 “금일 낳는 아기의 태를 강과 산으로 첩첩이 둘러쌓인 곳에 묻어라”하고 사라졌다. 이에 태를 묻으니 큰 사슴이 와서 지켰는데 해가 지나도 떠나지 않았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보아도 해칠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였다. 이러한 상서로움으로 법호를 明寂이라 하였다.

建中 5년(선덕왕5, 784)에 당나라에 입당하였다. 곧바로 오대산에 들어가 文殊의 감응을 받았는데 허공에서 聖鐘의 소리를 듣고 산 속에서 神鳥가 높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廣府의 寶壇寺에 머물면서 구족계를 받고 曹溪에 가서 祖師堂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려 하자 갑자기 문빛장이 저절로 열렸고 예배를 세 번 드리고 나니 저절로 닫혔다. 그로부터 江西 洪州의 開元寺에 가서 西堂智藏(735-814)을 참문하고 의문점이 해결되고 막힌 체증이 풀리게 되었다. 지장이 그를 맞이함이 마치 石間에서 美玉을 चु는 듯하고 조계속에서 진주를 주워내는 듯하여 “진실로 법을 전한다면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 누구라”라고 말하고 법명을 道義라고 고쳐주었다. 이에 頭陀의 길을 떠나 百丈山 梅海和尚(749-814)의 처소를 찾아가 서당에게하는 것



과 똑같이 하니 백장이 탄복하여 江西(馬祖 道一)의 禪脈이 모두 東國으로 돌아가는 구나” 라고 하였다. 신라의 선승들은 거의 마조도일의 제자로 서당지장과 백장회해도 마조계의 법을 이었다.

37년 정도 중국에서 보내고 서당지장과 백장회해의 심인을 전해 받은 도의는 헌덕왕 13년(821) 귀국하였다. 귀국 후 교종에 의해 불교계에서 魔語라고 배척 받으며 북산(설악산)에 은거하여 산문을 열고, 법을 廉居禪師(?-884)에게 전하였다. 雪山 億聖寺에서 조사의 심인을 전하고, 도의의 가르침을 퍼다가 普照禪師 體澄(804-880)에게 법을 전하였다.

체징은 염거가 설산 역성사에서 행화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참문하여 조사의 심인을 얻었다. 체징은 희강왕 2년(837)에 입당하여 문성왕 2년(840) 귀국하여 구산선문의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하여 도의의 선종을 계승하였다. 그의 비문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선문은 제1은 도의이고, 제2는 염거, 제3은 체징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선종은 마조도일의 영향으로 원적도의-염거-보조체징-백장회해로 법을 이어 왔다.

진전사지와 3층석탑, 석조부도, 불좌의 중대석 및 많은 유물이 전해 오고 있다. 도의가 진전사를 개창한 이후, 가지산문의 토대가 되었다. 의상은 낙산사를 중심으로 낙산사에서 화엄사상을 널리 선교하였지만 신라 말부터 고려조에 도의가 진전사를 창건하여 선종사상을 선교하였다.

普覺國師 一然(1206-1289)은 충열왕 9년(1283) 국사에 책봉되어 불교계의 상징이었다. 일연국사가 진전사로 출가한 것은 역사적인 사상사의 흐름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양지역은 신라 불교문화의 중심축으로 군사적, 교통적 중심지의 중요성으로 인해 국가적인 관심을 갖고 관리해 왔다. 변방이지만 삼국통일과 통일 후 중심지로서 의상이 귀국하여 처음으로 양양에 사찰을 창건하였다. 이것은 낙산사를 창건하여 불교를 통해 민심을 일심으로 하여 중앙지배 체제를 확립하였다. 의상이후 원효가 다시 불교의 성지로 확립하였다. 그리고 조신전은 깨달음의 공간으로 승려들에게 구도적인 의미와 양양인에게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강화하였다.

도의는 당에서 유학하여 중국선종을 수용하여 진전사를 개창하여 선종의 개창자로 추앙 받고 있다.

진전사에서는 선종의 개시처로, 그리고 일연국사와 『삼국유사』를 통한 학문적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沙林寺(禪林院)

사람사는 애장왕 5년(804)경 창건 되었고, 황이리 미천골에 있었던 사찰로, 후에 역성사로 개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선림원을 창건한 弘覺선사의 비가 역성사에 세워진 것⁴⁾으로 보아 알 수 있다.

貞元 20년 갑신(804) 3월 23일 當寺의 종이 만들어졌다. 古尸山郡 仁近 大內末과 紫草里가 시납하신 古鐘은 쇠 280廷과 當寺 고종 의 쇠 220廷으로 토대로 삼아 十方的 杻越(檀越)들을 권하여 이루었다. 기원하는 것은 法界有情이 모두 佛道에 이르러 감이다. 서원할 때, 들으신 님은 信廣夫人이다. 上坐 舍妙寺의 日照和尚이고, 당시 감독(時司)은 元恩師고, 종을 만드는 伯士(기술자)는 당사 覺智師, 上和尚 順應和尚, 良惠師,

4) 億聖寺

廉居화상이 道義에게 법을 이어 이곳에서 머물면서 보조 體澄에게 법을 전수하였고, 흥각선사 비가 있다.



平法?, 善覺師, 如於?, 宣司 禮覺師, 節唯乃 同說이다.⁵⁾

선림원 종은 고시산군 인근 대내말과 자초리가 시납한 고종과 당사의 고종인 500정도로 건립하였다. 고종이라는 표현에서 이 절은 804년 이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종을 만들 때, 참여한 인원을 보면 이 절의 규모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화상인 순응은 의상의 제자인 神琳의 제자이다. 혜공왕 2년(766)입당한 인물로, 애장왕의 지원으로 해인사를 창건한 화상이다. 순응이 선림원에서 있었던 이유는 의상과의 관계로 보아진다. 당시 당이나 신라의 불교계의 경향은 화엄종에서 선종의 영향으로 교선일치의 경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화엄종의 승려이면서 선림원에서 선종을 받아들였던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선림원 종의 제작에 참여하였다.⁶⁾

기록을 고찰해 보면 이 시기에 양양을 중심으로 교종에서 선종으로 사상적 경향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신라의 불교가 선림원은 홍각선사 利觀(813-880)이 창건하기 보다는 이곳에 머물면서 중창한 것으로 보인다. 선승이었던 홍각선사는 역성사의 염거화상과 관계를 찾아 볼 수 있다.

순응은 화엄종의 승려이면서 당에 유학하여 의상의 직계제자인 神琳에게 牛頭禪을 익혔다.

홍각은 해인사에서 화엄학을 배우다가 가지산문으로 나가 선승이 되어 선림원에 비문에 세워졌다. 이처럼 신라 하대의 화엄학 중심에서 선종의 세계로의 흐름이 양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선림원의 존재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남아있는 홍각선사탑비(보물 446호), 부도(보물 447호), 석등(보물 445호), 삼층석탑(보물 444호)로 보아 규모와 역사를 인지할 수 있다.

사림사비_부 서쪽 30리 사림사 遺墟地에 있다. 石碑는 김시습이 王羲之體의 글자를 모아 弘覺禪師를 찬한 것이다. 비의 자체가 매우 오래되고 훌륭하여 보물로 삼았는데 중년에 들불로 불에 타게 되었다. 일찍이 남은 돌조각을 府中에 두어 남게 하였다.⁷⁾

(5) 靈穴寺

신라 신문왕 9년(689) 기축에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 조선 숙종 14년(1688)무진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동왕 16년(1690)경오에 절의 중 聚遠이 중건하고 영천사로 개칭하였다.(절 서쪽에 영천이 있다) 고종 18년(1881) 信士 김중욱이 중수하고 다시 영혈사로 이름 하였다.⁸⁾ 원효대사가 창건하였고, 설악산 관모산 아래 위치하고 있다.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원효가 낙산사에 관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와서 창건한 것으로 보인다.

5) 沙林院鍾名,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6) 최치원비문
7) 『관동지』
8) 『강원도지』



(6) 五色石寺

서면 오색리 있었고, 成國寺지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찰에는 朗慧和尚碑文이 보인다. 비문에 의하면 雪山 오색석사로 되어 있다. 조당집권 17에 無染傳⁹⁾에도 기록이 보인다.

성주산문의 낭혜 무염(880-888)은 12세인 헌덕왕 3년(811)에 오색석사에 출가하였고, 스승인 法性선사에게 법문을 배우고 浮石寺의 釋登대덕에게 화엄학을 배웠다. 법당지와 층계난간석, 3층석탑, 석사자, 연화대석, 석탑기단 등이 전해 오고 있다.

교종사찰: 낙산사, 관음굴

선종사찰: 선림원, 진전사, 억성사, 오색석사

활동한 스님: 자장, 의상, 원효, 범일, 도의, 염거, 홍각,

양양의 불교는 처음에는 관음보살의 상주터로 의상의 화엄종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불교의 성지가 되었지만 도의선사 이후 가지산문의 선승들이 선교하여 선종의 성지가 되었다.

2) 화랑도의 순례지와 소나무

요즈음 길의 명칭이 유행하여 해파랑길, 둘레길 등이 있다. 새로 만들어진 신조어 들이다. 동해안의 길 명칭은 양양에서는 순례길로 명 했으면 한다. 신라 화랑도가와 승려들의 국토순례가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화랑도의 교육방법은 1. 道義相磨, 2. 歌樂相悅, 3. 遊娛山水이다.

在昔誰家子	옛날 어느 집안 자제들
三千種碧松	삼천 명이 푸른 소나무를 심었던가
其人骨已朽	그들의 뼈는 이미 썩었건만
松葉尙이容	그 잎은 지금도 푸르네

황장목에서 알 수 있듯이, 양양은 소나무의 고장이다. 이 소나무는 신라 화랑도가 심었다고 기록되어 있

9) 孤雲集 권2 碑

무염 화상 비명병서. 하교를 받들어 짓다. 이하 동일하다.(無染和尚碑銘 並序 奉教撰 下同)

-생략-

마침내 설산(雪山)의 오색석사(五色石寺)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는데, 입은 불경의 약 맛을 보는 데에 정통하였고, 힘은 터진 하늘을 기울(補天)만큼 왕성하였다. 법성 선사(法性禪師)는 일찍이 중국에서 선종(禪宗)인 능가종(楞伽宗)의 문을 두드린 적이 있었는데, 대사가 몇 년 동안 스승으로 모시면서 하나도 빠뜨리는 것이 없이 모두 탐색하였다. 이에 법성이 탄식하면서 “빠른 발로 치달려서 뒤에 떠나 먼저 도착하였다(迅足驟驥 後發前至)는 말을 내가 그대에게서 확인하였으니, 나는 흠족하기만 하다. 나는 이제 그대에게 팔 남은 용기(餘勇可賈)가 없으니, 그대와 같은 사람은 중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하니, 대사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생략-



다. 왜 화랑도가 소나무를 심었을까. 이는 소나무가 화랑정신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을 후대 선비들에 의해 맥을 이어 왔다. 화랑과 선비들의 상징인 이 소나무를 양양의 가로수를 심는다면 백년 후 짙은 양양은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2. 고려시대

1) 安軸(1282-1348)과 향교

안축이 양양향교를 건립하면서 양양발전의 전환점이 되었다. 안축의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양주공관의 시운을 따라서
 이름 있는 길 가는대로 앞길은 기약 없고
 이 누각에 오간지 벌써 두 해다 되었네
 난간 덮은 대 숲에 시원한 기운이 일어나고
 문을 가린 용나무는 푸른 연기 흔드네
 백성 일 두루 보고 내 나라 걱정하니
 헛되이 임금 은혜 저버려 하늘에 부끄럽네
 졸렬한 계책 아직 이로운 길 일으키지 못했으니
 어떻게 하여 계곡의 샘물같이 좋은 생각 연 이으리.¹⁰⁾

존무사로 온지 2년이 지나 양양공관에 머물며 지은 작품으로 환로에서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도모하지 않고, 공관의 누에 올라 심회를 노래하고 있다. 목민관으로서 백성과 나라를 걱정하며 임금의 성은에 보답하고자 양양을 위해 학교¹¹⁾를 세우고 풍속을 아름답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자신의 계획이 졸렬하다며 부족함을 표현하였다.

그러면서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좋은 계책이 나오기를 바라는 자신의 심회를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에서 양양에 향교를 건립하였다.

안축의 양양신학기는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강원도 존무사로 와서 양양에 향교를 세운 것은 양양문화의 전환점이 되었다. 고려시대의 역사적으로 황폐화된 시기이다. 산수가 아름답고 수려하지만 백여 년 동안 재주와 품위 있는 선비가 나왔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이것은 사람들의 성품이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변방이라 변란이 자주 일어나 배움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존무사 안축의 생각은 학교를 세워 인재를

10) 『謹齋全書』



양성하면 집에 재주와 학문 있는 손자가 있고 마을에는 어질고 후한 풍속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이에 양양의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고, 고을마다 미풍양속이 전해오고 있다.

안축의 관동별곡¹²⁾은 정철의 관동별곡보다 200여년 앞선 작품으로 안축의 선양사업 중에 관동별곡도 주목했으면 한다. 왜냐하면 양양을 중심으로 아름답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2) 東海神祠

양양의 동해신묘는 역사성과 정체성을 위해 동해신사로 정정해야 한다. 신묘는 신사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11) 『謹齋全書』

* 『襄陽新學記』

관동은 산수가 기이하고 수려한데 양양이 그 가운데 위치해 있다. 그 빼어난 정기와 맑은 기운이 반드시 헛되이 축적함이 없다. 백여 년 동안에 뛰어난 재주와 덕이 있는 선비가 이 고을에서 나서 인륜을 상서롭게 한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 했다. 이는 산수의 기운이 영험 없어서이지 고을 사람들의 성품이 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개 이 고을은 예부터 국경에 인접하여 변란이 자주 일어났고 학교에서 도를 닦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국토가 통일되어 백성들이 병란을 알지 못 하게 되었으니 성학이 거듭 자제가 날마다 번성하니 마땅히 학교를 세원 인재 양육하여야 할 것인데 이 고을에 부임하는 관리는 오직 문서를 닦는 것을 급하게 여겨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 어찌 고을 사람의 불행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 고을에 와서 옛일을 아는 늙은이에게 들으니 고을 북쪽에 마을이 있어서 文宣王洞이라 하니 틀림없이 옛날 학교가 있었던 터이며 폐허가 되어 오래된 것이라 하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탄식하고, 즉시 고을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곳에 학교를 짓게 하였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여 말하기를 “우리 뜻이다”하고 기쁨으로 수고하는 것도 잊었다. 이에 과거 동기생인 통주수정랑 진군(通州守正郎 陳君)에게 부서(符書)를 보내어 그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공사가 시작되자 고을 수령 정랑 박군이 부임해 왔는데 박군은 또한 글하는 선비 상문의 아들이다. 실상은 그의 힘으로 내 이루었으니 이 어찌 고을 사람들의 다행이 아니겠는가.

대저 땅의 기운이 쇠하여 오래되면 그 왕성 하는 것도 빠르고 축적된 것이 오래되면 발하는 것도 성하나니 이제부터 집에는 재주와 학문이 있는 손자가 있고, 마을에는 어질고 후덕한 풍속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면 산수의 수치를 씻을 수 있다는 내 말이 틀리지 않음을 알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거칠고 소략하여 공사에 빠진 점이 있으니 바라건대 뒤에 오는 군자는 한번 눈 여겨 보아 주기를 바란다.

* 『關東邑誌』

文廟- 부 서쪽 3리에 있다. 大成殿 9간, 東西廡 각 6간, 神門 7간, 奠祀廳 3간, 東西齋 각 4간, 明倫堂 14간, 祭器庫 1간 書籍庫 1간¹⁾

12) 『謹齋全書』「관동별곡」

-생략-

설악산의 동쪽, 낙산의 서쪽에 빼어난 양양의 경치
강선정, 상운정, 남북으로 마주보고 있구나
자주빛 봉황새와 붉은 난새 타고 내려오는 우아한 신선들
아! 붉은 거문고 다투어 타는 광경 그 어떠 합니까
옛 고양땅 술꾼들 객사는 연못가에 늘어서 있으니
아! 사계절 놀아 봅시다.

-생략-

雪嶽東 洛山西 襄陽風景
降仙亭 祥雲亭 南北相望
騎紫鳳 駕紅鸞 佳麗神仙
爲 爭弄朱絃景 幾何如



동해신사는 황해도 풍천의 西海神祠, 전라도 나주의 南海神祠와 함께 우리나라 三海의 海神에게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했던 곳으로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왕이 친히 향과 축을 보내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¹³⁾

元宗元年 陞知襄州事 別號襄山 有東海神祠¹⁴⁾

名山雪嶽 在府西 新羅時爲小祀 東海神祠堂 在府東 春秋降香祝 致祭中祀¹⁵⁾

동해신단: 동쪽 13리에 있다. 고려 때 동해이므로 中祀에 실려 있다. 본조에서도 그대로 따랐다.¹⁶⁾

동해묘: 부 동쪽 10리 바다 가에 있다. 正殿 6간, 신門 3간, 奠祀廳 2간, 東西齋 各 2간, 百川門 1간으로 매년 초에 別祭를 지내고 2월, 8월 常祭를 지낸다. 향과 축은 모두 서울에서 내려온다.¹⁷⁾

동해묘: 부 동쪽 10리 바닷가에 있다. 창건 연월을 기록으로 밝힐 만한 것은 없으나 매 초봄에 별제를 御諱(임금의 이름)로써 친히 향축을 내려 지내는데 일의 형편에 따라서 존중하고 중시 하였다. 여러 산천의 제사의식이 더욱 요원하게 되었다. 별제를 2월과 8월에 하고 또 상제도 있다. 경종 2년(1722) 임인에 부사 채팽윤이 증창하였고, 동해묘와 백천문 등의 편액도 채팽윤의 글씨이다. 지금의 임금 임신년(영조 28년-1752)에 부사 이성억이 또 새로 지었다.¹⁸⁾

동해신사: 군 동쪽에 있다. 봄가을로 향축을 내여 제사 지낸다.¹⁹⁾

동해신사(東海神祠): 봄가을 降香使가 내려와 致祭를 한다.²⁰⁾

오늘은 바다가 생명의 중심으로, 인류의 미래는 바다에 달려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업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협이나 해양관련 정부부처와 함께 해양축제로 발전시켰으면 한다.

高陽酒徒 習家池館
爲 四節 流伊沙伊多

13) 지현병 외, 양양 동해신묘, 강릉대박물관, 1999, P13

14) 『高麗史』 卷58, 志, 第12, 地理3, 翼嶺縣

15) 『世宗實錄』 卷153, 地理志, 襄陽都護府

16) 『新增東國輿地勝覽』

17) 『關東誌』

18) 『峴山誌』

19) 『江原道誌』

20) 『輿載撮要』



3. 조선시대

1) 관음굴 담론

우리 翼祖께서 貞淑王后와 함께 여기에 와서 후사를 점지하도록 기원하였다. 어느 날 밤 꿈에 가사를 걸친 중이 와서 알리기를 반드시 귀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은 善來이다 하였다.²¹⁾ 얼마를 지나서 도조가 태어나니 선래라 이름 하였다.

아들 낳는 신성한 장소로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흥미를 활용하였으면 한다.

2) 양양전통시장

Ⅲ. 복원해야 할 문화유적

1. 梨花亭

삼천 길 설악산에 뭉게뭉게 구름인데
구만 길 동해에선 둥그렇게 달이 솟네
이화정 위의 오늘 가진 이 모임에
한 가락 아양곡은 고인의 마음이어
했고, 또 읊기를,
동쪽 바다 저 멀리 이화정이 있거니
술을 들고 오르자 유흥이 절로 난다
누가 그리 말했던가 낙양의 탐승객이
한때는 수운향을 너무 좋아했노라고

雲垂雪嶽三千丈
月湧東溟九萬尋
今日梨花亭上會
峩洋一曲故人心

梨花亭迴海東傍
杯酒登臨引興長
誰道洛陽探勝客
一時青眼水雲鄉

하고서 나에게 화답을 구했으나 나는 술에 취해 자느라고 화답하지 못하였고 유군만이 화답하였다. 그날 밤 내 잠자리에는 기생들이 곁에 있었다.²²⁾

낙산기유(洛山記遊)로 암 노석(岳老釋)에게 주다

21) 『新增東國輿地勝覽』

22) 『白湖全書』



설악산 높아높아 창공에 꽂혔으니
 일만 옥이 다투어 푸른 놀에 솟았구려
 한줄기 꿈틀거리려 오봉을 지어내니
 바다 위에 금부용이 우뚝이 빼어났네
 영도는 암암리에 보타와 어울려라
 유궁은 예부터 원통이 장엄하이
 용천팔부들이 법종을 베풀니
 백호(白毫)는 빛을 내쳐 동쪽 바다 비추네
 금산의 장로는 부처님의 후신이라
 석장 짚고 여기 와서 이궁을 얻었다네
 백의의 대사가 진상으로 나타나서
 마니 구슬 내려주어 묵은 업장(業障) 없앴다오
 전단이 옥을 바쳐 대가 땅에 솟아나니
 경각 사이 화궁이 구름 밖에 세워졌네
 채색 노을 창에 비쳐 벽에 어린 붉은 색깔
 나는 듯 솟은 누각 뿔뿔이 마주보네
 일곱 겹의 구슬발이 주전을 가리웠고
 세 발 달린 금오가 금방으로 날아들어
 향화에 정근한 지 자그마치 천 년이라
 장엄한 그 공덕 진실로 끝이 없네
 어느 해에 임금께서 자해를 순행했나
 암자마다 연이어 채장을 옮기었네
 임금께서 만월의 용모를 알아보니
 법되는 소리 흘러 공악이 울렸어라
 새는 꽃비 머금어 천의에 떨어지고
 용은 향운을 뱉어 어장을 감쌌다오
 그 향운 그 꽃비가 공중으로 사라지니
 임금 행차 아득아득 물을 곳 없네그려
 산문의 성사가 이보다 더할쏜가
 노승들 이야기 지금도 들려주네
 내가 온 때 바야흐로 팔월달 맑은 가을
 죽장에 짚신 신고 숲 속을 걸어가니

雪嶽之山高插空
 萬玉爭聳青霞中
 蜿蜒一脈作五峯
 海上秀出金芙蓉
 靈圖暗與寶陀合
 幽窟自古莊圓通
 龍天八部設法從
 白毫光照滄溟東
 金山丈老佛後身
 一錫來瞰得異宮
 白衣大士現真相
 投下摩尼除宿障
 旃檀貢玉竹湧地
 頃刻花宮雲外創
 彩霞射牖丹寫壁
 飛樓聳閣森相向
 七重珠網鎖珠殿
 三足金鳥翥金榜
 精勤香火一千年
 功德莊嚴信無量
 何年清蹕慈海巡
 岳竇聯翩移彩仗
 重瞳親識滿月容
 法雷流音空樂響
 鳥銜花雨墮天衣
 龍吐香雲籠御帳
 香雲花雨入空去
 縹緲宸遊問無處
 山門盛事此最雄
 只今猶聞老僧語
 我來正值清秋節
 竹杖芒鞋步林樾



바다에 부는 천풍 산악을 뒤흔들어
 바라보니 놀란 파도 불골에 침노하네
 이화정 가에서 달 뜨기를 기다리니
 옥바퀴 돌아돌아 하늘로 떠오르네
 계수나무 그림자 금계를 뒤덮으니
 일천 바위 변하여 구슬 굴이 되는구만
 선들선들 마치도 바람탄 열자인 듯
 황학의 등에 올라 부구를 붙들고자
 함께 간 풍류승이 티끌 생각 벗어나니
 총채를 휘두르며 선 이야기 싫지 않아
 법라의 혀끝으로 인천을 다 흔드니
 부생이란 주착이 없다는 걸 깨달았네
 사리가 재촉하여 오경종을 두들기니
 새벽녘 동쪽 방에 비단발을 걷는구나
 둘러싼 향기 구름 양곡을 가렸는데
 고래가 화주 끌고 푸른 하늘 날아가네
 문을 닫고 향 피우니 일 만 생각 맑아져서
 부처님 설법하신 미타경을 다 읽었네
 미진을 건너갈 보벌도 빌렸어라
 각로에서 다시 또 금승을 찾아가네
 이 몸은 황홀하게 극락 땅에 와 있는데
 묘오에 어찌 꼭 명성을 봐야 하나
 내 한평생 발걸음 모두 길을 잃었는데
 무슨 일로 하늘이 이 구경 막지 않지
 원컨대 이 몸을 유마에 기탁하여
 우리 스님 짝을 삼아 부처님께 참여하리
 언젠간 벼슬 놓고 행각을 머물리니
 청련의 한 탑자릴 나에게 허해주오²³⁾

天風吹海動雲根
 笑看驚濤侵佛骨
 梨花亭畔待初月
 玉輪輾出琉璃滑
 桂影婆娑遍金界
 千巖變作瓊瑤窟
 冷然似馭列子風
 欲挹浮丘跨黃鶴
 同遊韻釋出塵想
 揮塵談禪也不惡
 人天掉盡法螺舌
 頓覺浮生無住著
 闍梨催打五更鍾
 曉上東房褰綉箔
 繚繞香雲掩陽谷
 鯨引火珠騰碧落
 焚香閉閣萬慮清
 讀盡佛說彌陀經
 迷津已借寶筏渡
 覺路更覓金繩行
 恍然身在極樂土
 妙悟何必看明星
 平生投足總失路
 何事茲遊天不阻
 願將身世寄維摩
 長伴吾師參佛祖
 投簪他日住行脚
 一榻容我青蓮宇

23) 『성소부부고』



절구(絶句)

이설당 가운데 비단 장막 나직한데
석양이 막 화란의 서쪽으로 내려가네
오는 이 없어 문을 닫아 적적도 한데
다만지 산새만이 마음껏 울어대네

梨雪堂中錦幕低
夕陽初下畫欄西
閑門寂寂無人到
只有山禽盡意啼

경함이 십년 만에 선관을 작별하고
삼월이라 명주에서 귀밑머리 희끗희끗
해당화 다 저러 떠나자도 못 떠나니
밤만 되면 꿈은 가서 오봉산을 찾는다오

經函十載別禪關
三月溟洲鬢已斑
落盡海棠行不得
夜來歸夢五峯山

홍농의 재자들은 사화가 풍부하여
갠 날 남전에 고운 놀 일었었지
좋이 서창을 향해 취한 꿈 되새기니
이백(李白)의 큰 붓은 단정코 꽃 피우리

弘農才子富詞華
晴日藍田壁綉霞
好向西窓拚醉夢
謫仙椽筆定生花

단양의 시객이 동파를 배웠어라
은황을 내리쬐아 세상이 다 자랑하네
반산의 두보처럼 바짝 여위려 말고
좋이 규합 좇아 명하나 지어보소

丹陽詩客學東坡
屈注銀潢世共誇
莫似飯山成杜瘦
好從閨閣賦明河

일찍부터 개원의 시격(時格)을 공부하여
사구 지으면 음갱(陰?) 하손(何遜)보다 절묘했지
그 누가 알았으랴 강서사로 타락하여
큰 바다의 고래를 못 끌어올릴 줄을

早向開元着力多
發爲詞句妙陰何
誰知晚墮江西社
未掣鯨魚碧海波

점필재 김공은 두소릉에 가깝건만
백년이라 구학에 등덩굴만 얽히었네
유편의 남은 향기 지금도 싱그러워라
주옥 같은 그 문장 그 누가 계승하리

佔畢金公逼杜陵
百年丘壑蔓寒藤
遺篇賸馥今追巧
玉佩瓊琚嗣未能

손곡은 시를 읊어 머리가 희었어라

蓀谷吟詩到白頭



백편의 시 화려함이 수주에 가깝다오	百篇禮麗近隨州
지금 사람 육안으로 아무리 비웃지만	今人肉眼雖嗤點
만고에 흐르는 저 강하를 어찌 폐하랴	豈廢江河萬古流

비로가 북으로 가 양양을 배알하니	毗盧北去謁襄陽
말 달림 도리어 술취한 갈강 같네	馳馬還同醉葛疆
응당 이화정 달을 구경하면서	應踏梨花亭畔月
한바다를 웅달샘처럼 바라보며 잔을 들리 ²⁴⁾	杯看碧海倒瓊腸

양양은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으로 시인묵객들이 낙산사의 의상대보다 이화정을 찾아 자신들의 심회를 표현했던 역사적 장소로 존중해야 한다. 복원이 된다면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2.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관아(官衙)

조선조 太祖 6년(1397)에 임금의 외가 고을이라 하여 승격하여 府로 하였으며 太宗 13년(1413)에 예에 따라 都護府로 하였고, 태종 16년(1416)에 지금의 명칭인 襄陽으로 고쳤다.

이 기록에 의하면, 2016년 음력 8월 10일(양력 9월 1일)은 定名 600주년이다. 定名 600주년에 즈음하여 양양도호부 관아가 재건된다면, 안축의 향교건립처럼 양양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양양도호부 관아 건물은 동서남북에 문이 있고, 門樓가 자연과 어울리는 풍경이고, 문루의 이름 또한 문학 작품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성안에는 연못이 있고 연못 가운데 정자가 있었다.

도호부 관아 복원을 통해 영북지역 전통문화 중심도시인 양양의 역사성을 복원하여 문화적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양양은 오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신라시대 양양은 불교의 성지이고 화랑들의 중심수련장이었고, 고려 목종 10년(1007) 10월에 348간의 성(城)을 축조하고 성문 4개를 설치하였다.²⁵⁾

기록²⁶⁾과 구전에 의하면 양주성 축성을 계기로 성내(城內)에서 성황신을 봉안하여 단오제의 주신으로 모신 전통이 그대로 복원되어 지금의 양양현산문화제로 이어오고 있다.

24) 『성소부부고』2

25) 『고려사』권82 표36 병2 성보조

26) 『고려사』, 『고려사절요』



『관동지(關東誌)』 공해조(公廡-공관)에 의하면,

객사(客舍) 35간, 아사(衙舍) 108간, 향청(鄉廳) 10간, 훈련청(訓練廳) 14간, 군기청(軍器廳) 10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군보(軍保)조 의하면, 기병(騎兵) 454명, 어영군(御營軍) 19명, 금위군보(禁衛軍保) 37명, 자보(資保) 21명, 훈련도감 포수보(訓練都監砲手保) 188명, 별파진(別破陳) 5명, 악공보(樂工保) 18명, 악생보(樂生保) 6명, 전설보(典設保) 36명, 무학(武學) 13명, 아병(牙兵) 63명, 속오군(束伍軍) 309명으로 그 규모를 인지할 수 있다.

양양관아의 건물에 관한 기록은 『현산지(峴山誌)』 공해(公廡-공관)조에 명칭과 위치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부성_들로 쌓은 곳은 둘레가 403척, 토성은 둘레가 2825척으로 성안에는 우물에 2곳이 있다. 지금 성벽은 대부분이 무너져 버렸고 다만 동, 남, 서문만 남아있다.²⁷⁾

양양읍성 둘레 2724척은 본부와 원주인 군인 1475명으로써 역사하게 하다.²⁸⁾

1) 청연당(淸燕堂): 내동헌(內東軒, 동헌은 지방관아에서 수령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청사)이다. 영조 6년(1736) 부사 김중희가 창건하고 “사우(四雨)”라고 하였으나 영조 32년(1756) 병자에 부사 임희교가 “청연(淸燕)”으로 개칭하였다.

2) 와유헌(臥遊軒): 외동헌(外東軒)이다. 영조 6년(1730)에 부사 권부가 창건하였다.

3) 양양관(襄陽館): 객사(客舍)이다. 영조 30년(1756)에 부사 이성익이 창건하였다.

4) 태평루(太平樓): 객관(客官)의 문루(門樓)이다. 원나라 인종 연우 2년(1315)에 창건되었고 세종 21년(1439)에 송목이 재건하였다. 중종 32년(1537)에 윤사임, 정광정이 계속 수리하였다. 효종 9년(1658)에 이인이 기둥을 세웠고 한진이 상량하였다. 인조 18년(1640)에 이현이 중창하였는데 넓고 화려한 것이 이곳에서 첫째였다. 정조 21년(1797) 2월에 부사 윤헌주가 중수하였다. 다락 안팎 모두에는 태평루 3대자(大字)가 있는데, 내부 동편의 글씨는 송문정공 우암 송시열(宋時烈)의 필적이고 외부 서편의 글씨는 안평대군의 글씨이다. 고려조의 문장가인 가정(稼亭) 이곡(李穀, 충렬왕 24년, 1298-충정왕 3년, 1352)은 고려시대 양주(양양의 옛이름) 관아에서 태평루에 관한 시를 남겼다.

5) 한수루(漢水樓): 동쪽 성문이다. 숙종 26년(1700) 경진에 부사 남치훈이 창건하였고, 문루의 현판은 채팽윤이 썼다.

6) 현산정(峴山亭): 남쪽 성문이다. 숙종 26년(1700)에 부사 남치훈이 창건하였다. 영조 24년(1748)에 부사 박필정이 다시 창건하였는데 정자의 현판은 채팽윤의 글씨이다.

27)『관동지』

28)『문종실록』권10, 1년(1451)11월 28일



7) 애련정(愛蓮亭): 와유현의 앞쪽 연못 가운데 있다. 영조 24년(1748)에 부사 박필정이 창건하였다.

8) 통원루(通遠樓): 객관 동쪽 채원(蔡園) 언덕위에 있다. 남대천을 굽어보고 앞에는 무산을 대하고 있으며 멀리까지 보인다. 부사 이맹우가 중수하다가 암사한 사람이 많아 대간(臺諫)의 계문으로 관직에서 파직되었다.

9) 남호당(納灝堂): 객관 동쪽에 있다. 부사 홍찬이 창건하였다.

10) 향사당(鄉射堂): 성 서쪽에 있다. 좌수(座首)는 鄉人으로서 풍력이 있는 자를 임명하였는데 유생으로서 科業을 폐하지 않은 자로 과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망(差望)하였다. 영조 32년(1756) 부사 임희교의 권금록 작성시 정식이 되었다.

11) 군기고(軍器庫): 객관 남쪽에 있다. 감관(監官)은 2인이다.

12) 훈련청(訓練廳): 객관 서쪽에 있다. 파총(把總)은 1인이다.

13) 군청(軍廳): 객관 서쪽에 있다. 여수(旅帥)는 1인이다.

14) 취산루(醉山樓): 부의 문밖에 있다. 영조 31년(1755)에 부사 이성익이 창건하였다.

15) 교야청(校衙廳): 부의 문밖에 있다. 영조 33년(1757)에 부사 임희교가 창건하였다. 행수(行首) 군관 1인, 번군관 40인이다.

16) 상정청(詳定廳): 부의 문 밖에 있다. 영조 12년(1736)에 부사 김중희가 창건하였는데 옛 이름은 대동청(大同廳)이었다. 이상의 양양도호부 관아건물의 그림이 양양읍지도(고종 9년, 1872 작자미상)에 비교적 자세히 그려 있고, 관동지, 관동읍지, 그리고 해동지도에 그 윤곽을 알 수 있다. 양양도호부는 풍광 좋은 곳에 자리하며 동·서·남·북 성위의 문루에 누각이 있고, 양양성내에는 170여 간의 관아건물 있었고, 성내에 연못이 있고 연못 가운데 정자가 있어 그 규모와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 이곳을 지나는 관리나 시인묵객들이 양양관아에서 머무르며 관아의 아름다움을 시로 표현한 수백편의 시가 지금도 전해오고 있다.

양양도호부 복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소외된 지역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의 차원에서 양양도호부 관아건물이 복원되어야 한다.

(2) 도호부 복원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배후 도시로서, 우리의 아름답고 우수한 문화를 복원하여 체험을 통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다.

(3)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양양도호부의 건물을 복원하여 남북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이 밑거름이 될 수 있다.



IV. 연암 박지원과 연계하는 문화콘텐츠 활성화

그동안 양양의 도시브랜드 창출은 훌륭한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송이와 연어 같은 지역특산물 위주의 마케팅에 치중하였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창의력, 상상력 등 창조자산을 바탕으로 소득 증대와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지 못한 방법이다.

2차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양양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문화콘텐츠 활용과 이에 따른 부가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양양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적 유적을 갖고 있고, 연암 박지원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전통문화콘텐츠사업의 선진모델을 개발 제공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역사문화적 유적을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현대적으로 재창조하고, 양양도호부나 이화정의 역사적 복원을 이루는 하드웨어 개선을 하게 된다면, 양양은 영북 지역 최고의 역사도시로서 문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연암 박지원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양양의 새로운 문화이벤트로 "연암 박지원과 떠나는 양양풍류 페스티벌" 등도 가능하다. 이 페스티벌은 양양의 경관을 극찬한 연암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양양의 역사문화유적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축제가 될 것이다. 축제의 개념은 전통과 미래가 하나 되는 방향으로 잡으면서, 양양의 역사유적지를 기준으로 하는 장소 마케팅이 될 것이다. 권역별로 유적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역사 이벤트 재현행사, 문화적 가치를 상징화 할 수 있는 이벤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공연으로 구성하면 된다.

다만, 축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향후 보다 구체적인 제안의 자리가 나오길 바란다.

IV. 結論

미래는 문화의 시대이다. 문화가 경제의 중심이 되어,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에 중요한 것은 문화적 전통으로, 문화적 전통은 물려받으면서 동시에 창조하는 것이다.

문화가 경제인 시대에, 우수한 문화를 물려받은 양양은,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우리의 기억과 삶과 생활 속에서 함부로 굴러다니는 소중한 문화라는 구슬을 쫓 수 없다면 양양의 미래는 사라져 버린 낙산사의 여의주가 될 것이다.

우수한 문화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라져 버린 문화유적을 복원하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수한 문화와 유적은 양양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택리지』, 『문종실록』, 『성소부부고』
『고려사』, 『관동지』, 『강원도지』
『고려사절요』, 『백호전서』, 『세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관동읍지』, 『현산지』, 『조당집』
『근재전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최치원비문』,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고운집』, 『여재촬요』
『양양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양양 동해신묘』

「연암 박지원 문화콘텐츠 조명 심포지엄 토론문

주영아 (한양대)

아름다운 양양에서 18세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의 삶과 문학, 사상을 바탕으로 양양군의 역사문화콘텐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마련하시고, 이 자리에 토론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연암은 조선의 문화가 가장 융성했던 시기인 18세기를 살았던 인물이고, 청나라의 문화에 대한 무조건적 배척보다는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자 했던 인물이다. 연암은 유학을 실학으로 수용하였으며, 옛 것을 바탕으로 새 것을 만들고자 하는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유자의 삶을 살았다. 연암의 태도는 새로움에 대한 갈증을 옛 것의 탐구에서 풀었고, 옛 것에 대한 정체(停滯)는 관점을 달리하여 현재의 것으로 재해석하는 시도에서 새롭게 했다. 이는 필자가 언급한 이용후생, 생생법칙, 법고창신의 것과 어느 정도 상통한다. 더 나아가 21세기 지역사회가 추구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우리는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대도시 중심의 편향적 행정에서 각 지방의 독자적이며 자립적 행정이 가능해졌다. 기존의 중앙집권제도의 획일적인 행정 및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 독창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일면에서는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서 간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 시점에서 지역사회에서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립이 선행되어야 했고, 우리는 이제 그 일환으로 우리 지역만이 갖는 문화콘텐츠를 찾아야 한다. 문화콘텐츠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구한 양양의 역사 속에서 양양의 본모습을 찾는 것이 실제적이고 감각적인 모습일 것이다.

일찍이 양양부사 박지원의 양양 찬사만큼이나 양양의 풍광에 찬탄한 기록이 있다. 『신증 동국여지승람』 제 44권에 따르면 강혼(姜渾, 1464~1519)은 다음과 같이 양양을 기리고 있다.

“양양에 와서 고인(故人)의 어짐을 추억하니, 눈 남은 봉우리가 처마에 비치네. 맹호연(孟浩然)¹⁾은 공연히 나귀 등에서 시구(詩句)를 읊조렸고, 산공(山公)²⁾은 습지(習池) 연석(筵席)에 꺾석(欠席)했네. 마침 밝은 달을

1) 맹호연(689~740): 중국 당나라 때 시인



만나 누대가 고요하니, 젊은 여자의 고운 태도가 필요 없노라. 이번 걸음에 정과 흥이 박했다고 이르지 말라. 마땅히 다른 날에 다시 신선을 찾겠노라.” 하였다.

이처럼 양양에 대한 선조들의 감탄은 모두 자연경관의 빼어남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곧 양양이며, 자연 자체만으로도 양양의 자긍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암이 산하의 경치 값으로 만 냥을 책정할 만하지 않았겠는가.

* 경관자산론과 경관녹봉론을 고려한 제언

1. 양양에서의 가장 뚜렷한 표식이 되는 목민관으로서 연암의 행적인 황장목 사용 에피소드를 이용하여 황장목 소나무 길을 조성한다. “울진 금강소나무길”과 같이 “양양 연암 황장목(소나무)길”로 명명한다. 양양의 명소와 연계하여 거리를 조성해도 좋을 것이다.
2. 연암은 조선 성리학자들이 관념적으로 익힌 오행상생설(五行相生說)을 비판하고, 오행을 이용후생과 연결시켜 수(물), 화(불), 목(나무), 금(쇠), 토(흙)를 이용후생의 도구를 쓰이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조선의 산하에서 적절하게 이들을 도구로 이용하자는 것이다. 연암의 오행상생설을 바탕으로 양양에 맞는 오행의 쓰임을 찾아 문화로 키워야 한다. 예를 들어 양양은 동쪽으로 바다가 있고, 지형은 높낮이가 있어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 천연의 물과 나무의 쓰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양양군민의 생산성을 바탕으로 불을 이용하여 쇠, 흙을 재료로 기념품을 만든다거나 타지역과 변별적인 생산품을 만들어 양양의 가치를 만들어 낸다면 목민관 연암만큼 충분히 우리의 삶을 도맡게 할 수 있을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3. 어쨌든 연암은 우리에게 사상보다는 문학에서 더 밀접하다. 특히 연암의 소품문은 자연과 사물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진 뒤에 쓰인 작품들이다. 이를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생태 문화로 접목하여 양양의 자연생태를 어필한다면 연암의 생태문화와 양양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4. 양양도호부 관아의 재현이나 재건보다는 양양도호부 관아 터의 의미를 갖는 곳에 기념비나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양양도호부 관아 터임을 알리는 정도로 해야 한다. 도호부는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지방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군수로 통일되어 공식적으로 폐기된 행정조직이다. 최근에 인천도호부 관아가 재현되

2) 산공: 중국 진(晉)나라 때 산간(山簡)이라는 사람이 양양에 살았는데, 매일 습가지(習家池)라는 연못가에서 술을 마셔서 크게 취해 있었다 한다. 여기에 먼저 말한 맹호연과 산간은 모두 중국 호북성 양양 사람이므로 이곳 양양의 이름이 같은 것을 이용하여 그런 고사를 쓴 것이다. 산공은 죽림칠현 중 한 사람인 산도(山濤)의 아들이다.



어 관람객을 모으기는 하였으나 양양도호부 관아를 재현하는 문제는 다음 기회에 좀 더 논의를 거쳐야 할 듯하다.

*** 논문에서 소략하게나마 한 가지 언급하자면**

1쪽 두 번째 단락에서 “그 후 64세 되던 1800년 8월 18일 역시 음직으로는 처음으로 양양부사를 제수 받는다. 양양부사를 제수받고 임지로 부임한 후 9월 29일 정조가 승하하시자, 오지 말라는 문상을 했다가 의금부에 가서 처벌을 받는다. 이후 양양에서 관아의 어려운 살림을 추스르며 많은 곤혹을 치르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 기록은 사실과 다르다. 연암이 1800년 8월 18일 양양부사로 가기 전인 같은 해 6월 28일이 정조의 승하가 있었다. 이 글은 김동석의 「박지원의 양양부사 활동과 작품세계」(강원도민일보, 2012)를 참고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역주 과정록』(김윤조 역, pp.174)에도 “경신년 6월, 정조가 승하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끝으로 <연암 박지원 문화콘텐츠 조명> 심포지엄을 위해 「연암 박지원과 양양의 역사문화유적지 연계방안」과 「연암 박지원과 양양군 스토리텔링」을 준비해 주신 두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 다른 지역 축제**

- 경기도 남양주 다산문화제(9월)
 - 전남 곡성 심청효문화대축제(10월)
 - 전남 장성 홍길동축제(5월)
 - 충남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10월)
 - 충남 아산 외암읍성 민속마을 짚풀문화제(10월)
 - 전북 남원 춘향제(6월) 경기도 고양 송강정철문화제(5월)
 - 경남 진주 남강 유등축제(10월)
- 서울시 강서구에는 겸재 정선의 미술관과 허준 박물관이 있다.
 낙안읍성 민속마을, 아산, 제주도 성읍 등등의 민속마을도 지역민의 노력으로 일궈낸 성과들이다.

열하에서 양양까지

이근세 (국민대학교)

정조대왕의 승하와 맞물린 조선후기의 복합적 상황에서 양양부사로서 노년을 보낸 ‘연암 박지원 문화콘텐츠 조명’ 심포지엄은 여러 이유로 의미가 깊습니다. 연암이 양양부사로 제수 받은 1800년은 정조대왕이 명을 달리한 해로서 이후 신유박해(1801)를 기점으로 조선의 국운이 급격히 쇠퇴하게 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제가 신유박해를 언급하는 이유는 ‘연암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양양의 주요 ‘문화콘텐츠’가 되려면 매우 포괄적인 시각에서 우리 역사와 강원도를 조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6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명청 왕조에 걸쳐 중국에서 활동하던 유럽선교사들에게 천주교 금지령이 내려지는 시점에 조선에서는 서학(西學)이라는 신문화가 ‘종교’의 위상으로서 수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1801년의 신유박해(순조 1년), 기해박해(1839년, 헌종 5년) 병인박해(1866년, 고종 3년) 등을 거치면서 수많은 신자의 처형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서학의 수용은 연암을 포함한 진보적 지식인들의 고민이자 과제였고 거시적으로는 16세기부터 시작된 거대한 동서문명 교류의 중요한 단초였습니다. 제가 천주교 수용과정을 예로 든 것은 강원도가 너무도 쉽게 “주변”으로만 인식되거나, 거꾸로 다소 억지스럽게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연암을 통해 양양의 문화콘텐츠를 활성화하고자 할 방법론의 모색에 유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성을 논할 때 피해야 할 두 가지 암초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중심과 주변의 관계와 관련됩니다. 한편으로 강원도는 너무도 자주 강원도에 따라붙는 “후진”, “낙후”, “소외”, “주변”, “빈곤” 등의 규정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강원도에 대한 온전한 지역 연구와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진과 후진, 중심과 주변, 자아와 타자, 문명과 야만 등 자타의 관계에서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암초입니다. 이와 반대로 지역을 중앙에 대한 저항의 주체로만 바라본다면, 즉 대립성의 구도로 중심과 주변을 고찰한다면, 중앙패권주의에 대항하는 또다른 지방패권주의를 낳을 위험이 있습니다.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환원주의적 규정은 특수성에 대한 과도한 강조, 감상적 접근, 피상적인 상품화 등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지역 연구와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심부와의 차이를 강조하



되 우열의 관점에서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간에 부재한 것을 드러냄으로써 중심과 주변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시 강원도 천주교 수용 역사를 잠깐 언급하는 것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 천주교의 뿌리는 신유박해로 인한 신자들의 도피입니다. 신자들이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강원도로 이주해왔던 것입니다. 일견 도피를 통하여 형성된 강원 지역의 천주교 문화는 “주변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강원 천주교가 풍수원·용소막 성당 등으로 안정화된 과정은 중심부의 전면적 갈등이 제도화를 통해 해소된 역사입니다. 달리 말하면 강원 지역은 단지 외피나 주변으로서 전체에 참여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 체계가 그 안을 관통하는 ‘전체적 부분’(total part)입니다. 나아가 거시적으로 볼 때 천주교 수용 역사는 16세기부터 구체화된 동양과 서양의 접촉과 맞물린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할 때, 강원 지역은 동서문명의 접점을 바라보는 통로입니다.

‘동서문명의 소통’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연암과 양양을 연결시킬 때 스토리텔링 및 문화콘텐츠 활성화 작업이 무게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듯이 연암이 1780년대 <열하일기>를 저술할 당시 청나라는 이미 서양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교류 및 갈등을 겪은 상태였고 조선의 많은 지식인들은 청나라 사절과 서적 및 물품을 통해 서양문화를 접했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정조 승하 직후 신유박해가 발생한 1801년까지가 우리 지식인들이 가장 주체적으로 서구문명을 소화하던 시기일 것입니다. 연암은 18세기의 가장 독창적이고 개방적인 인물로서 동서문명의 융합 가능성과 필연성을 직시했습니다. 1803년 중풍이 들고 1805년 세상을 떠난 연암의 말년을 고려할 때, 그의 진정한 종착지는 양양이었습니다. 이학주 교수님께서 적절히 강조하셨듯이 “연암이 양양부사를 지내던 시절은 연암의 학문과 경륜이 절정에 달하던 시절”입니다. 연암과 양양의 인연은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이지만 이에 대한 의미 부여는 후대의 몫입니다. ‘조선통신사’와 본질적 관계가 있다고 말하기는 힘든 경상북도 영천이 올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조선통신사와 영천’을 매개로 대규모 문화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조선통신사 행로를 유네스코 역사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준비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연암과 양양의 관련성은 조선통신사와 영천의 관련성보다 월등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 글의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연암 박지원의 양양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하여 제가 제안하는 것은 “열하에서 양양까지”라는 거시적 테마입니다. <열하일기>가 없는 박지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순(耳順)의 연암이 생을 정리한 곳인 양양을 종착점으로 설정하고 ‘열하’의 박지원에서 출발하는 스토리텔링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하와 양양을 적극적으로 연결짓고 거시적 관점에서 문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업을 수행하려면 잠깐 언급했던 ‘지방패권주의’ 같은 폐쇄성을 탈피해야 합니다. 연암을 양양에 간헐 있게 하기보다는 연암을 통해 양양을 안의로, 먼천으로, 서울로, 청나라로, 세계로 개방시킬 때 양양지역 문화콘텐츠의 의미 있는 실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암 박지원 문화콘텐츠 조명’ 토론문

엄찬호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한국연구교수)

오늘 우리 사회는 그동안 자본주의의 기형적 발전, 장기간의 군부독재정권에 따른 파행적 정치운영, 지역에 기반한 정치세력의 형성 등으로 말미암아 지역문제가 사회적 갈등 요인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경제의 불균형 발전, 지역의식의 심화, 지역간 갈등, 지역패권주의 등은 지역문제의 구체적 표현들이다. 근래에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지역문제를 역사적 접근방법을 통해 진단하고 해결해보려는 노력의 하나일 것이다. 더욱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국가와 국가간의 교섭이 점차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도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여기에 삶의 터전인 자신의 고향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이 더해지면서 지역문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

지역사회는 그 영역에의 소속감과 공동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인간집단이라는 점에서 일정하게 지역에 대한 일체감과 지역의식을 만들어내며, 이것이 지역이데올로기화 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반드시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역사적 경험과 민의 삶의 방식에 따라 독특한 문화를 지니기도 한다. 물론 지역의식이나 지역문화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배타성을 드러낼 때 지역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지역문화의 자원은 이제 과거와 같은 자기 정체성과 동질성 확보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그 문화적 특성과 이미지가 바로 ‘상품’이 되고 ‘경쟁력’이 되며 ‘살아남는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지역문화의 자원은 ‘지역의 문화적 동질성, 공동체 연대의식(결속력) 강화의 기반’이라는 고유의 의미에 더하여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사회의 경쟁력 확보 수단, 효과적인 지역문화 및 관광자원 등으로 다용도로 혹은 전략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각 지역마다 지역축제가 유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역축제를 예로 들어보자.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축제가 아무리 현실적·정책적·경제적 요청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지역적인 공감대’와 ‘지역민의 동질성 확보’라는 대전제 즉,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재인식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일회적인 재현’과 전통의 내면적 계



승이 아닌 ‘외형만의 재구조화’로 그칠 가능성이 많다.

‘景觀祿俸論’은 분명 양양의 큰 자연자원이다. 자연자원은 훼손없이 보존만 하여도 이를 찾는 관광수요는 적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으로 포장하고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양양만이 지니고 있는 문화와 생태, 그리고 삶의 현장들이 문화자원의 콘텐츠로 개발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해당지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업활동의 체험현장을 개발한다든가, 해당 지역만의 민속문화 이벤트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민의 문화와 삶을 외지인들에게 자신있게 소개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해당 지역민들의 풋풋한 인심과 토속적인 음식문화, 놀이와 이야기들이 어우러진다면 차별성과 경쟁성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연암관련 역사문화콘텐츠도 다양하게 추진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박지원기념비’가 건립되었고, 문화공간사업으로 연암문화관, 문예창작마을, 놀이마당이 조성될 계획이고, 기념사업으로 ‘연암길’ 조성사업이 있으며, 콘텐츠사업으로 연암문화축제, 창극&판소리공연, 정기적인 학술대회 개최 등이 마련되어 연차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오늘 발표한 이학주 선생님의 ‘마을관광박물관’ 개념을 도입한 ‘연암테마거리’ 조성이나 양언석 선생님의 ‘연암 박지원과 떠나는 풍류페스티벌’도 그러한 일련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지역성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와 연암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가 문제일 것 같다.

2014년 10월 20일부터 함양군에서는 ‘연암 박지원과 함께하는 전통장 담그기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것은 연암이 안의현감을 지낼 당시 "고추장을 작은 단지로 하나 보낸다. 사랑에 놓아두고 밥 먹을 때마다 먹으면 좋겠다. 이것은 내가 손수 담근 것인데, 아직 잘 익지는 않았다!"라고 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연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암과 양양의 실제적인 관련성을 찾아 콘텐츠화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고 군민들의 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지역문화의 콘텐츠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역문화는 지역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연암을 통해 양양의 지역성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연암이 양양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의 정체성이 결여된 문화콘텐츠는 지역민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없고, 지역문화로 정착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 지역의 문화적인 연계성이 분명한 요소를 찾아내어 그것을 잘 활용하고 스토리텔링화하여 콘텐츠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암 박지원 문화콘텐츠 조명 토론문

엄현섭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1. 이용후생과 연암 박지원

연암은 위대한 문학가일 뿐만 아니라 걸출한 실학자이다. 그리고 실학자로서의 연암사상의 핵심은 이용후생(利用厚生)을 바탕으로 한 북학론(北學論)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시 조선은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기 위해 청(淸)을 정벌하자는 북벌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당시에 이미 망한 명을 존송하는 시대착오적인 사고가 깔려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청을 ‘정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을 ‘배우자’고 주장한 연암은 매우 진보적이고 용감한 학자이다. 이러한 북학론은 『열하일기』에 집중적으로 개진되어 있다. 연암이 중국에서 본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발달한 문명이었다. 압록강을 건너 첫발을 디딘 곳이 책문(柵門)이었는데 작은 고을임에도 수준높은 문물을 접한 후 그는 ‘홀연히 기가 꺾여 문득 여기서 바로 되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 온몸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열하일기』1권 61면)고 했다. 책문의 어느 술집에서 그는 이렇게 묘사했다.

점포를 둘러보니 모든 것이 단정하고 반듯하게 진열되어 있고, 한가지도 구차하거나 미봉으로 한 법이 없고, 한가지 물건도 빼돌고 난잡한 모양이 없다. 비록 외양간, 돼지우리라도 널찍하고 곧아서 법도가 있지 않은 것이 없고, 장작더미나 거름구덩이까지도 모두 정밀하고 고와서 마치 그림과 같았다. 아하! 제도가 이렇게 된 뒤라야만 비로소 이용(利用)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용을 한 연후라야 후생(厚生)을 할 수 있고, 후행을 한 연후라야 정덕(正德)을 할 수 있겠다.(『열하일기』1권 69면)

이 책문의 술집에서 연암사상의 핵이라 할 이용후생학(利用厚生學)의 뼈대가 구축되고 있었던 것이다. 『열하일기』는 북쪽에 있는 청나라의 발달한 문물을 배워 우리도 부강한 나라가 되자는 북국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용후생학과는 다분히 문인적 기질을 소유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그들 사이는 사제관계의 엄숙함을 차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의 만남에 연암그룹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박지원을 중심으로 어울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근본적 개혁을 구상하면서도 혁명을 고려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나아가려는 의식의 밑바탕에는 체제변혁을 바라지 않는 생각이 잠재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진적 방향과 부국유민(富國裕民)을 중요시한 사고는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암의 경제사상으로는 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이용의 논리, 화폐에 관한 이론 등이 주목되었다. 또한 상인의 이익추구 속성이 자체의 자율적 조절기능으로 국민민복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생각이 깃들여 있다. 특히 연암은 상업의 매개적 역할에 의해 농업이 발전하고 공업이 개발되는 사회경제의 상(像)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이러한 것은 비록 단편적이거나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요소가 담겨있다.

2. 양양과 연암의 삶

연암의 가계는 '삼한갑족'으로 일컬어지는 명문에 속하였다. 그러나 벼슬길로 나서지 않고 있다가 50이 넘어서야 음직(蔭職)으로 경상도 안의현감, 충청도 면천 군수를 거쳐 마지막에 강원도 양양(襄陽)로 부임했다가 그만두었다. 명문 출신에다 그 능력을 드날렸던 연암에 있어서는 조금은 초라한 모양새였다. 그러나 연암의 아들이 부친의 인간적인 면모를 기록한 『과정록(過庭錄)』에서 일화를 본다면 다음과 같다.

그 때(연암의 젊은 시절) 아버지께서 이미 문장으로 이름이 온 세상에 울리셨다. 매양 과거시험을 보이는 때면 시험을 주관하는 분이 으레 아버지를 끌어넣으려 하였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런 눈치를 채고는 응시하지 않기도 하고 응시했다가 시권(詩卷)을 제출하지 않기도 하였다. 한번은 장옥(場屋)에 가서는 고송노석도 한 폭을 그리고 나와서 이 소할한 일이 우스운 이야기로 세상에 옮겨졌다. 대개 가벼이 보는 뜻을 보인 것이다.

연암 같은 인재를 얻으면 시관으로서도 자신의 공이 될 뿐 아니라 유력한 인물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다. 그래서 시관은 연암을 자기가 주관하는 시험에 꼭 합격시키고자 하는데 오히려 연암이 회피를 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양반전>을 보면 알 수 있다. <양반전>에서 '독서하는 사람을 사(士)라 일컫고 국정에 종사하면 대부(大夫)라 한다'고 규정하였듯이 양반은 응당 벼슬을 해야 한다. 벼슬을 하고자 한다면 과거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과거급제는 최고의 영예로 치던 것이었다. 앞서 일화에서 연암이 벼슬길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까닭은 조선 후기 과거제도의 문란 속에서 같이 섞이기 싫었던 그의 자존심의 표현인 것이다. 왕조의 정치권력 속으로 아귀다툼하듯 들어가면 필시 아무런 일도 못하고 기껏 헛 영광만 남아내게 될 것임이 뻔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가 50세를 넘어서 고을살이로 전전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첫째 생계의 궁핍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이록대경(以祿代耕: 농사를 짓는 대신 녹봉으로 살아간다)이 오직 생계의 수단이었던 서울의 사



환가, 연암택의 형편은 청빈을 지나서 끼니 잇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연암의 인격으로 미루어 일이 정당하지 못하면 굶어죽어도 굶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봉건적 분권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지방 수령의 위치는 비교적 독자성이 주어져 어느 정도 자기의 소신껏 일을 해볼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양반전>의 주인공 허생은 사(士)의 전형이다. 연암은 자신을 ‘사’로 각성한 주체적 삶의 자세를 통해서 문학과 학문으로 위대한 정신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

3. 연암콘텐츠 심화

1) 양양(襄陽)과 연암콘텐츠

양양(襄陽)과 연암콘텐츠를 연계하는 방안은 다각도로 나오고 있다. 이학주 선생께서 발표했던 자료를 통해 본다면 『양양부사 녹봉은 일만이천냥이라네』(정호완, 2012), 에서 양반전의 아리랑화, 연암문학의 창극화, 연암문학의 마당놀이, 양반전의 실현장르 개발, 양반전과 호질의 융합 콘텐츠풍자개그, 연암문화축제, 연암문학의 판소리공연, 연암문화체험, 연암문예창작마을,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한 한-중 문화교류 등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자신만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 연암의 문화콘텐츠화를 주장한 것이지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연암콘텐츠 자체가 유지해 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멀티유즈(Multi Use)라 해서 아무것이나 갖다 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연암콘텐츠가 갖고 있는 원소스(One Source)인 한문단편¹⁾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양양(襄陽)과 연암콘텐츠를 연계하는 방향에서 양양이 갖고 있는 강점이자 약점은 부사를 역임했다는 것이다. 이학주 선생님의 발표문에 있듯이 <황장목 사건>으로 연암은 미련 없이 관직을 그만두었다. 아전들과 승려의 횡포를 문제 삼은 사실을 강원도 감사가 그냥 넘어 간 것은 연암의 입장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연암이 양양부사를 역임한 역사적 사실에 수궁하면서 그의 실학사상과 문학을 연계한다면 양양에 새로운 이미지²⁾가 부여될 것이다.

2) 일본의 실학과 양상³⁾

-
- 1) 현존하는 박지원의 한문소설은 모두 10편이다. 방경각외전에 7편(광문자전, 예덕선생전, 민옹전, 양반전, 김신선전, 마장전, 우상전), 열하일기에 2편(질, 옥갑야화(허생전 포함)), 그리고 안의 현감을 하고 있을 때 쓴 1편(열녀함양박씨전 병서)이다.
 - 2) 본 토론문은 발제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발표의 기회가 생긴다면 콘텐츠 기획의 관점에서 고구(考究)하고자 한다.
 - 3) 이 부분도 토론자로서 일본의 상황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향후 일본에서 행하고 있는 일본 실학자들의 콘텐츠 양상에 대해 좀더 살펴본다면 양양과 연암콘텐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국민은 특유의 경제관이 있다. 신의(信義)와 실익에 무게중심을 두는 경제사상이 그것이다. 일본 막부시대에 이런 경제사상으로 똘똘 뭉친 신분계층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일본만의 독특한 신분계층인 죠닝(町人, 상인) 문화다. 죠닝은 근세 이후에 형성되고 발달된 상공업자 위주의 부유계층이다. 힘이 강한 자가 이긴다는 철저한 실리 위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부류이다. 도시에 사는 상공업자인 죠닝의 상업적 문화와 경제에 대한 사고와 태도는 당시 지식인들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일본 특유의 죠닝 문화가 실학사상의 형성과 급격한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도 사실이다. 죠닝의 역할은 경제를 넘어 문화까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도쿠가와 시대에는 농업기술, 의학, 건축기술 등 분야에서 죠닝의 역할이 컸으며, 문학과 연극문화까지 진출했다. 일본의 대표적 고전 연극인 가부키(歌舞伎)도 죠닝들에 의해 유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 이런 죠닝파위가 자리잡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실학사상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1666~1728)이다.

소라이의 사상을 국내에 알린 저작으로는 일본 정치사상가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노작 <일본 정치사상사 연구>가 먼저 거론된다. 일본 정치사상 연구에 획을 그은 이 저작에서 마루야마는 소라이를 근대성의 사상적 개척자이자 정치의 발견자로 주목했다. 그는 동서양을 동시에 관조하는 눈으로 송나라 유학의 완성자인 주자를 동시대 서구 기독교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선상에 놓고, 주자학을 비판한 소라이를 근대 정치사상의 선구자가 된 마키아벨리에 견주었다. 마키아벨리가 도덕과 정치를 분리해 근대 정치학의 토대를 닦았듯이 소라이도 주자학의 도덕관념에서 벗어나 정치 자체를 발견함으로써 근대성의 싹을 틔웠다는 것이 마루야마가 포착한 소라이학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오규 소라이(荻生徂徠)의 이런 훌륭한 사상적 인식보다 더 강하게 일본인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오규 소라이(荻生徂徠)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제목은 주신구라(忠臣藏)이다. 현재 고베 지역에 해당하는 아코번의 다이묘인 아사노 나가노리는 도쿠가와 막부의 근거지인 에도성에서 텐노의 조정이 보내오는 사절을 맞이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 막부 내에서 의전에 관련된 사항들을 맡고 있는 기라 요시히사는 사절을 대하는 격식을 문제 삼아 아사노를 크게 꾸짖었고, 분노한 아사노는 칼을 빼들어서 상관인 기라 요시히사를 다치게 했다. 쇼군이 집무하는 에도에서 칼을 휘둘러 상관을 다치게 했으니, 이것은 보통 칼부림이 아니라 하극상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당시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츠나요시는 아사노에게 할복을 명령하였다. 쇼군의 명령으로 아사노는 할복했고, 휘하의 사무라이들은 낭인으로 신분이 떨어져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이들 낭인들은 막부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주군 아사노에 대한 복수를 계획했고, 결국 1년 뒤 기라 요시히사의 저택을 습격하여 안의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기라 요시히사의 목을 쳐 주군이었던 아사노의 묘지에 가져가 복수를 완성했다. 그리고 순순히 쇼군의 처분을 기다렸다. 쇼군 츠나요시는 이 복수극을 어떻게 처리할지 상당히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아사노에 대한 할복 명령은 사건이 있는 뒤 7시간 만에 행해졌지만 낭인들의 복수에 대해서 할복을 명하는 데는 무려 50여일이나 걸렸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아사노의 할복명령부터가 석연치 않았을 뿐더러, 낭인들의 살인 행위는 '주군에 대한 가신의 충성'에서 나온 복수였기 때문에 일본의 전통과 주자학의 도덕 관념 때문에 당시 여론으로부터 동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당시 막부의



정치 고문이자 유학자였던 오규 소라이는 "소라이의 율서"라는 글을 올려 낭인들의 할복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율서의 요지는 "충성과 의리를 다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처벌하지 않으면 천하의 법도는 서지 않게 된다. 낭인들은 사사로이 복수를 한 만큼 그 죄를 물어 할복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쇼군은 오규의 주장을 받아들여 낭인들에 대해 할복 명령을 내리게 된다. 물론 낭인들은 쇼군의 명령이었으므로 순순히 할복했다.

연암 박지원 문화 콘텐츠 조명 토론문

진중호 (양양군의회 의원)

주제 발표자 양언석 교수님의 역사문화유적지 활용측면과 이학주 교수님의 연암사상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테마거리, 마을관광박물관, 이벤트 등 양양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연구해주시고 방법을 제시하여 주신 내용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2016년 양양군 정군(정명) 600주년이 되는 정말로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재조명되는 연암선생의 문화 콘텐츠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양양의 역사는 석기시대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를 접어두더라도 고려시대 현종의 익령현에서 고종8년(1221) 거란병 침공 방어 공으로 양주군으로 승격되어 고종44년(1257) 호적에게 항복한 사건으로 인해 덕령현(양산현)으로 강등되었다가 원종원년(1260)에 복승개칭되었고 조선시대 태조6년(1397) 목조의 외향이라는 연유로 양주부로 승격되었다가 태종13년(1413) 양주도호부로 개편되고 태종16년(1416) 양양도호부가 되었으며(정명 600년 기준) 고종32년(1895) 양양군으로 개칭되었다.

그러면 조선시대 연암선생이 재직하던 1800년대 양양의 도시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

1800년 조선인구수가 18,443(천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남북한의 인구수는 63,890(천명)(남한:49,039천명, 북한:24,851천명)이므로 3.5배 증가되었다. 양양의 최대인구수가 1971년 46,304명이었으니 역으로 계산하면 13,230명으로 추산된다.

조선시대 행정구역 및 지방관제와 품계를 보면 강원도 감영의 소재지는 원주이며 종2품(차관)의 관찰사가 총괄하였고 정3품(관리관)의 목사가 재직하고 있었다.

강릉에는 정3품 당상관의 대도호부사가 재직했으며 그다음 양양, 춘천, 철원, 삼척, 영월, 이천, 회양(북한)엔 종3품(이사관)의 도호부사가 임명되었다. 평해(북한), 통천(북한), 정선, 고성, 간성, 평창은 종4품(부이사관)의 군수가 금성(철원금화), 울진은 종5품의 현령이 평강, 금화, 낭천(화천), 흥천, 양구, 인제, 횡성, 안협(이천)은 종6품의 현감이 직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양양은 오랜기간 군사적 요충지로 중요한 지역이었으며 면적과 인구분포도를 가늠할 수 있다.

반면 연암이 최초로 재직하던 안의현은 지금 함양군 안의면이 되었으며, 함양연암문화제라는 테마로 안의면



연암문화제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여 10월경 7일동안 연암부임행차재연, 연암별빛콘서트, 미술/글짓기 당선작 전시회, 체험프로그램(전래놀이, 떡마을, 천연염색), 농특산물판매 등으로 다채로운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두번째로 재직할 면천군은 당시 당진현이 산업화의 도시발달과 더불어 현재는 당진시 면천면이 되었다.

옛 양양의 모습은 일제침략기와 공산치하 및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근대화에 뒤쳐지며 1차산업 위주로 생활하다보니 어느덧 과거의 명성은 사라지고 인구 3만이 안되는 시골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국제사회가 글로벌화 되는 시점에 양양의 희망이 샘솟는 기운이 감지됐다. 바로 연암이 사랑한 경관녹봉론(景觀祿俸論)이 햇살을 받고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바다와 산의 빼어난 경치가 만냥은 된다”고 하였으니 오색케이블카가 주는 경제적 효과는 만냥의 만배 이상은 될 것이다

가상 케이블카 노선에서 보면 흠잡을 것 하나없는 자연경관은 동쪽으로 대청봉(1708m)과 동해바다 북쪽으로 용아장성의 기암괴석과 봉정암 서쪽으로 오색령(한계령), 등선대, 주전골, 오색약수 남쪽으로 점봉산 밑에는 독죽폭포 등이 장관을 이룬다.

우리군은 1차 심포지엄이(2012년) 끝나고 2014년 예산에 연암박지원 기념비 건립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오색집단지설지구 정비사업 추진으로 일단 연기된 상황으로 사업의 마무리가 되면 건립할 예정이며, 기념비와 더불어 케이블카 안에서 연암선생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왕실에 진상되어 재궁(粹宮:임금이나 왕세자의 관)을 만드는 나무 황장목(黃腸木 금강송)에 관련된 사항이다.

1차 심포지엄과 이번 주제문에도 황장목의 사용과 그로인해 생성된 하찮은 송판조각을 이용한 황장목다리의 이용후생론(利用厚生論)이 제기되었다.

연암선생의 사상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면도 중요하다. 양양군에 별목이 금지되었던 황장목의 군락지가 어디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존재하는가?, 규모는 어느정도였는가?, 별목송은 어떤 형태로 어떤 도구로 어디로 운반을 했는가? 가공은 어떻게 했는가? 등 다양하게 고증하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뒷받침할 만한 사료가 발견되지 못한 것이 더 큰일이다.

벌채를 금지했던 황장금표(黃腸禁標:임금의 관을 만드는 황장목을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산에 경계 표식을 한 것)는 원주 학곡리, 영월 법흥리, 화천 동촌2리, 인제산촌박물관, 인제 운흥사지, 울진 소광리 등의 인근지역에서 발견되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에 양양군도 황장금표를 찾아야만 황장목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와 현재의 군락지에 따라서 서림과 갈천 지역이면 구룡령 옛길을 따라 스토리텔링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어성전 지역이면 탁장사마을과 연계할 수 있고 현남권이면 입암상여소리와 연계 발굴해야 빛이 날 것 같고 군락지가 아직도 형성되어 있다면 직접 체험장으로 운영하여 눈으로 보고, 몸과 마음으로 느껴도



보면서 자연의 위대함도 깨달을 것이다. 또한 운반수단, 수송로, 건조장, 송판제작장, 파지송판으로 만든 다리 위치, 제작형태 등을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연구가 되고 검증이 되어야만 문화제의 한 장르 놀이마당이나 민속놀이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고증된 자료에 의해서 양양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야심차게 운영하게 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목재문화 체험장에서 전시물로 전시하거나 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양양군은 8,000년 선사유적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박물관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줄지를 선정한 후에 전시할 전시품을 정하고 수집을 한 후에 박물관의 규모 등이 정해져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오산선사유적박물관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전시물 협조에 많은 시간과 고민을 한 후에야 비로소 2007년에 개관하고 지난해 73,563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금년 11월 19일 현재 62,852명이 관람을 하였다고 한다. 더 많은 관람객이 오기를 희망하는데 2% 부족함은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문화관광사업은 대단히 큰골격부터 시작하면 큰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장사꾼의 노하우가 필요하며 이것은 최소투자로 최대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끝으로 무조건 규모있게 예산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관점보다는 현실에 맞게 알차게 차곡차곡 준비하여야 하며 심포지엄이 끝나고 빠른 시일 내에 더많은 연구를 통해 고증된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주시길 학수고대 합니다.

연암 박지원 문화콘텐츠 조명 토론문

김양식 (양양문화원 향토사연구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양문화원 부설향토사연구소 김양식 연구원입니다.

우선 기초발표를 해 주신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제발표를 함께 해 주신 양언석 교수님, 이학주 교수님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언석 교수님의 “역사문화유적지 연계방안”의 주제발표문에서 보듯이 우리고장은 8천 년 전의 선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역사문화의 산실이며 신라 불교문화가 꽃 피었던 성지의 요람이며 순례지입니다.

교수님께서 연암과 연관 지어 복원해야 할 문화유적으로 이화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양양문화원 부설향토사연구소에서는 지난해에 과거 양양지방에 산재해 있는 루, 정, 대 33개소를 발굴 조사하여 연혁, 시문, 사진 등을 함께 수록하여 당시의 시인, 묵객들의 생활상의 이해를 돕고자 “양양의 루정대”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그 중 이화정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그리고 이학주교수님의 “연암 박지원과 양양군 스토리텔링” 주제발표문 10페이지에 첫째 경관녹봉론 경관 홍보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오색령 정상에 지난해 사진 찍기 좋은 장소에 포토존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옆에 “연암 경관녹봉론 포토존”이라는 명칭을 붙여 연암 초상화도 함께 홍보하는 입간판을 게시하여 관광객들에게 양양의 아름다운 풍광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방안이 좋겠습니다.

〈안내문〉

양양부사를 퇴직한 후 퇴직 사포들의 모임에서 양양부사 시절의 봉급에 대한 질문에 연암은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한다. 고을에 형편이 넉넉하다 각박하다 따지는 사람들을 보시면 곧 씩씩하니 아무 말씀 없으셨다.



그 때 양양에서 돌아오셔서 이웃 여러분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바야흐로 일찍이 거친 고을들을 봉급이 많고 적고를 서로 말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양양은 어떠하였는지 묻자 선군은 우스개로 “일만 이천이었습시다.” 하셨다. 듣는 사람이 놀라서 “어찌 그리 많을 리 있습니까?” 라고 하자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셨다.

여러 사람들은 그렇다 아니다 하는 사람이 절반씩이어서 어서 상세한 내용을 듣고 싶어 하였다. 선군은 웃으며 “바다와 산의 빼어난 경치가 만 냥은 될 만하고 고을의 봉급이 이천 냥이니, 넉넉히 금강산 일만이천봉과 서로 나라하다 할 만 하지요.” 하니 좌중이 모두 크게 웃었다. (역주 과정록 참조)

둘째는 황장목 다리 놓기 축제 활용방안이 있는데 해마다 10월이면 현북면 원일전리에서 “탁장사 고을 전통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이 행사에 우리군 마을단위축제 중 유일하게 패다리 놓기 재연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양양 패다리놓기” 행사가 이 마을에서만 계승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일전리 행사장 인근 하천변에 황장목 벌채를 금하는 “금포 5리”, “금포 10리”라는 음각이 현재는 매몰되거나 유실되었지만, 그 터가 지난 해 향토사연구조사팀에 의해 발굴조사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암 황장목 패다리놓기 안내문〉

양양에는 벌목을 금하는 황장목 숲이 펍 많았다. 매번 조정에서는 감독관을 파견하여 황장목을 베게 했는데 양양부사에게는 으레 사사로운 이익이 많이 떨어졌다. 비록 청렴한 수령이라 할지라도 황장목을 남겨 자신의 장례에 쓰게 했다. 아버지가 양양에 부임하자 친지들은 황장목 이야기를 자주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듣고도 못 들은 척하셨다.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말씀 하셨다. “너희가 내 본심을 아느냐? 너희가 혹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후일 나의 장례 때 황장목을 쓸 생각을 한다면 이는 내 뜻을 크게 거스르는 일이다. 황장목으로 나의 관을 짜는 일도 옳지 않다고 여기고 있거늘, 직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일이야 말해 무엇 하겠느냐?” 황장목은 감독관의 입회 아래 벌목되어 대궐에 진상되었다. 그러나 진상하고 남은 널빤지들은 온 고을에 낭자했다. 아전들이 이 사실을 보고하자, 아버지는 아무아무 곳 시냇가에 옮겨 놓으라고 하셨다. “여기에 다리가 없어 사람들이 다니는데 괴로워한다. 이 나무로 다리를 놓으면 몇 년은 편리하게 지낼 수 있을 게다.” 그리하여 널빤지를 깔아 다리를 설치하셨다. 그 후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을 때 유언에 따라 해송으로 만든 널을 썼다. (역주 과정록 참조)

그래서 “양양 패다리놓기” 행사명을 “연암 황장목 패다리놓기”로 변경하여 기존 축제인 양양현산문화제와 송이축제, 연어축제 행사시에 문화예술행사로 재연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연암테마거리조성안 방안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2008년 미국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함



께 미국 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또한 유럽 및 개발도상국 등 전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군 역시 지역경제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현재 군의 재정 및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교수님 구체적인 방안이 계시는지요?

조선왕조시대를 대표하는 대 문장가 연암 박지원이 안빈낙도의 정신과 해학으로 1800년에 우리군의 부사로 재직했다는 사실에 강원도민일보와 양양문화원이 주목하고 이번 콘텐츠를 통해 군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고 또한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창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면 전 세계 많은 체육인과 가족 및 관광객이 강원도를 찾게 되고 이에 맞춰 오색 로프웨이가 건설되면 아름다운 양양의 자연경관을 보기 위하여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이 2012년 이후 두 번째인 만큼 이제는 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군 역사문화성과 결부시켜 문화융성의 시대에 맞는 문화컨텐츠로 개발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에 관한 역사적 고찰」 연구 발표회

襄陽 獐里의 '校界' 刻字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규대(강릉원주대학교 교수)

標石에 대한 考察 (襄陽의 禁標와 校界를 중심으로)
양언석(강원도립대학 교수)

襄陽 獐里와 “校界岩刻文”의 關聯性 研究
이규환(양양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원)

주제발표

襄陽 獐里의 ‘校界’ 刻字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규대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양양지방은 전통 문화도시이다. 고대사회로부터 襄陽, 襄州, 德寧, 襄陽都護府로 발전하면서 문화전통을 키워왔고, 이제 그 문화적 역량은 미래 지향적인 양양의 발전상을 담보할 것으로 본다.

양양지방의 역사 문화에 대한 연구동향은 주목할 만하다. 불교·유교 문화로부터 서민들의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문화원을 중심으로 조직화 된 연구원들이 보여 주는 지방문화에 대한 애정과 열의는 이 지방 문화발전의 추동력이 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

오늘 이 토론회도 문화원의 연구실을 산실로 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이번 주제를 주목하면서도 여실히 느끼는 바이지만, 지방사 연구에서 자료 내지 사료를 확보하는 작업은 지난한 일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성질의 과제이기에 한계를 절감하면서도 외면하기 어려운 심정이다.

근간에 문화원 연구반에 의해 ‘校界’라는 각자가 발견되었다. 양양 현북면 장리에서 발견된 이 각자의 의미와 용도를 파악하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과제이다. 필자는 지난번 문화원 모임에서 이것이 禁標라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고, 이들과 함께 현장을 답사하여 각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손병섭이 쓴 논문 한편도 얻어 볼 수 있었다. 아울러 연구원의 견해를 정리한 문건도 얻어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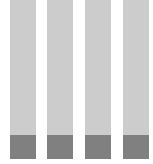
여기서는 이들 자료를 방향타로 삼고 몇 가지 내용을 첨부하는 형태로 과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1. ‘校界’의 字典的 의미

『世祖實錄』 권 27, 8년 2월 18일. 친히 『兵將說』을 짓다.

度我人, 則如之何? 觀天運, 校將士, 計曲直, 參勞逸是也,

내 사람을 헤아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천운을 살피고, 장수와 사졸을 살피고, 곡직을 헤아리고, 노일을 참작하는 것이다. 校計: 하나하나를 헤아리다. 사전적 의미 - 계산하다. 하나하나 따지다.



『成宗實錄』 권 218, 19년 7월 9일.

❖ 苑囿提調啓事目:

一, 禁山外可獵之山數多, 而諸邑守令進上依憑, 日日馳獵, 未便。山勢看審立禁標, 使不得私獵, 犯者論罪。

원유 제조(苑囿提調)가 사목(事目)을 아뢰기를,

1. 금산(禁山) 외에 사냥할 만한 산의 수가 많은데 여러 고을 수령이 진상(進上)을 빙자하고 날마다 달리며 사냥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니, 산세를 살펴보고 금표(禁標)를 세워서 사사로이 사냥하지 못하게 하되 범하는 자는 논죄(論罪)한다.

『漢韓大辭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校獵: 나무로 울을 만들어 짐승의 도주로를 막고 사냥함. 널리 사냥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

『漢書, 成帝紀』 冬 行幸長楊宮 從胡客大校獵.

『顏師古注』 此校謂以木自相貫穿爲闌校耳…校獵者, 大爲闌校以遮禽獸而獵取也.

漢, 司馬相如, 『上林賦』 於是乎背秋涉冬 天子校獵.

唐, 杜甫 『冬狩行』 君不見東川節度兵馬雄 校獵亦似觀成功.

2. 양양지방 황장금표는 두 곳에 설치되었다.

양양지방에 황장목 금표는 2곳에 설치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편, 『관동읍지』 총록 상편에서 관련기사가 확인된다. 이로서 금표에 대해서는 양양지방에서 익히 알려졌던 것으로 보이며, 『양양의 땅 이름』과 손병섭 씨의 논문에서 그 실체가 파악되고 있다. 다만 ‘부연동금표’는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으나, ‘전림동금표’는 그 실체가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그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關東邑誌』 總錄 上, 黃腸 四十一處.

襄陽二處

箭林洞封山 周回三百五十里 自官門一百里 東至盈德七十里 西至春川界七十里.

夫(?釜)淵山封山 周回三百里 自官門八十里 東至茅無洞六十里 西至旌(?綿)玉峙六十里

南至江陵界七十里 北至獐洞八十里.

먼저 하나는 箭林洞에 封山이 설치되었다. 지정된 봉산은 邑治로부터 100리 거리에 위치하며, 나무를 베는 것을 금지하는 구역의 둘레가 350리 이다. 동쪽으로는 영덕에 이르기까지 70리 이고, 서쪽으로는 춘천과

경계를 이루는 지점까지 70리 이다.

다른 하나는 夫淵洞에 봉산이 설치되었다. 지정된 봉산은 읍치로부터 80리 거리에 위치하며, 나무를 베는 것을 금지하는 구역의 둘레는 300리 이다. 동쪽으로는 모무동에 이르기까지 60리 이며, 서쪽으로는 면옥치에 이르기까지 60리 이며, 남쪽으로는 강릉 경계에 이르기까지 70리 이며, 북쪽으로는 장동에 이르기까지 80리 이다.

이러한 기록으로 금표의 존재는 확인된다. 여기서 주목되어야 할 점은 금표가 파악되었다면, 이와 관련되는 생활상이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황장목을 별목을 한다면, 그로 말미암은 노동력은 이곳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이를 위한 인력 차출은 부역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19세기 삼척지방의 사례에 의하면 부역의 배정은 마을 단위로 分定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부역의 苦歇 문제는 관아를 상대로 치열하게 저항하는 형태가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사 이야기는 마땅히 주목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근거 자료의 부족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금표와 관련하여 이러한 자료가 생성되었음은 여타 시군의 사례에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에 대한 관심이 모아져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자료 확보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3. 獐里 마을 형성과 특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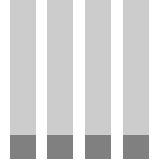
먼저 조선시대 면리제는 邑治를 중심으로 편제되는 특성을 가진다. 洞山縣의 읍치를 중심으로 현북면과 현남면이 편제되고, 양양의 읍치를 중심으로 부내·동·서·남·북면이 편제된 것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면리제는 사회경제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로 읍치 외곽이 개발되면서 정착된다. 그 초기 형태는 방위면체제라 할 수 있다. 이른바 동·서·남·북·내면 체제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방위면 체제하에서 새로이 형성되는 촌락이나 기존 이 촌락이 分洞하는 형태로 면리제는 발달한다. 예컨대 신촌, 그리고 큰 마을과 작은 마을, 윗마을과 아랫마을 본동과 새마을 등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자신들의 고유한 이름을 가지는 면리 명칭이 설정된다. 반면에 방위면의 명칭은 개명되면서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남면이 남1리면과 남2리면으로 분화되었다가 다시 그 명칭이 근덕면과 원덕면으로 개명되는 예를 살필 수 있다.

이 점에서 면리제는 도시발달사적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물론 그보다 중시되어야 할 사항은 마을 단위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상징적 祭儀를 가진다는 점일 것이다. 그것이 城隍堂이다. 성황당은 자신들의 안위와 풍요를 기원하는 공간이지만, 마을의 독자성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도 주목되어야 한다.

예컨대 이곳 양양지방도 모든 마을에 성황당이 설치되어 있다. 물론 도시 중심부에서는 개발에 밀려 사라진지 오래이다. 그러나 도시 외곽으로 나가면 어느 마을을 막론하고 설치되어 있다. 이것이 보편적 의미라고



한다면, 그곳에 모셔진 神의 모습 내지 神像의 의미는 각 마을마다 다양하여 그 차이를 보인다. 이것이 특수성이고, 이것이 마을 공동체의 독자성 내지 독립성을 상징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인 것이다.

이상의 개설적 내용을 전제로 장리 마을을 주목해 보고자 한다. 세종 때 편찬되는 『세종실록지리지』 양양 편, 중종 때 편찬되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 편, 영조 때 편찬되는 『여지도서』 양양 편, 19세기에 편찬되는 사찬읍지로서 『현산지』, 1976년에 편찬되는 『향토지』 등에서 현북면 장리 마을 공동체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官撰邑誌와 私撰邑誌에서 장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1976년에 편찬된 읍지에서 장리는 “自古로 山獐이 많았으므로 獐里라고 부른다.”라고 부기하였다. 따라서 이 기록만으로는 어느 시점에서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散居하는 주민들이야 일찍부터 이곳에 들어와 생활을 영위하였을 것이지만,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결속을 도모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시기는 상당히 늦은 시기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또 한 가지는 官撰邑誌에서는 양양지방의 특산물 내지 생산물로서는 대부분 해산물인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19세기에 편찬되는 私撰邑誌에서는 “虎皮·熊皮·獐皮·獾皮·黃毛·豬毛·狸毛·獾皮 등이 이 지방의 생산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리의 공동체적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가능할 수 있다.

4. 獐里 ‘校界’ 禁標가 갖는 의미와 과제?

❖ ‘교계’ 각자는 금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표는 일반인들의 범접을 통제하여 동식물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세워지는 것으로 보면, 이번에 발견된 각자 역시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

❖ ‘교계’ 를 수렵·사냥과 관련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마을 이름이 獐里가 아니었다면, ‘교계’ 는 향교와 관련된 금표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이럴 때 1687년(숙종 13)에 향교를 현북면 면옥치로 획정하여 본군에 상신한 즉 府使 金演이 허락하였다고 하였다는 기사는 주목되었을 것이다. (『향토지』문화재 편, 133쪽) 다만 여기서는 마을 이름과 관련지으면서 사냥을 위한 금표로 보고자 한다.

❖ ‘교계’ 의 각자에서 ‘교’ 자는 울타리나 사냥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자전은 물론 실록 자료에서도 그 전거가 충분히 확인된다. 이 점에서 ‘교계’ 는 사냥을 위한 금표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리 마을에 ‘장흥사(獐興寺)’ 라는 사찰이 존재하였고, 마을의 뒷산을 ‘덕울산’ 이라고 하였다는 점도 ‘교계’ 의 성격을 사냥과 관련하여 볼 수 있는 전거가 된다고 본다. 다만 이번에 주목하는 ‘교계’ 각자와 기존의 문헌자료에서 파악되는 2곳의 ‘황장금표’ 와 상호 관련성은 앞으로 주목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번에 주목하는 ‘교계’는 양양지방의 생활문화를 풀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료로서 가치를 가진다. 물론 금표의 성격 하나만으로도 그 가치와 의미는 충분히 보존될 가치를 가지지만, 나아가 양양지방 사람들의 생활문화 즉 사냥 내지 수렵 문화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단초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생활문화는 진정한 지방사로서 가치를 가진다고 본다.

❖ ‘교계’ 금표와 관련하여 장리 마을의 자연과 인문 환경이 주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금표가 세워졌다면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생활의 변화상은 일차적으로 장리 마을에서 추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예컨대 ‘벳터말(舟基洞)’의 어원을 개울물이 모여 있었다고 하든 지형이 배 모양이라는 데서 찾든 그것은 사냥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을 것이고, ‘샛터말(新垆洞)’을 이주민들이 들어와 새마을을 이루었는지? 기존의 마을이 분동하여 이루어졌는지? 어느 쪽이라고 하더라도 마을 가호의 증가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현상이 사냥과 상관관계가 설명될 수 있는가를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 ‘당상귀미’, ‘당산동’이라는 지명이 있다. 이들은 성황당과 관련된 지명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서 성황당의 형태는 당집인지? 당목인지? 신상은 어떤 모습인지? 장리 마을 안에는 몇 개의 성황당이 있는지 등의 상황은 장리 마을을 설명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이러한 상황들과 금표 즉 사냥과 연계하여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標石에 대한 考察 (襄陽의 禁標와 校界를 중심으로)

양언석 (강원도립대학 교수)

1. 緒論

고대사회부터 일정한 지역의 交界(경계)와 장소의 출입을 금하는 禁標는 산과 강, 그리고 들과 같은 자연물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국가가 형성되면서 국가를 관리하기 위한 交界와 금표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금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신성한 지역을 알리는 금표-洛山寺禁標, 東海神祠禁標
- 2)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한 금표-黃腸禁標
- 3) 사냥을 위한 구역의 금표-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禁標
- 4) 왕실의 胎封의 출입을 금하는 태봉금표-下福里禁標
- 5) 산삼 채취를 금하는 금표-江陵府蔘山封標
- 6) 유배지에 출입을 금하는 금표, 그리고 잡귀를 금하는 금줄 등이 있다.

강원도 일대에서 발견되고 있는 禁標는 조선시대 중요한 경계와 표지로, 주로 산림과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황장목은 강원도 일대와 전라도, 경상도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經國大典』, 『大典會通』 등에 의하면 법전에 의거하여 황장금표를 立標하였다. 이 금표를 통해 국가정책과 생활사를 이해할 수

1) 강원도민일보, 2014.12.03.

산림청이 '인제 한계 황장금표와 황장목림'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한계 황장금표는 조선 중기 무렵 한계리 일대의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석에 음각으로 새긴 표석으로 '황장금산 자서고한계 지동계이십리(黃腸禁山 自西古寒溪 至東界二十里)'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황장을 금하는 산이며 서쪽 옛 한계부터 동쪽 경계는 이십리까지'라는 뜻이다. 강원도내에는 인제군 북면 한계리 외에 영월군 수주면 두산 2리·법흥 1리,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에서 황장금표가 각각 발견됐다. 황장목은 나무 중심부에 누런 황심을 가진 소나무로 조선시대 임금과 사대부의 관재나 궁궐, 고찰의 대들보로 사용됐으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호하던 수종으로 한계리 임야 245ha가 이번에 황장목림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양양의 산림이 황장목림으로 지정되지 못한 것은 황장금표의 조사와 관리의 문제로 인해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동안 양양의 금표는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다. 『江原道誌』 卷 3, 土産, 三陟條에 의하면, 橋谷山黃腸 新羅朝採伐黃腸木云라는 기록에 의하면, 신라시대부터 강원도일대에서 황장목을 伐採하여 경주까지 운반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葬禮에 관한한 禮를 존중하는 민족으로, 최고로 인식하였던 사회상으로 인해 문헌과 실록에 황장목에 관한 기록이 자주 등장한다. 이처럼 황장목 생산의 오랜 역사와 중심이었던 강원도와 양양의 禁標를 중심으로 校界와 연계하여 고찰하였다.

2. 黃腸禁標의 認識

황장(黃腸)이란 황장목(黃腸木)의 준말로, 주로 관곽(棺槨)을 만드는 소나무를 말한다. 황장은 관곽의 별칭이기도 하다. 황장목의 중심부가 황색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인되었다. 황장목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금령(禁令)이 내린 산을 황장봉산(黃腸封山) 또는 황장금산(黃腸禁山) 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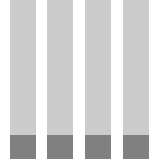
그리고 황장금표(黃腸禁標)는 주로 임금의 관을 만드는 데 쓰는 질이 좋은 소나무를 황장(黃腸)이라고 하는데, 이 황장목(黃腸木)을 금양(禁養)하는 산의 경계표식을 이르는 말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황장금표의 형태는 대부분 바위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지만 모양, 크기, 서체는 다양하다. 지금도 황장금표가 있는 곳은 수백 년 된 황장목이 우거져 있고, 그리고 큰 강을 끼고 있다. 이것은 황장목의 운반과 관계있는 것으로 양양 송천리에도 배젓골(船材골)이 있다.

황장금표는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해 황장봉산에 세운 표석으로, 이 표석을 통해 황장목의 필요성과 생활상을 이해 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황장금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알 수 없지만 황장목은 왕실에서 관을 만드는 재료와 왕실 건축재료, 그리고 군사용인 船材로 사용하였다.

『受教輯錄』 刑典 禁制 條에 의하면 “황장목, 船材所가 있는 곳에 함부로 들어와 設庄을 하는 자는 곤장 1백에 3천리 밖으로 유배 시킨다”고 했으며 또 “황장목은 敬差官이 친히 산에 올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封하고 숫자를 헤아린다. 혹 사사로이 벌채한 곳이 있거나 관이 위험함을 피해 지시사항을 다하지 않거나 목수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숨기거나 했다가 탄로 나는 경우, 守畝를 파직하거나 監官이하는 변방 멀리 定配한다”고 하여 엄중한 형벌을 처하도록 하고 있어 立標하여 황장봉산임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형벌은 이후 더욱 강화되어 『新補受教輯錄』 刑典 禁制 條에 의하면 “封山の 큰 소나무를 10주 이상 벤 자는 梟示하고 10주 이하인 경우에는 減死 定配한다”고 했으며 “황장봉산의 소나무 1주를 벤 자는 논하여 무겁게 다스린다면, 受教에 의하면 곤장 일백에 3년 복역에 처하였다”하니 黃腸禁標의 입표에는 犯法을 하지 않도록 하는 警戒의 의미도 포함되었을 것이다.²⁾

2) 박봉우, 황장금표에 관한 고찰, 한국임학회지85, 1996, 428쪽



이 기록에 의하면, 황장목의 중요성인 船材의 재료로써 국법으로 지나칠 정도로 엄히 다스렸다. 그 이유는 황장목의 중요성에서 기인되었다. 황장목은 棺材 뿐만 아니라 건축자재로도 사용하였고, 宗廟의 중축을 위해서도 사용하였다. 이처럼 왕실이나 군사용으로 사용하면서 『續大典』 등에 규정하고 있다.

黃腸山 在府東南長陽面一百五十里 周回八十里 每當封板時 入於此山 斫板輪納 故所重自別³⁾

(황장산은 부의 동남에 장양면이 있는데 150리 이며 둘레는 80리 이다. 매년 봉판에 당한 때에 이 산에 들어가 판목을 잘라서 옮겨 바친다. 그래서 소중함이 다른 산과 다르다.)

시속(示俗)에 “때에 따르고 절후에 맞추어 전토(田土)를 경작하고 파종하라.” 하였는데, 신 김희락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백성의 큰 근본은 경작과 파종에 있는데, 신이 목하의 민사(民事)를 본즉 야민(野民)은 진실로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산민(山民)들이 가장 불쌍합니다. 대개 산민들이 업으로 삼는 것은 오직 화전(火田)뿐인데, 가을쯤 다녀 보았더니 집집마다 으레 원결(元結)이 있고, 명색(名色)이 없는 조화전(竈火田)이 있었고 또 세금을 반드시 끌로 징수하여 부담이 돈이나 배보다 더 심하였으며, 관가에서 경영하는 목재와 판재(板材)를 목물(木物)로 징수하지 않고 반드시 돈으로 징수하였고, 약재 역시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게다가 모손(耗損)된 군액(軍額)을 산민들에게로 미루어 충당케 하고 환곡(還穀) 또한 매우 부담이 큼니다.

산골을 따라 관동과 영남 수백 리에는 황장례(黃腸例)라는 것이 있어, 월삭(月朔)의 관납(官納)으로 금판(禁板)할 때 산리(山吏)가 항상 산속에 숨어 있다가 금지된 벌목을 적발하면 그중 품질이 우수한 목재를 팔고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 대낮에 나무를 베고 인근의 목수를 불러 아무런 비용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목재를 운납(運納)할 때는 산민들에게 일을 떠맡겨 비록 바쁜 농번기라 할지라도 부역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옹드려 바라옵건대, 특별히 칙교(勅敎)를 내리어 조금이라도 불쌍히 보살피는 방도를 강구하소서. 산민들의 폐해는 내가 더욱 불쌍히 여기는 바인데 네가 이미 폐해에 대해서 소상히 말하였으니 의당 폐해를 구제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⁴⁾

관동의 전정 · 조곡의 저축 등에 관한 경성회의 상소문.

장령(掌令) 경성회(慶聖會)가 상소(上疏)하여, 관동(關東)의 전정(田政)을 바로잡고 황장금표(黃腸禁標) 안에 들어가 경작하는 폐단을 엄단하고 조곡(糶穀)을 남겨 저축하여 불시의 수요에 대비하기를 청하고, 또 인재를 소통(疏通)하고 박만정(朴萬鼎) · 강현(姜覲) · 이이만(李頤晩) 등을 거두어 서용(敍用)하기를 청하고, 강세윤(姜世胤)을 신구(伸救)하니, 임금이 우악(優渥)하게 비답(批答)하고 받아들였다.⁵⁾

3) 아세아문화사, 영인, 379쪽, 1986.

4) 『弘齋全書』 권130 故寔2

5) 『朝鮮王朝實錄』 숙종 42년 병신(1716,강희 55) 윤 3월3일 계해

국상 때에 쓸 재궁(梓宮)을 만들 때, 세종 15년에 사인(舍人) 정척(鄭陟)이 미리 수궁(壽宮 재궁)을 만들기를 청하니, 조정에서 옳게 여겨 장생전(長生殿)을 세우고, 곧 정척을 시켜 널리 황장목(黃腸木)을 구해다가 수궁을 감독하여 만들게 하니, 국상의 제도가 비로소 유감없이 갖추어졌다.⁶⁾

계축년(1433)에 의정부 사인이 되었다. 전에는 국상에 쓰는 관곽(棺槨)을 때에 임하여 만들었는데, 공이 청해서 관곽을 미리 만들어 놓기로 하였다. 조정에서는 이 의견을 옳게 여겨 비로소 장생전(長生殿) 국상의 관곽을 준비하는 곳을 세우고, 이어 그를 시켜 널리 황장목(黃腸木)을 구해서 관곽을 만들게 하니, 국상에 아무런 근색함이 없게 되었다.⁷⁾

國喪을 당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황장목으로 관곽을 만들어야 비로소 국상의 제도가 마무리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황장목에 대한 詩는 찾아보기 힘들다. 황장목에 관한 詩를 통해 가치와 그로인한 사회인식을 이해할 수 있다.

육방관속 서슬이 성주를 압도하고	掾閣嵯峨壓政軒
아전들이 날마다 어촌을 찾는다네	朱牌日日到漁村
선첩의 진짜 가짜 따질 것이 뭐라던가	休將帖子分眞贋
관이란 게 원래부터 문 지키는 호랑인데	官裏由來虎守門
궁복포 앞에는 나무가 배에 가득	弓福浦前柴滿船
황장목 한 그루면 그 값이 천금이라네	黃腸一樹值千錢
수영의 방자놈은 인정(뇌물)이 두둑하여	水營房子人情厚
수양버들 아래 가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 ⁸⁾	醉臥南塘垂柳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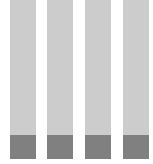
부패한 어촌의 아전들이 뇌물을 받아 여유 있게 생활하였고, 이로 인해 수영의 방자들은 황장목의 값으로 뇌물을 두둑이 받아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현실에서 황장목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상사는 슬픔을 주로 한다. 모든 일은 『가례』를 참고하고 동시에 세속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관례를 물어 하되, 힘쓰고 조심해서 남의 비방을 받지 않는 것이 옳고 또 마땅한 것이다. 더구나 너희들은 모두 네 어미의 상을 입지 않았으니, 이번 상사를 곧 어미의 상사라고 생각하면, 저절로 삼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혹 어떤 이는 친어머니와는 다르다고 하지만 그것은 무지한 말로서, 사람을 의리가 아닌 데로 빠뜨리는 것이니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요새 서울 안의 사대부의 상례가 다 예에 맞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한 불만한 점도

6) 『燃藜室記述』 별집 권2 祀典典故 國喪

7) 『燃藜室記述』 권3 世宗祖故事本末 世宗조의 名臣 李隨

8) 『茶山詩文集』 권4 詩 耽津漁歌 10장 絡締者章舉也。見輿地勝覽。掾閣嵯峨壓政軒。朱牌日日到漁村。休將帖子分眞贋。官裏由來虎守門。弓福浦前柴滿船。卽莞島黃腸一樹直千錢。梓宮所用之松曰黃腸。水營房子人情厚。醉臥南塘垂柳邊。東俗賄賂曰人情。



많다. 너희들이 만일 옛날의 예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또 요새 사람의 비방을 받는다면 어떻게 체면을 세울 수 있겠는가. 다만 너무 기력을 써서 병이 나는 데 이르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하였다.

-집안 편지- 병오년(1546, 명종1)에 준이 권 부인의 상사를 만났다.

고을 사람이 황장목(黃腸木)을 베어 관을 만들어 그 아버이를 장사했다.

선생이 말하기를,

“아무리 자신의 아버이를 후하게 장사 지내고 싶더라도, 어찌 나라에서 금하는 나무를 벨 수 있겠는가.”하고, 이내 ‘휴고성부(虧姑成婦)’의 사실을 끌어와 나무랐다. <휴고성부>의 사실은 『左傳』에 있다. 처음에 제강(齊姜)의 시어미 목강(穆姜)은 사람을 시켜서 아름다운 수영나무를 골라서 자기가 죽은 뒤에 쓸 널을 만들게 하였다. 그 뒤에 제강이 죽자 계문자(季文子)는 그 관으로 제강을 장사했다. 군자가 이 말을 듣고 “그것은 예가 아니다. 시어미의 것을 헐어서 며느리를 이루어 주었으니, 이보다 더 예에 거슬리는 일은 없다.”라고 하였다. 그것은 시어미의 것을 헐어서 그 며느리의 관을 만들었다 해서 나무란 것이다.

선생의 생각도 그 황장목은 나라에서 쓰는 널재목인데 그것을 사사로이 자신의 아버지 장사에 썼으니, 휴고성부와 같은 류라는 것이다.⁹⁾

무인년에 대부인의 상을 당하였는데 몸이 수척해져 거의 위험할 지경에 이르렀다. 삼년상(三年喪)을 마치자, 훈국(訓局)의 낭관으로 있다가 사옹원 첨정으로 옮겼으며, 청풍 부사(淸風府使)로 나갔는데, 청렴하고 근신하며 공정하게 봉직하고 세력에 따라 흔들리거나 빼앗김을 당하지 않았다. 끝내 이 때문에 재상(災傷)을 잘못 판결했다 하여 파직을 당하자, 공은 조그마한 배로 즉시 길을 떠나 돌아오니, 행장이 매우 쓸쓸하였다. 갑신년에 다시 장악원 첨정으로 있다가 삼척 부사(三陟府使)로 제수되었는데, 암행어사가 백성을 잘 구휼했다고 표창하여 승진시키라는 명령이 있었다. 고을에는 황목(黃木)이 생산되었는데, 비록 청렴하고 근신한다고 이름난 자들도 손을 대지 않는 자가 적었으나 공은 국법을 엄격히 지켜 혹시라도 자신을 더럽힐 듯이 여기니, 온 고을에서 모두 탄복하였다. 얼마 안 있다가 시를 짓고 돌아오자, 남녀노소들이 다투어 길을 막고 유임되기를 원했으나 유임되지 못하였다. 무자년(1708, 숙종34) 3월 5일에 병으로 여강의 옛집에서 별세하니, 향년이 68세였다. 4월 26일 지평(砥平)의 동쪽 목곡(木谷)에 있는 을좌신향(乙坐辛向)의 산에 장례하니, 선영을 따른 것이었다.¹⁰⁾

황장목은 국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청렴하고 근신한 자도 손을 대지 않는 자가 적었던 사실에서 황장목에 대한 인식과 피해를 알 수 있다.

9) 『退溪集』言行錄 4 類編

10) 『寒水齋集』 권29 墓誌 府使 李公 蕃 묘지명 병서

3. 襄陽의 禁標

문헌에 의하면 양양의 금표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위치를 확인 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보존된 금표는 확인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확인에 의하면 1936년 병자년 대홍수 때 발견되어 1999년 강원대에서 발간한 박물관지에 소개된 장리 금표, 그리고 1996년도까지 현존하였던 범수치리 용화사 입구의 금표, 원일전리와 어성전리에 소재하였던 금표의 사진자료와 禁標岩이라고 표기된 자료가 전해오고 있다.

그러므로 문헌의 기록과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금표, 그리고 관련된 기록을 중심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文獻備考』 襄陽都護府에 의하면,

- * 토산: 삼(麻)·전죽(箭竹).
- * 황장봉산(黃腸封山) 두 곳이 있다.

2) 『大東地志』, 襄陽, 土産 條

- * 삼, 철, 대살, 잣, 오미자, 인삼, 복령, 지치, 벌꿀, 백화사, 김, 미역, 전복, 홍합, 문어, 대구, 송어, 연어, 도루묵, 황어, 방어, 고등어, 광어, 농어, 숭어, 쌍죽어, 해삼, 송이버섯, 석이버섯, 소금
- * 황장봉산 2곳이다. 고려 문종17년(1063) 삼사(三司)에서 익령현에서 黃金이 난다고 아뢰고 貢籍에 붙일 것을 청하였다.

3) 『關東邑誌』, 襄陽府

工庫條에 楸板, 松板이 생산 된 것으로 보아 황장목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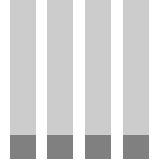
4) 縣北面 元日田里 禁標(사진은 향토사연구소 자료 인용)



〈사진-1〉 금표 위치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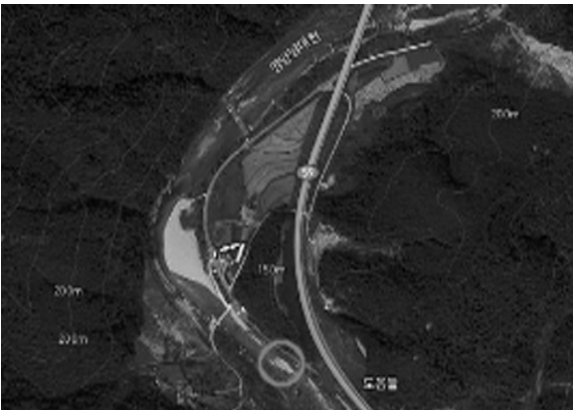
〈사진-2〉 원일전리 금표



원일전리 금표는 위성사진과 같이 오대산 頭老峰에서부터 발원하여 법수치리와 어성전리에서 내려오는 남대천 상류지역인 원일전리 마을에 최근까지 존재하였으나 2008년-2009년도까지 새 농촌건설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정비사업 시 훼손되었다고 당시 이 마을에 거주하였던 박상우(78세)가 증언하였다. 이 금표는 장리금표로부터 약 5리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원일전리 박상우씨가 간직하고 있었는데 원일전리 금표는 1975년에 간행된 포토코리아에서 소개된 금표(사진-2)로, 이 금표는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한 금표이며, 이 사진은 포토코리아 책자를 간행할 당시 편집부 관계자가 탁본한 것이다.(향토사연구소)

5) 縣北面 漁城田里 禁標



〈사진-3〉 금표 위치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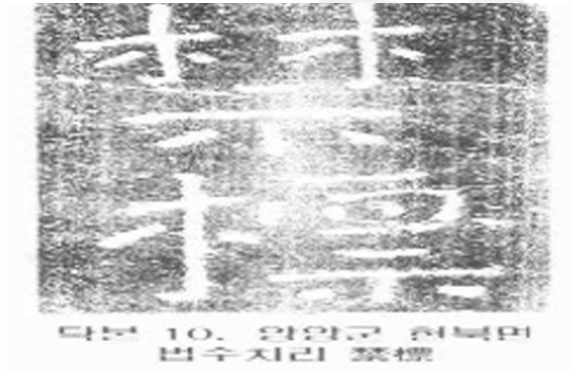
〈사진-4〉 어성전리 금표

어성전리 금표는 위성사진과 같이 어성전리 입구에서 舊道路의 마을 강가 언저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1984년도 군도 확포장공사 시 지반정리 작업을 하면서 매몰되었다고 박상우씨가 증언하고 있다. 이 금표도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한 금표이다.(향토사연구소)

6) 縣北面 法水峙里 禁標



〈사진-5〉 금표위치 위성사진



〈사진-6〉 법수치리 금표

범수치리 금표는 위성사진과 같이 오대산 頭老峰 자락의 釜淵洞 가마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남대천 상류 지역인 범수치리 마을로 가는 도로가에서 용화사로 들어가는 입구 강가에 인접한 암반위에 새겨져 있었던 금표로, 현 범수치리 리장 김진복(60세)씨가 어려서부터 보아왔던 것으로 1997년-1998년 경 양양군에서 다리 기초공사 시 중장비로 금표가 새겨진 암반을 훼손하는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강원대 신종원교수가 강원도 금표와 봉표(숲과 문화 제6권 2호)에서 1996년 11월 22일 탁본한 자료로서 가로 35cm, 세로 17cm의 크기로 암반에 금표라고 표기된 자료이다.(향토사연구소)

7) 縣北面 獐里 禁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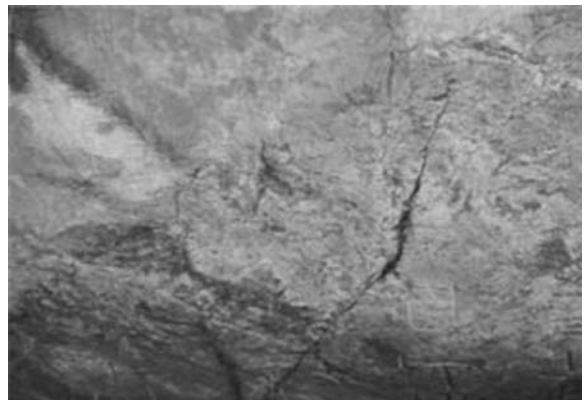
〈사진-7〉 금표위치 위성사진



〈사진-8〉 장리 금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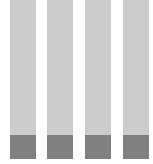
〈사진-9〉 장리 금표 2



〈사진-10〉 장리 금표 3

장리 금표는 위성사진과 같이 현북면 장리 연화동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가 장리1교를 지나 남대천으로 유입되는데 장리1교에서 배터골 방향으로 약 300m 지점인 개울가에서 최근까지 소재하고 있었으나 2002년 강원도 동해안을 강타한 태풍(루사)의 수해로 인해 매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장리 금표에 대한 조사보고서」¹¹⁾에 의하면 확인된 글자는 ‘淵山自 北界七十里’로, 유추하여 해석하면 ‘부연산부터 북쪽 경계 70리

11) 손병선, 강원대 박물관 제6호, 1999, 17쪽



다' 즉 부연산으로부터 북쪽 경계인 70리가 장리이다.

『양양의 땅 이름』에¹²⁾ 의하면, 장리의 부락명에

(1) 장리석각(獐里石刻)은 1936년 丙子季 8월 대홍수 때 黃腸禁山의 경계표석이 마을 앞 냇가 암벽에 노출되었다.

(2) 봉인둔(封印屯)은 본군내 黃腸禁山으로 釜淵禁山과 剪林禁山이 있는데, 장리석각이 있는 곳은 부연금산의 경계로 封印標가 되며 이 지역을 봉인둔이라고 한다.

(3) 松川리의 부락명 중 뱃재골(船材골)은 옛날 이곳에서 船材를 생산하여 수로를 이용하여 오산리와 수산등지로 보냈다고 한다.

이 자료에 의하면 부연금표가 장리석각임을 알 수 있다. 지금은 부연금산의 금표는 관리가 되지 않아 개울에 묻혀 있어 정확히 알수는 없다.

8) 西面 五色里 禁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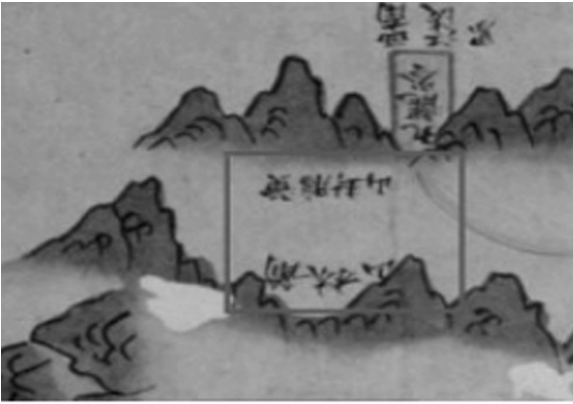


〈사진-11〉 금표암 위치 항공사진

오색리 금표는 양양에서 44번 국도를 따라 서면 오색령으로 오르다보면 서북주능선의 석고덩굴골에서 발원하는 물과 오색령 정상으로부터 흐르는 물줄기를 가로지르는 다리인 禁標橋가 있는데 이 다리의 인접지역에 예전부터 이 지역으로 출입을 금하는 금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자료로 금표암이라 표기되어있는 지도가 있다.(향토사연구소)

12) 『양양의 땅 이름』, 양양문화원, 1995, 255쪽

9) 西面 葛川里 剪林山 黃腸封山 禁標



〈사진-12〉 구룡령 전림산 황장봉산



〈사진-13〉 구룡령 옛길의 소나무

10) 『성종실록』 권94, 9년(1478) 7월 23일(壬午)

대사간 安寬厚가 아뢰기를 “신이 전날 낙산사에 舊路를 열어 禁標를 치우도록 청하였는데, 지금까지 下命을 듣지 못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낙산사의 금표는 100步에 불과하고 海水는 지극히 넓은데 하필 100步 안에서 고기를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나. 舊路는 절에서 거리가 멀지 아니한데 대개 양양을 왕래하는 使者들이 기생을 탐하여 오래 머물면서 간혹 햇불을 들고 밤길을 다니다가 불을 내어 延燒될 염려도 없지 않으니 만일 구로를 다시 연다면 내가 기생을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였다.

안관후가 말하기를 “기생이야 있고 없고 관계가 없으나 양양에 기생이 있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인데 이제 만일 기생을 없애버린다면 후세에 반드시 절을 위해서 없애었다고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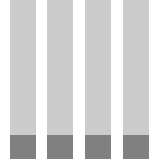
옛날 제왕도 澤梁은 금하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하였는데 이제 만일 금하신다면 후세에 반드시 ‘절을 위해서 금하였다’ 고 할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불교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大司諫安寬厚啓曰 臣前日請洛山寺開舊路除禁標至令未得聞命 上曰 洛山寺禁標不過百步海水至廣何必於百步內捕魚乎舊路距寺不遠凡奉使往來襄陽者耽妓留連或烽 炬夜行不無失火延燒之慮若復開舊路子欲革妓寬厚曰 妓則雖不開有無然襄陽有妓其來尙矣今若革之後世必曰爲寺革也古之帝王澤梁無禁與民共之今若禁焉後世必曰爲寺禁也 上曰予不好佛庸何傷臣子欲盡革)

11) 『성종실록』 권94, 9년(1478) 7월 23일(壬午)

안관후가 말하기를 “만일 농사가 흉년이 되어 백성들이 주리게 되면 반드시 海物을 취하여 먹어야 할 것인데 어찌 백성들로 하여금 굶이 가까운 데를 버리고 먼데에서 구하게 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그 금표의 안에 민가가 얼마나 되기에 꼭 해물에 의뢰해서 살려면 蒼海가 굉장히 넓은데 어찌 반드시 금하는 곳에서 해야 되겠는가?” 하니 도승지 孫舜孝가 아뢰기를 “다른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을 위해서 금표를 설치하는 것을 의리에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12) 『성종실록』 권94, 9년(1478) 7월 28일(丁亥)

傳에 澤梁無禁이라 하였는데 僧寺를 위하여 禁標를 세우고 고기 잡는 일을 금한다는 것은 나라의 대체에 어찌 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영동은 땅이 大海에 접해 있어서 고기잡이를 못하는 곳이 없는 데 단지 절 앞에만 금한 것이 어찌 백량무금이란 뜻에서害가 되겠는가”하였다.

13) 양양에는 별목을 금하는 황장목 숲이 펍 많았다.

매번 조정에서는 감독관을 파견해 황장목을 베게 했는데 양양부사에게는 으레 사사로운 이익이 많이 떨어졌다. 비록 청렴한 수령이라 할지라도 황장목을 남겨 훗날 자신의 장례 때 쓰게 하려했다. 아버지가 양양에 부임하시자 친지들은 황장목 이야기를 자주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듣고도 못 들은 척하셨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본심을 아느냐. 상고시대에는 얇은 관으로 검소하게 장례를 치렀다. 너희가 호사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후일 나의 장례 때 황장목을 쓸 생각으로 한다면 이는 내 뜻을 크게 거스리는 일이다. 황장목으로 나의 관을 짜는 일도 옳지 않다고 여기고 있거늘 직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일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황장목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벌목되어 대궐에 진상하였다. 그러나 진상하고 남은 널빤지들이 온 고을에 낭자했다. 아전들이 이 사실을 보고하자 아버지는 아무아무 속 시냇가에 가서서 말씀하셨다. “여기에 다리가 없어 사람들이 다니는데 괴로워한다. 이 나무로 다리를 놓으면 몇 년을 편리하게 지낼 수 있을 제다.” 그리하여 널빤지를 깎아 다리를 설치하였다. 그 후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을 때 유언에 따라 海松으로 만든 널을 썼다. 그걸 보고 경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¹³⁾

14) 순찰사에게 올림

인산(因山-순조 즉위년 11월에 정조(正祖)의 장례가 거행된 사실을 가리킨다)이 문득 지나서 왕께서 영원히 떠나셨으니, 하늘을 바라보며 길이 부르짖은들 어느 곳에 미칠 수 있겠습니까. 선달 추위에 순사또께서는 건강이 어떠하신지요? 하관(下官 연암의 자칭)은 노병이 날로 깊어가는 데도 오히려 다시 산으로 바다로 헤매면서 기꺼이 밤이나 탐하는 늙은이가 되었으니, 이거야말로 무슨 심보입니까.

지난번 대질 심문할 때에 마침 첫 추위를 만나서 5일 동안 찬 데서 거처한 탓에 다리 부분이 마비된 데다 다시 험하고 먼 길을 산 넘고 물 건너오다 보니 마침내 곱사등이가 (늘고 병약하여 허리가 굽는 병을 말한다) 되고 말았으니, 스스로 가련해한들 어찌하겠습니까. 고을의 폐단이나 백성들의 고질이 모두 고치기 어려운 형편인데, 두어 달 지내는 동안에 비로소 바람마저 매우 다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몰아치는 폭풍과 비릿한 회오리바람이 일어났다 하면 곧 기왓장을 날리고, 고래나 악어의 울음 같은 거센 파도소리가 벼갯머리에서 들리는 듯하니, 돌이켜 고향 집이 생각나도, 수천 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대저 이곳은 한때의 구경꾼들이 지팡이 짚고 나막신 신고 명승지로 찾을 만한 땅은 될 수 있지만, 노경에 노닐면서 몸을 보양할 곳은 전혀 못 됩니다. 더구나 하인 하나도 데리고 있지 않고 중처럼 외롭게 살고 있는 신세이리요!

13) 『燕巖集』 卷3 孔雀館文稿

도입한 지 9일 만에 앉은 자리가 따뜻해지기도 전에 금방 취리(就理-죄를 지은 벼슬아치가 의금부에 나아가 심문을 받는 일을 말한다)하는 일로 길을 떠났다가 10월 보름 뒤에 병을 안고 다시 왔는데, 갑자기 황장(黃腸)의 역사(役事-황장은 왕실에서 관을 만드는 데 쓰는 질 좋은 소나무인 황장목(黃腸木)을 말하는데, 양양에는 황장목 숲이 많았다. 정조가 승하한 뒤 양양에 황장목을 벌채하라는 부역이 내렸으며, 임시로 파견된 차관(差官)이 그 일을 감독하였다. 『過庭錄』卷3)를 당하여 차관(差官)을 겨우 보내고 나니 세금 거두는 일이 시급했고, 환곡 받아들이는 일이 겨우 끝나자 또다시 진영(鎭營)에 죄를 지어 날마다 머리를 썩이고 있습니다. 가만히 헤아려 보면 관(官)에 있는 지 50일이 채 못 되는데, 온갖 사무가 바빠서 두서를 정하지 못한 상황이며, 진영 장교의 목근적간(木根摘奸-산림의 도벌(盜伐) 여부를 조사하는 일)은 간교하기가 이루 헤아릴 수 없어, 촌민들이 겁을 먹고 올린 소장(訴狀)이 날마다 다시 관청의 뜰에 가득합니다. 진영에서는 아무렇게나 쓴 힐책하는 관문(關文)을 보내 단속을 너무 준엄하게 합니다. 어부 한 사람이 배를 고친 일로 인해 좋지 못한 말이 전관(前官)에게까지 파급되도록 하였으니, 제 마음에 미안함이 응당 또 어떠하겠습니까.

이는 당초에 진영 장교들이 지나는 길에 함부로 침탈한 것으로서 바로 그들의 수법인데, 뇌물을 토색질한 흔적을 은폐하고자 하여 사감(私憾)을 품고서 고자질한 것인즉, 교졸(校卒)들의 말만을 들어 부당하게 처리한 형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 곧장 먼저 감영에 보고한 것을 노여워해서, 반드시 한쪽 편을 들면서 자기 주장만 우기고자 하여 이렇게까지 일이 확대되어 버린 것입니다. 비단 저의 곤경이 비할 바 없을 뿐 아니라, 이 일이 전임 수령에게 관계되기 때문에 조사를 행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모두 새로 온 수령이 너무도 어리석어서 사세를 헤아리지 못하고 소홀히 다루었던 소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끄럽고 한스러운 마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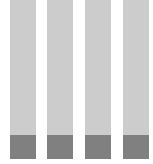
이에 앞서 순영(巡營)에서 간사한 상인들이 모여드는 폐단을 염려하여 각 고을에 특별히 관문을 보내어 엄하게 경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어찌 유독 양양(襄陽) 일대에만 특별히 진영으로 하여금 따로 목근적간을 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영의 장교들이 재삼 와서는, 봉산(封山)의 금표(禁標)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고 나무뿌리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많이만 적발하기 위하여 보이는 족족 기록하기 때문에, 산 아래 사는 백성과 다 쓰러져가는 절의 중들이 모두 놀라 도망할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¹⁴⁾

15) 패다리 놀기¹⁵⁾

이 놀이는 계곡천을 사이에 둔 양쪽 마을이 패를 지어 다리 놓기 경쟁을 벌인데서 비롯된 특유의 민속놀

14) 『燕巖集』卷3; 孔雀館文稿 因山奄過。弓劔永閑。瞻望長號。何所逮及。臘互。旬宣體履如何。下官衰病日深。而猶復間關嶺海。甘作老饕。是誠何心。曩者置對時。適值初寒。五日處冷。脚部不仁。因復跋涉險遠。遂成癢座。自憐奈何。邑瘠民尙。俱屬難醫。而居止數朔。始覺風氣絕殊。盲眼腥。發輒飄瓦。鯨吼轟噴。如在枕頭。回想家鄉。千嶂插吳。大抵一時遊客屐屐賞勝之地則可也。殊非暮境盤桓養之所。况其不帶一丁。孤棲如僧者乎。到任九日。坐席未溫。旋作就理之行。十月望後。扶病更來。遽當黃腸之役。而差官總送催科時急。捧糶綠畢。又復速辜鎮營。日事惱撓。默計在官未滿五旬。則百務控惚。頭緒未定。而鎮校之木根摘奸。譎詭莫測。村氓之生齒投牒。日復盈庭。鎮營之慢題評關。操束甚峻。因一海夫之改船。致令不聽之語。波及前倅。其爲不安當復如何哉。此不過當初鎮校之歷路橫侵。乃其伎倆而欲掩索賂之跡。含憾訐訴。則未免偏聽。校卒曲爲之地。且爲發怒於徑先報營。必欲右袒立幟。轉展至此。非但困境無比。因此事關交承。至於行查之境。此莫非新到昏聩。不諒事勢。疎率所致。慚恨何極。前此巡營爲鈔奸商流入之弊。別關嚴飭於列邑。非止一再。則何獨於襄陽一境。而特使鎮營。別爲摘奸其木根乎。今其鎮校再來三來。不分封山之標內標外。無論木根之若大若小。貪多務得。有見輒錄。山下居民。殘寺僧徒。咸思駭散。幸望特遣親禱

15) 장정룡, 양언석, 『양양군민속지』, 양양문화원, 2001, 112쪽



이다. 이 놀이는 매년 추석 전날 명절놀이의 하나로 다리 놓기 경쟁을 하면서 놀이를 펼쳐온 것이 전통이 된 것인데 시초가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고려중기부터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1910년까지 매우 성행하였다.

놀이과정은 첫째 다리 놓기꾼 입장과 다리터 지신제이다. 농기와 마을기, 촌장가마와 온악대 순으로 양 마을별로 다리 놓기꾼이 다리판과 다리발을 매고 들어와 지신제를 지낸다. 지신제는 다리터에 제석을 깔고 상에 주과포를 차려놓고 양 마을 촌장이 전작 배례한 후 상견례를 한다.

둘째는 다리놓기 경기이다. 양편마을 다리 놓기꾼은 두 패로 나누어 각기 다리발을 세우고 모래자갈을 운반, 동여매기 경쟁을 하며, 또 한쪽에서는 산에서 원목을 하산하고 노동요를 부르면서 다리판을 옮긴 다음 다리판 뺏기와 함께 다리발을 먼저 박고 묶어서 세우기 경쟁을 하는데 이때 다리를 빨리 놓는 편이 이기게 된다. 따라서 양 마을 아낙네들은 자기편 마을 일꾼들에게 참술을 권하며 흥겨운 농악가락에 맞춰 응원한다. 셋째는 이긴 마을 촌장 다리 건너기이다. 이긴 마을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흥을 돋군다. 이때 촌장은 가마를 타고 완성된 다리를 통행한다. 이긴 편 마을의 촌장이 동행하는 동안 진 편 마을 일꾼들은 패배를 감수하며 옆드려 예를 올린다. 이어서 팔 목도꾼이 원목을 목도로 다리를 통행하며 뒤이어 지게꾼, 괴나리봇짐을 진 나그네, 맨 뒤에는 아낙네들이 통행한다. 이 때 다리놓기 경쟁에서 패한 마을 일꾼들은 땅을 치고 침통해한다. 이긴 쪽 마을에서는 풍년과 마을의 번영이 온다는 유래가 전하는 놀이이다. 넷째는 양 마을 한마당 놀이로 양지마을과 음지마을 남녀노소가 어울려 흥겨운 놀이를 펼친다. 이는 협동으로 세운 다리 위를 양 마을 주민들이 왕래하면서 더욱 화합한다는 뜻으로 놀이는 절정을 이룬다.

16) 탁장사 전설¹⁶⁾

당시에는 나무가 여성전리 1구 개자니, 바딿재, 양양나들이 그 근방에는 상당히 아주 나무가 좋았다. 이기 예요. 요새도 저쪽 서면 범수치, 면옥치리 그쪽에서 소나무를 갖다가 경북궁 재목을 하잖아요. 그때도 경북궁이 타 가지고 재목을 구하려고 비었고, 일부 이야기는 고종이 돌아가셔서 관재를 쓰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마 경북궁 재목을 하기 위해서 그런거 같아요.

그 나무는 나라에서 임부를 동원시켜 가지구, 베어서 가지고 갈라고 할 때 강릉사람하구 양양사람 두 군의 군민들이 동원되어 가지구 나무 벌채 작업을 했지요. 그래 벌채 작업을 했는데, 바로 개자니 바딿재 앞에 양양나들이가 경계거든요. 강릉하고 양양하구. 그래 고 언덕 위에 나무가 좋은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루 한양에 보내는 재목을 좋은 걸 보낼려고 그 나무를 탐냈거든.

강릉사람은 강릉사람대로 베어서 바칠라구 하구, 양양사람은 양양사람대로 욕심을 내서 바칠라고 하니까. “야 그러지말고 우리 공정하게 하자. 서루”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비어서 어느 쪽으로 쓰러지는지, 똑 바로 비어서 쓰러진 쪽에서 가져가기로 하자”

그래 이제 벌채를 하니까 나무가 쓰러진 곳이 중간에 쓰러졌다. 이기예요. 그러니 “느이도 못가지구 가구, 우리도 못 가져가니 이걸 지구 가는 사람에게 주기로 하자” 그러니까 먼저 강릉 권장사가 그걸 지게에다 지

16) 장정룡, 양언석, 『양양군민속지』, 양양문화원, 2001, 112쪽

구 일어날라니까 몇 번 들럭들럭하구 꼬덕두 안해. 그 다음에 양양 탁장사가 지구 일어나서 두어 번 이렇게 하더니 양양 쪽에다 내려 굴리기 좋은 데다가 지어다가 내려서 양양에서 갖다 바쳤다. 그래가지구 탁장사가 그때부터 아주 장사로 지역에서 기러 가지구, 마을에 돌아와 가지구 잔치를 베풀었다 이기에요. 그래서 매년 그맘 때면 탁장사가 났다구. 서면 장사가 났다고, 탁장사, 탁장사 동네에서 해마다 마을 잔치를 한 유래에서 탁장사놀이가 나왔지요.(양양읍, 1995, 12,21, 고경재, 남, 63)

17) 탁장사 놀이¹⁷⁾

이 놀이는 조선조 말 경북공을 중건하기 위해 전국 각처에서 목재를 모아들일 당시 개지니골, 현재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 2리 서남쪽 일명 개전리와 현재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인 가매소골 사이 바디재에 황장목을 금양하던 산림이 있었다. 이곳이 양양과 강릉의 접경으로 양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나라에 바칠 벌목에 나와 일하게 되었다.

이 때 공교롭게도 제일 큰 한 그루 나무가 경계 부근에 서 있어 서로 차지하려는 데서 내기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나무를 베면서 쓰러뜨릴 때 경계 북쪽으로 쓰러지면서 양양이 차지하고 경계 남쪽으로 쓰러지면 강릉이 차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경계 중간에 쓰러지면 또다시 내기를하기로 하여 이 나무를 지고 가는 편이 갖기로 했다.

당시 강릉 연곡(현 퇴곡리)에 힘세기로 이름난 권장사가 먼저 지고 일어서다가 그대로 주저앉고 말자 양양 서면 소래(현 송천리)에 사는 탁구삼씨가 이 나무를 지고 서림까지 넘어오자 소래마을에서는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한다. 그 후부터 탁구삼씨는 탁장사로 널리 이름이 알려져 매년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탁장사 후 계자를 뽑는 놀이로 큰 잔치가 베풀어졌다. 장사가 난 마을은 풍년이 들고 번영한다고 한다.

놀이과정은 첫째마당이 나무터 오르기다. 양 고을 나뭇꾼들은 산길을 따라 지게 목동발을 치며 산으로 오른다. 이때 지게 목동발을 치고 춤과 양양아라리를 구성지게 부르며 관목이 있는 나무터로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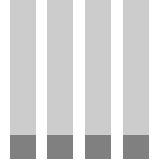
둘째마당은 목재 차지하기이다. 나뭇꾼들은 나무터에서 흥을 돋구며 양 고을 촌장은 서로 자기 고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고을의 경계에 위치한 관제로 어느 고을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여 나무가 넘어가는 쪽 마을에서 차지하기로 합의 한다. 그리고 산신제를 지낸다.

셋째마당은 양 고을 지게 줄다리기다. 나뭇꾼들은 나무에 다줄을 매고 지게 줄다리기를 한다. 다줄에다 지게 고리를 매고 있는 힘을 다하여 당기며 톱질꾼은 톱질노래에 맞추어 나무를 자른다. 그러나 나무는 공교롭게도 경계와 일치하게 넘어져 어느 고을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넷째마당은 양 고을 장사 힘겨루기이다. 양 고을 촌장은 다시 의논하여 힘센 사람이 대표로 나와 지게로 가면 목재를 차지하도록 합의한다. 먼저 강릉의 가매소골 쪽의 권장사가 두세 번 지려고 있는 힘을 다해 보다가 땅 땀도 못한다. 그러나 양양 개지니골 탁장사는 단숨에 목재를 지고 양양쪽으로 걸어온다. 양양 고을 사람들은 함성을 치니 강릉고을 사람들은 분통해 한다.

다섯째마당은 양양 탁장사가 지게 가마 태우고 한바탕 놀기다. 목재를 차지하게 된 양양 고을 사람들은 탁

17) 장정룡, 양언석, 『양양군민속지』, 양양문화원, 2001, 113쪽



장사를 맞아 흥겹게 논다. 탁장사를 지게 가마에 태우고 나무를 차지한 기쁨과 나무를 조정해 바치는 목재를 목도꾼들이 목도로 하삼하게 된다. 여섯째마당은 양 고을 한마당 놀기다. 양양 고을 사람들은 내기에 저 한탄하고 있는 강릉의 나뭇꾼들과 함께 놀 것을 권유하고 손을 잡아끌고 나와 한바탕 놀이를 한다. 이때 두 고을 사람들은 승패에 관계 없이 화합과 협동 단결을 의미하는 한마당 놀이가 절정에 도달하게 된다. 양양지역에서는 매년 현산문화제 시기에 탁장사 뽑기와 놀이를 재현하고 있다. 탁장사놀이는 지역인물과 관련된 것이지만 그 유래나 설화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해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양양지역의 전승놀이에는 농경 사회의 생활상과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상이 많은데, 근래 들어 탁장사놀이를 비롯하여 귀애파기, 패다리 놓기 등이 재현되었다. 특히 해마다 현산문화제 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탁장사놀이는 나무터오르기, 목재 차지하기, 지게줄다리기, 장사 힘겨루기, 한마당 놀기로 여섯마당으로 편성하여 1984년 강원도민 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였다. 지역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건강한 놀이문화의 정착을 위해 재현된 탁장사 뽑기는 축제종목으로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므로 지역인물과 산간생활문화를 선양하고 계승하는 측면에서 탁장사 설화는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닐 것으로 생각된다.

4. 襄陽의 校界

校界라는 標石은 현북면 장리(獐里)의 달하치와 연화동 마을 입구 삼거리 하천변 자연석에 음각되어 있다. 校界는 표식은 지금까지 발견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원래 경계표식은 交界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校界와 交界의 상관관계이다. 校界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없고, 양양의 장리에서 발견된 것이 처음으로 보인다. 校界의 위치가 현북면 장리이고, 마을 이름이 노루 장자로 노루골(놀골)로 불리는 마을로 노루와 수렵이 연관되었을 가능성으로 노루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보호 차원에서 이미 禁標(校界)를 설치하였을 것으로 유추하기도 하지만 금표 아니라 경계석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校獵(울타리를 쳐서 사냥함)은 울타리라는 의미로 울타리는 경계를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校



〈사진-14〉 교계위치 위성사진



〈사진-15〉 발굴된 달하치 교계 표지

자는 𪛗(경계)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조선조 한자사용의 용례라고 볼 수 있다.

交界의 사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동아 역시 몇 척이나 되게 가늘고 길며, 둥근 것·모난 것·아주 큰 것이 있다. 가지는 자색·흑색의 둥그스름한 것이 있는데 보기에 질항아리[土缸]와 같으며, 밭 가운데에 겹겹으로 달려 있는데 우리나라에 옮겨 심으면 보기 드문 완물(玩物)이 되겠다. 도로마다 교계패(交界牌)¹⁸⁾가 있다.(冬瓜亦有纖長數尺者。又有團方絕大者。茄子有紫黑團圓。見似土缸者。田中累累而結者。移種我東。可作稀玩矣。道路每有交界牌)

압록강에서 서쪽으로 책문(柵門)까지 120리는 교계(交界)가 되는 곳이므로, 사람이 살지 않고 산림도 그대로 두어 풀이 한 길이나 자랐고, 길을 찾을 수가 없는데, 소나무나 잣나무는 없었다.¹⁹⁾(鴨綠以西至柵一百二十里。爲交界之地。故人民不居。山林等棄。草長過丈。道路無緒。樹無松柏)

태상시(太常寺)에서 향·초·종이를 갖고 해부(該部)의 사관(司官)을 보내어 제무를 제사하고, 병부(兵部)에서 차량(車輛)을 갖추어 관(棺)을 실어 보내어 교계(交界 국경)에 이르렀다.²⁰⁾

(太常寺備香燭紙。遣部司官讀文致祭。兵部備車輛送棺至交界)

이상의 예문에서 交界는 경계의 표시로 사용하였고, 校界 또한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 校界는 부연금산의 경계와 관계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문제는 校界는 어떤 경계를 표시했는가 하는 것이다.

18) 『赴燕日記』 主見諸事 冬瓜亦有纖長數尺者。又有團方絕大者。茄子有紫黑團圓。見似土缸者。田中累累而結者。移種我東。可作稀玩矣。道路每有交界牌。

19) 『赴燕日記』 往還日記 戊子年(1828, 순조 28) 5월 9일(丁未) 鴨綠以西至柵一百二十里。爲交界之地。故人民不居。山林等棄。草長過丈。道路無緒。樹無松柏。

20) 『赴燕日記』 往還日記 무자년(1828, 순조 28) 5월 9일(丁未)

參考資料 (1) 襄陽府 黃腸封山 文獻資料(향토사연구소)



*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중 영동지도(古915,16-Y43)양양부 지도에 2곳의 황장봉산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며 주기에 각 봉산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 黃腸封山 二處內 箭林山 周回 三百三十里, 釜淵山 周回 三百里.

東至海十二里, 南至江陵府界六十五里, 西南至江陵府九龍嶺界七十里, 西至麟蹄界六十里, 春川府麒 麟界六十里, 北至杆城界四十五里.

❖ 林山 黃腸封山(九龍嶺 一帶), 釜淵山 黃腸封山(釜淵洞 가마소 一帶)

* 襄陽二處

箭林洞封山 周回 三百五十里自官門一百里

東至盈德 七十里
 西至春川界 七十里
 釜淵山封山 周回 三百里自官門八十里
 東至等無洞 六十里
 西至旆玉峙 六十里
 南至江陵界 七十里
 北至獐洞 八十里

釜淵禁標를 뒷받침해 주는 문헌자료인 『東國輿地勝覽』에서는 二處라 하였고, 또 『關東邑誌』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校界의 위치와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

「장리 금표에 대한 조사보고서」²¹⁾에 의하면 확인된 글자는 ‘淵山自 北界七十里’로, 유추하여 해석하면 ‘부연산으로부터 북쪽 경계 70리다’ 즉 부연산으로부터 북쪽 경계인 70리가 장리이다. 이 기록을 통해 부연산에서 북쪽으로 70리에 장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봉인둔(封印屯)은 본군내 黃腸禁山으로 釜淵禁山과 剪林禁山이 있는데, 장리석각이 있는 곳은 釜淵禁山의 경계로 封印標가 되며 이 지역을 봉인둔이라고 한다.²²⁾

즉 부연산으로부터 70리가 장리의 봉인(그때 사용한 물건)이 봉인둔이다. 이 봉인표를 마을 입구에 세운 것은 사람들에게 알려려는 목적이었다. 그리고 경계는 계곡을 따라 경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關東邑誌』에 기록되어 있는 ‘北至獐洞 八十里’ 북쪽 장리 계곡까지 80리라는 기록이다. 이 기록을 통해, 장리계곡 80리 지점은 校界라고 표지석이 있는 장리(獐里)의 달하치와 연화동 마을 입구 삼거리 하천변 자연석에 음각되어 있는 곳으로 보아야 한다.

釜淵禁山의 경계로, 봉인표가 있는 봉인둔에서부터 계곡을 따라 산속의 경계인 연화동과 달하치의 경계인 校界石이 있는 곳을 경계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校界는 부연산으로부터 80리에 있는 장리계곡(北至獐洞 八十里)의 산속경계 標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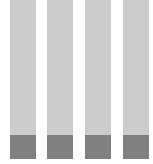
5. 結論

양양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고을로, 양양의 문화를 연구하면서 생각나는 속담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다. 양양의 우수한 문화라는 구슬이 길거리와 강가, 그리고 진흙 속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黃腸禁標 또한 마찬가지이다.

황장금표는 산과 길과 마을, 그리고 강을 중심으로 立標되어 있다. 즉 왕래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특정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

21) 손병섭, 위의 논문

22) 『양양의 땅이름』, 양양문화원, 1995, 255쪽



다. 그리고 강은 운반수단으로 인접해 있었다. 이처럼 황장금표는 양양의 산림문화를 알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조선조 사회에서 가장 넓은 지역과 가장 많은 금표를 가지고 있는 고을이 양양이다. 금표가 많다는 것은 신성한 지역이고 산림이 우수함을 상징한다. 가장 많은 금표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인식이 부족하여 양양의 금표는 모두 사라져가고 있다.

황장금표는 역사적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는 소중한 자료로서 보존가치는 무한하지만 양양의 금표는 보존과 관리가 전무하다. 이러한 연유로 강원도의 지정 기념물로도 지정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 『新增東國輿地勝覽』
- 『관동읍지』
- 『관동지』
- 『강원도지』
- 『經國大典』
- 『大典會通』
- 『受教輯錄』
- 『燃藜室記述』
- 『弘齋全書』
- 『茶山詩文集』
- 『文獻備考』
- 『大東地志』
- 『退溪集』
- 『寒水齋集』
- 『燕巖集』
- 『赴燕日記』
- 『양양의 땅이름』, 양양문화원, 1995
- 장정룡, 양언석, 『양양군민속지』, 양양문화원, 2001
- 박봉우, 「황장금표에 관한 고찰」, 한국인학회지85, 1996
- 손병섭, 「장리 금표에 대한 조사보고서」, 강원대 박물관 제 6호, 1999



襄陽 獐里와 “校界岩刻文”의 關聯性 研究

이규환 (양양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원)

I. 序言

장리(獐里)의 명칭에 관한 기록은 『조선지리지(朝鮮地誌資料)』¹⁾에 “장동(獐洞)” 우리말로는 “노루골”이라 기록되어 있고,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에 “부연산봉산북지장동(釜淵山封山北至獐洞)”이라 한 것으로 보아 “장동(獐洞)” 마을 칭호는 일제강점기부터가 아니라 18세기 이전부터 불리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마을의 자연환경은 앞쪽으로는 주문진을 부연동(釜淵洞)계곡에서 발원하여 범수치리·원일전리를 거쳐 양양읍 남쪽을 지나 바다로 들어가는 남대천이 흐르고 있다. 뒤쪽으로는 오대산에서 뺀어 내려온 정족산(鼎足山)줄기에 둘러싸여 산세가 비교적 험준하고 경사면이 급한 전형적인 산촌 마을이며, 산세로 보아 노루나 산양 등 산짐승들이 서식하기에 걸맞다고 사료되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노루사냥은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부터 수렵의 대상이 되었던 동물로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 유리왕 2년(기원전 18)에 “서쪽으로 사냥을 나가서 흰 노루를 잡았다.”²⁾ 민중왕 3년(46)에도 “동쪽으로 사냥을 나가서 흰 노루를 잡았다”³⁾는 기록이 나타난다.

조선왕조실록 중 태조실록기사⁴⁾에 “태조가 화살 한 개로 노루 두 마리를 사냥하다.”와 연산군실록기사⁵⁾에 “입으로 소리를 내어 노루와 사슴을 잘 잡는 산간고을 사람을 올려 보내도록 하라”는 기록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 양양도호부⁶⁾의 토공(土貢)편에 여우가죽·삿괭이가죽·노루가죽 등이 기록되어있다. 효종실록기사⁷⁾

1)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을 출간한 신종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2) 卷第十三 高句麗本紀 第一 瑠璃王 二年秋九月 西狩獲白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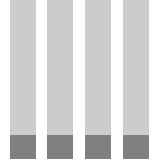
3) 卷第十四 高句麗本紀 第二 閔中王 三年秋七月 王東狩獲白獐

4) 태조 1권총서 53번째 기사

5) 연산 56권 10년 12월 10일 (병인) 5번째 기사

6) 地理志 / 江原道 / 江陵大都護府 /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토공(土貢)은 꿀·밀[黃蠟]·잣·호도·북나무종영·지초·석이·여우가죽·삿괭이가죽·노루가죽·대구·문어·상어·연어·전복·홍합·숭어·상머·자리·시우쇠오,

7) 효종 3권, 1년(1650) 경인 / 청 순치(順治) 7년 2월 5일(무자) 3번째 기사



에 “함경도 회령(會寧)과 종성(鐘城) 두 고을에 두만강을 건너온 노루가 수없이 많아 거주민들이 손으로 잡아먹기도 하였다.”란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들어 자연보호운동의 효시(嚆矢)라 할 수 있는 역사기록들 중에는 숙종 11년(1691년)의 변산금송절목(邊山禁松節目)과 정조 12년(1788년)에 송금사목(松禁事目)⁸⁾의 규정을 제정 소나무 보호 육성에 힘썼다. 반면 야생동물보호와 관련한 시책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성종 1년 4월 17일 기사⁹⁾에 “사노(私奴) 구질금(仇叱金)이 노루를 바치니 상을 주고 이후 산 짐승을 사사로 바치지 말도록 하다.”라 하였고, 성종 1년 8월 25일 기사¹⁰⁾에 “후원에 있는 노루와 사슴을 경릉(敬陵)에 방목하도록 명하다.”와 성종 1년 9월 16일 기사¹¹⁾에는 “후원의 노루와 사슴을 놓아주도록 명하다.”란 역사기록들이 있다. 이 로보아 조선 성종(成宗)은 동물애호심이 역대 어느 임금 보다도 강하였던 임금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양양문화원 주관으로 향토사 연구원들이 주축이 되어 양양지역을 대상으로 금표 암각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6개소(서면 2개소, 현북면 4개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표 암각문 대부분은 문서로만 확인되었지 현장답사 중에는 한건도 찾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산촌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구 파헤쳐져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진지 이미 오래였다는 것을 현지주민의 증언을 통해 알았다.

또한 금번조사과정에서 놀라운 성과라면 “교계 암각문(校界岩刻文)” 발견이라 하겠다. 당초 주민제보와 사진자료를 확보할 때만 해도 막막한 상태에서 발굴대상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세월교 가설공사와 홍수로 인해서 암석이 싸여있어 허탈감마저 갖게 되었다. 그러나 싸인 암석을 하나하나 치우고 바위에 싸인 흙을 물로 닦아내는 순간 또렷한 “교계암각문(校界岩刻文)”을 발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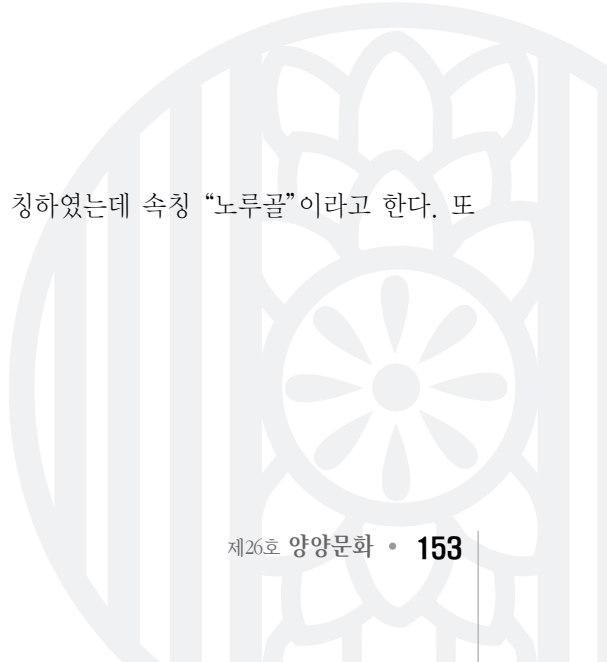
그 후 “교계 암각문(校界岩刻文)”의 낱말과 뜻을 찾기 위해 학계·언론계·전문가 등에 문의한바 알 수가 없었다. 심지어 양양군에서 교환근무를 하고 있는 중국 후베이성 공무원에 까지 물어보았으나 중국어사전에 교계(校界)란 단어와 뜻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양양문화원 향토사 연구원들은 교계(校界)와 관련한 낱말과 뜻을 찾는 과정에서 교렵(校獵)이란 낱말을 한한대사전(漢韓大辭典)에서 찾았다. 그 뜻은 “짐승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말뚝을 치고 사냥을 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조선왕조실록·중국고전·한문사전 등을 중심으로 교계의 낱말과 뜻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獐里의 由來

옛날에 이 마을에 노루가 많이 서식하였다하여 장리(獐里)¹²⁾로 칭하였는데 속칭 “노루골”이라고 한다. 또

8) 조선 정조 12년(1788년)에 소나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집.
 9) 성종 4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4월 17일(을축) 8번째 기사
 10) 성종 7권 1년 8월 25일 5번째 기사
 11) 성종 7권 1년 9월 16일 4번째 기사
 12) 『양양의 땅이름』 양양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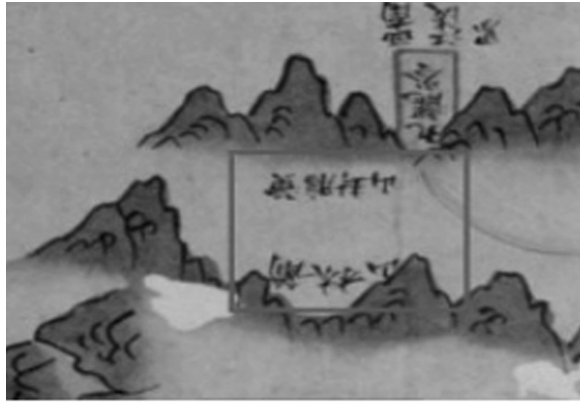
한 뱃터말[舟基洞] 근방에 겨울에 눈이 내려도 항상 눈이 녹아 없어지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곳에 노루가 자주 머물다 가는 좋은 터에 “장흥사(獐興寺)”라는 절을 지었다는 연유로 명명하였다고도 전한다. 1916년 행정구역 폐합 때 당산동·연화동·주기동을 병합하여 장리라 한다.

Ⅲ. 노루의 生態

사슴과에 속하는 동물로 한자어로는 장(麋)·균(麇·麂)이라 하였고, 장성한 노루를 궤(麇), 새끼를 조(麇), 암노루를 표(麀)라고 하는 등 노루에 관한 명칭은 세분화 되었다.

노루몸길이는 135cm, 뒷다리의 길이는 36.5cm, 귀의 길이는 12.7cm이다. 여름철의 털 색깔은 황갈색 또는 적갈색을 띠고, 겨울털은 점토색(粘土色)을 나타낸다.

겨울털에는 엉덩이의 백색 반점이 크다. 윗입술의 자반[鬚色斑]은 없고, 아랫입술에는 지극히 작은 암색(暗色) 반점이 있다. 노루는 고산·야산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전역의 산림지대에 서식하는데, 다른 동물과 습성이



〈법수치리 소나드리 노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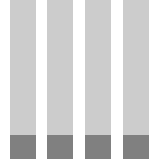
이 다른 점은 겨울철에도 양지(陽地)보다 바람만 심하지 않으면 음지(陰地)를 선택하여 서식하는 것이다. 노루가 음지에 사는 것은 그 체질의 천성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등에¹³⁾가 초가을에 노루 피부에 알을 품어 겨울철에 피하에서 자란 유충이 양지바른 곳에서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노루는 가려움을 견디지 못하여 음지를 찾게 된다. 노루의 짝짓기는 10월에 이루어지며 교미 후 즉시 임신되는 것이 아니라 정자가 일정기간 암컷의 자궁에 붙어 있다가 생육조건이 맞으면 수정이 되는 착상(着床)¹⁴⁾지연현상을 갖고 있는 동물이며 총 임신기간은 290일 이나 이중 150일은 착상지체기간으로 본다.

서식장소(棲息場所)는 초목이 우거져서 숨을 곳이 많은 10월경까지는 산 중턱 이하에서 서식하고 겨울이 되면 점차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12월 하순부터는 먹이 때문에 다시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는 것이다. 다음해 4월이 되면 암컷은 새끼를 낳기 위하여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 5월 단오를 전후하여 한배에 한두 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새끼는 생후 한 시간이면 걸어 다닐 수 있다하는데 2~3일이 지나면 사람이 뛰는 힘으로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게 된다. 야생에서 수명은 10~12년이고 최대는 17년 정도이다.

노루는 원칙적으로 일부일처(一夫一妻)제로 만약 짝이 포수에게 잡히면 짝 잃은 노루는 그 근처를 떠나지

13) 등엿과, 노랑등엿과, 동애등엿과, 재니등엿과 등에 속한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 파리와 비슷하고, 몸빛은 누른 갈색으로 흉부, 복부에 털이 있으며 주둥이는 뾰족하고, 소나 말과 같은 가축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

14) 포유류의 수정란이 자궁벽에 붙어 모체의 영양을 흡수할 수 있게 되는 현상



않고 수일간을 울며 돌아다닌다고 한다. 한번에 6~7m를 떨 수 있을 정도의 빠른 질주력을 가지고 있어서 적의 추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지만, 적이 보이지 않으면 정지하여 주위를 살펴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IV. 禁標 · 校界의 岩刻文 考察

1. 禁標 岩刻文

1) 概要

금표는 일정한 구역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경고등을 나타낸 표지(標識)로서, 넓은 뜻으로는 금송(禁松)·금줄 등도 포함되고 있다.

금표(禁標) 또는 봉표(封標)에는 사찰이나 태봉(胎封)등 신성하고 권위 있는 구역을 막는 것, 유배지에 임의로 출입을 금하는 곳, 좋은 재목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정된 숲의 출입을 금지 하는 곳, 사냥을 하는 구역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 산삼을 임의로 채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으로 나타나 있다. 조선시대에는 소나무를 중요시하여 이를 손상시키는 일을 금지해 왔으며, 또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뜻에서 가축을 함부로 놓아기르거나 재를 아무데나 버리는 자를 처벌하기도 하였다.

2) 禁標의 分包

양양지역의 금표분포실태조사(禁標分包實態調査)는 2013년부터 양양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향토사연구원들이 기존에 확보한 문헌과 구전자료를 바탕으로 탐문 및 현장실사를 하였다. 총 6개소인데, 서면 2개소[오색리 금표, 갈천리 전림산황장봉산금표(箭林山黃腸封山禁標)]와, 현북면 4개소[장리 금표(淵山自北界七十里), 원일전리 금표, 여성전리 금표, 법수치리 금표]이다.

고문헌의 기록에 조선시대 18세기에 군국사무(軍國事務)를 관장하던 비변사(備邊司)에서 만든 양양부(襄陽府)의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와 조선의 지리학자인 ‘김정호(金正浩)’가 19세기에 편집한 『大東地志』 토산편(土産編)에 「황장봉산이처(黃腸封山二處)」 “황장봉산 두 곳이 있다”¹⁵⁾라고 기록한 현북면 법수치리 일원의 “부연산황장봉산(釜淵山黃腸封山)”과, 서면 갈천리 일원의 “전림산황장봉산(箭林山黃腸封山)”은 자료를 편집한 시기만 다를 뿐 같은 내용으로 보여 진다. 문제는 금표실태조사결과 현존하는 금표(禁標)는 한곳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부수립이후 개발붐이 일면서 산촌지역의 주민숙원사업 해소차

15) 박봉우는 『숲과 문화 연구회』 논문에서 黃腸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전통시대에 禁松政策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禁山은 국가적으로 필요에 의하여 목재자원 특히 소나무를 배양하기 위하여 가꾸는 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황장목은 우리나라의 소나무 중에서도 몸통부분이 누런색을 띠고, 재질이 단단하고 좋은 나무로서 그 심재부를 취하여 조제한 목재는 주로 왕실의 관을 만드는 梓官用으로 쓰이고, 각 도에서는 주로 兵船의 제조 및 수리에 필요한 목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禁山은 숙종 25년(1699년) 이후부터 封山으로 개칭되어 소나무를 배양 육성하였다.

원에서 제방·암거·농로 등 시설물들의 기초 작업 과정에서 훼손되었다고 당시상황을 생생히 전해준 현지 주민을 통해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문헌들은 위의 고문헌 『대동지지(大東地志)』와 <비변사인방안 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 외에 강원대학교에서 발간한 『박물관지(博物館誌)』에 소개되었던 장리 금표[淵山自北界七十里]와, 1996년도까지 보존되었던 현북면 법수치리 용화사 입구의 금표, 원일전리 및 어성전리에 소재하고 있었던 금표(원일전리 거주 박상우가 보관하고 있는 사진자료 2건), 서면 오색리 금표암(禁標岩)¹⁶⁾이며 읍면지역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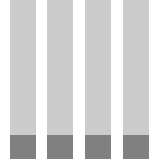
(1) 五色里 禁標

오색리 금표는 양양에서 44번 국도를 따라 서면 오색령 방향으로 오르다보면 서북주능선의 석고덩굴 골에서 발원하는 물과 오색령 정상에서부터 흐르는 물줄기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금표교(禁標橋)이다. 이 다리의 인접지역에 예전부터 해가지면 고개를 넘지 말라는 경고의 뜻으로 금표가 있었다고 한다. 백과사전에 수록된 한계령(寒溪嶺)에 대한 글을 살펴보면 글 내용은 우리정서와는 맞지 않게 편성한 부분이 많다.

높이 1,004m. 대청봉과 그 남쪽의 점봉산을 잇는 설악산 주능선의 안부이며,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의 분수령을 이룬다. 과거에는 양양군에 해당하는 산을 설악산이라 하고 인제군에 해당하는 산을 한계산이라 했다. 고개의 이름은 한계산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양양군에서는 오색령, 소동라령(所東羅嶺)이라고도 했으며, 양양군 사람들이 설악산을 넘어서 인제군이나 서울로 갈 때 주로 이용되던 험한 산길이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산도독이 들끓어, 해가 지면 이 고개를 넘지 말라는 뜻으로 고개의 길목인 양양군 서면 오가리의 길 옆 바위에 금표라고 새겨두었다. 지금도 그곳에 바위가 있으며, 한계령에 오르는 길에는 금표교가 있다.

남동쪽 사면에서 발원하는 오색천은 많은 지류를 합류하며 계곡과 폭포를 이루고 동해로 유입하는 남대천에 흘러든다. 서북쪽 사면에서 발원하는 물 또한 일대 계곡을 형성하면서 소양강 상류를 이루는 북천으로 흘러든다. 내설악은 산세가 수려하고 계곡이 아름답지만, 내륙 깊숙이 있고 교통이 불편하여 등산객 외에는 찾는 이가 드물었다. 그러나 1971년 한계령을 지나는 44번 국도인 한계령도로가 닦이고, 설악산 및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에 대비하여 1981년 인제군에서부터 양양군과 속초시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확장, 포장됨으로써 설악산의 북쪽으로 돌아 진부령이나 미시령을 넘던 자동차들이 이 고개를 이용하게 되었다. 한계령도로를 따라 옥녀탕·대승폭포·장수대·소승폭포·여심폭포·십이폭포·발폭포·오색온천·오색약수·선녀탕 등의 명승지가 이어지며, 서쪽 기슭 안산의 남쪽 사면에는 한계산성의 일부가 남아 있다. 이 도로는 설악산을 지나기 때문에 주변의 빼어난 경관을 구경할 수 있다. 서울에서 한계령까지는 서울-양평-홍천-인제-한계령 코스와 서울-가평-춘천-홍천-인제-한계령 코스가 있다.

16) 오색리 금표암에 관한 자료는 “표준 지명 사용에 관한 건(국무원 고시16호)”을 1961년 4월 22일 관보에 고시하였는데 금표암의 경위도는 128° 25′ -38° 05′ 이다. 금표교를 가설하면서 교량 명을 금표교로 하였고 현재사용중인 우리나라 전도에 금표암과 금표교란 위치가 표기되어 있다.



지난 2013년 4월 4일 양양문화원직원 및 향토사연구원 등 11명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금표교 일대 現場實事를 하였으나 금표암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2) 葛川里 箭林山 黃腸封山 禁標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에 나타난 황장봉산 2곳 중 하나인 ‘전림산황장봉산(箭林山黃腸奉山)’은 서면 구룡령(九龍嶺)일대에 표기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이지역도 황장목을 관리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설악여중 손병섭 선생의 구술에 의하면 장리 부연산 금표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무렵 전림산 금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지만 문헌기록을 본 기억이 있었다 하나 확실한 근거자료는 접하지 못했다. 서면 황이리 이춘우(86세 전 이장)는 46번 국도를 따라 송천리로부터 갈천리 구룡령까지의 여러 마을의 지리에 밝은데 “구룡령 방향의 마을들에서 금표 표지는 못 보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갈천리에 거주하는 엄익환(77세)은 오랫동안 심마니 일을 하였기 때문에 구룡령 지리에 밝은데 “갈천리 지역은 물론 홍천 내면 명개리 방면에서도 금표 암각은 못 보았다”라고 같은 증언을 하였다.

(3) 獐里 禁標

양양문화원 향토사연구원 일행(이기용, 김양식, 김재환)은 지난해(2013. 10. 22. 15:00~17:00) 현북면 장리 속칭 배터마을 입구 하천변에서 황장 금표가 거꾸로 촬영된 사진(1990년 경 촬영)을 가지고 있을만한 곳을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당시 황장금표가 있었다고 하는 곳은 이 마을 서쪽방향에 위치한 연화동에서 발원하여 내려오는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 300m지점의 배터골 개울가에 최근까지 소재하였으나 2002년 강원도 동해안을 강타한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유실 된 것으로 보여 진다. 손병섭(56세)교사의 『장리금표에 대한 조사보고서』¹⁷⁾의 “연산자북계칠십리(淵山自北界七十里)”라는 암각문은 문맥상으로 보면 금표라기보다는 이정표일 가능성이 높다. 두 <비변사인방안지도> 자료를 <장리 금표> 비교해보면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의 “북지장동팔십리(北至獐洞八十里)”와 “연산자북계칠십리(淵山自北界七十里)”는 거리(獐洞八十里(-)



<비변사인방안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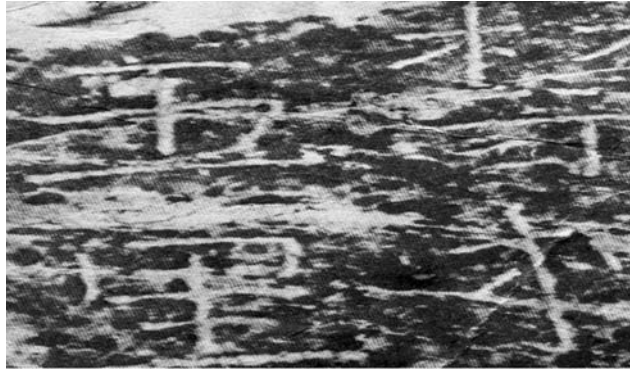
<장리 금표>

17) 속초시 설악여자중학교 교사 손병섭(56세)은 강원대학교 박물관지 제6호(1999년)발행

北界七十里)로는 10리 차이가 나며, 마을명도 장동이라 하였고 암각문이 발견된 곳도 현북면 장리이다. 두 자료의 방향도 지금의 주문진 부연동에서 북쪽방향에 위치한 장리로 보아 암각문은 금표라기보다는 이정표로 보아야 한다.

(4) 元日田里 禁標

이 금표는 장리에서 발견된 금표 지점에서 약 5리(2km) 위쪽에 위치한 원일전리 마을 앞 하천변이다. “최초발견당시 암각문은 크게 훼손되지 않아 또렷이 볼 수 있었으나 2009년 경 새 농촌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훼손되었다.”고 원일전리 거주 박상우(78세)는 증언 하였다. 현재 박상우가 소장(所藏)하고 있는 원일전리 금표자료는 1975년도에 「포토코리아」에서 책자를 간행할 당시 편집부 관계자들이 탁본하여 소개한 글이며 이 금표는 당시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한 암각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원일전리 금표〉

(5) 漁城田里 禁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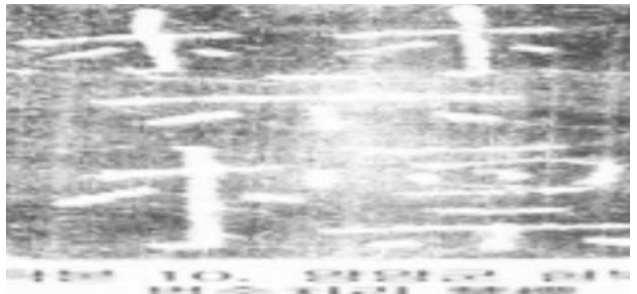
원일전리에 소재하고 있었던 금표 위치에서부터 어성전리 방향으로 약 5리(2km) 지점인 어성전리 입구이다. 그곳에서 “구도로의 마을 강가 언저리에 있었는데 1984년도 군도 확포장공사 시 지반정리 작업을 하면서 매몰되어버렸다.”고 원일전리 거주 박상우가 증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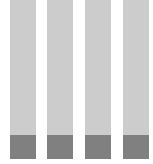
〈어성전리 금표〉

(6) 法水峙里 禁標

오대산 두로봉(頭老峰)자락의 부연동(釜淵洞)가마소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남대천 상류지역인 법수치리 진입도로의 셋길에 용화사가 있다. 그곳 입구의 냇가 암반위에 금표 암각문이 있었다. 김진복(60세 법수치리 리장)은 “어려서부터 보아왔던 이 금표를 1997~1998년 사이에 양양군에서 발주한 교량기초공사를 하면서 금표문 암반을 중장비로 파쇄작업을 하는 공사현장을 목격하였다.”



〈법수치리 용화사 입구금표〉



고 구술하였다. 지금은 형체를 확인할 수 없으나 신종원 교수가 1996년 11월 22일 탁본(가로35cm, 세로 17cm의 금표 암각문)¹⁸⁾ 한 자료만 전하고 있다. 지난 2014. 12. 5에 범수치리 용화사 입구에 있었던 금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올라가는 길에 3개 마을(장리, 원일전, 어성전리)의 옛 금표 암각문을 찾으려고 현장 답사를 하였으나 한곳도 못 찾고 내려 왔다.

2. 校界 岩刻文

1) 發見動機

양양문화원의 주관으로 향토사연구소에서 2013년부터 양양지역을 대상으로 금표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북면 장리 노루골길 소하천 상류지점인 달하치와 연화동 갈림길 냇가에서 “校界”란 암각문을 발견하게 되었다. 발견과정을 살펴보면 최근 지역주민들로부터 달하치(月下峙)에 암각문이 있었다는 것을 구전으로만 알았지 그 실체를 알 수 없어 막막했다. 반면 이 표지가 있다는 곳은 험준한 산길로 차량통행이 불편한 곳이며 걸어서도 고갯길을 한참 올라가는 곳으로만 알았다. 양양향토사연구원 김재환은 2013년 8월 중순경 교계암각문(校界岩刻文)을 찾을 목적으로 장리 연화동에 거주하면서 토봉업을 하고 있는 지인을 만나러 장리의 연화동으로 갔다.

그때 지인과 함께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오래살고 있다는 신성균(남 67세)을 만나게 되었다. 지나는 말로 혹시 이 골짜기에서 암각글씨를 보시지 못했느냐고 물었더니 마침 그분이 반기면서 예전에 그곳 바위에 새겨진 글자가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다면서 “교계(校界)”사진 한 장을 제공해 주면서 표지글자가 수년전에 수해로 매몰이 되었다고 하였다. 제공자와 함께 교계 촬영지 위치를 확인하였으나 당일에는 표지를 찾지 못했다. 이를 근거로 2013년 9월 3일 양양문화원 사무국장의 안내로 전 문화원장(양동창)외 향토사연구원(이규환, 김재환, 이기용)들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암각위치는 달하치골 입구의 냇가 이



〈교계 암각문 작업착수〉



〈복구 작업 후〉

18) 신종원 교수의 [강원도 금표·봉표](숲과 문화 제6권 2호)한 자료만 전하고 있다. 지난 2014. 12. 5에 범수치리 용화사 입구에 있었던 금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올라가는 길에 3개 마을(장리·원일전·어성전리)의 옛 금표 암각문을 찾으려고 현장 답사를 하였으나 한곳도 못 찾고 내려왔다.

었는데 연화동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를 가로지르는 소규모 세월교(洗越矯)공사과정에서 매몰된 지 한참 되었다. 그동안 쌓인 흙과 얽혀있는 돌을 치우는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다행히 교계 암각문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원상태로 복구하는데 성공하였다.



〈교계 암각문 복구완료〉

그 후 임시 보존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2013년 11월 14일 강원문화대축전에 필요한 선무영상용 사진 촬영차 미디어회사 관계직원이 다녀갔고, 2014년 11월 13일에는 교계(校界)연구 발표를 위하여 관계자(윤여준 현 문화원장 · 이규대교수 · 양언석교수와 향토사연구원)들이 현지답사를 실시한바 있다.

〈표 1〉 岩刻文 調査 및 現地訪問 狀況

日 時	所在地	調 査 內 容	證 言 者	調 査 및 訪 問
2013. 3. 6	원일전 여성전	· 원일전-농지조성 및 하천정비 사업시 훼손 되었다고 함. · 여성전-도로 확장공사 시 매몰되었음	박상우	양양문화원 향토사연구원
2013. 4. 4	오색리	· 금표교 및 금표암 조사 하였으나 미 발견		양양문화원 향토사연구원
2013. 8. 21	법수치	· 과거 법수치 용화사 입구에 있었던 금표 조사하였으나 1997~1998년경 양양군청에서 다리 기초공사 시 훼손 되었다고 함	김진목	양양문화원 김재환연구원
2013. 8. 31	장리	· 태풍 루사 때 매몰 또는 유실됨을 확인	최근천	양양문화원 김재환연구원
2013. 9. 1	장리	· 1999년 강원대학교 박물관지에 장리금표를 기고한 손병섭 선생과 현지답사	손병섭	양양문화원 김재환연구원
2013. 9. 3	달하치	· 퇴적된 토석 제거 후 교계 암각문 발견	-	양양문화원 양동창전원장 김광영 국장 향토사연구원
2013. 11.14	달하치 교계	· 2013년 강원문화대축전 선무영상용 사진촬영차 교계발견 현지촬영 협조	-	양양문화원 향토사연구원 미디어회사 촬영팀
2014. 11.13	달하치 교계	· 교계암각문 발표를 위한 현지답사	-	양양문화원장 김광영 국장 이규대 교수 양언석 교수 향토사연구원

2) 校界와 關聯된 資料蒐集

(1) 漢文辭典

- 『韓國語辭典』 校 : 울타리, 바자울(바자로 만든 울타리)
- 『漢韓大辭典』 校獵 : 나무와 나무를 서로 연결해서 둘러막고 짐승을 잡는 일

〈표 2〉 漢文辭典 낱말 뜻

校	韓國語辭典	① 학교(學校) ② 장교(將校) ③ 부대(部隊), 군영(軍營) ④ 울타리, 바자울(바자로 만든 울타리) ⑤ 차꼬(죄수를 가두어 둘 때 쓰던 형구(刑具), 형구(刑具)의 총칭(總稱) ⑥ 다리 ⑦ 헤아리다, 따져보다 ⑧ (수를)세다...
	漢韓大辭典	① 틀 ② 교계할 ③ 이를, 보할 ④ 사냥할 ⑤ 끊을 ⑥ 교정할 ⑦ 싸움어울 어질 ⑧ 장교 ⑨ 마굿간
界	韓國語辭典	① 지경(地境) ② 경계(境界) ③ 둘레 ④ 한계(限界) ⑤ 경계(境界)안, 세계(世界) ⑥ 부근(附近) ⑦ 경계(境界)를 삼다, 이웃하다 ⑧ 사이하다, 이간하다(離間...)
	漢韓大辭典	① 지경, 갈피, 경계 ② 한정할 ③ 이간할 ④ 둘레

(2) 古文獻

임하필기 전모편(林下筆記 典謨編) 변방의 방비에 조선의 신립(申砮)장군이 평상시 철갑 기병 500여 명을 조련(操鍊)하여 '사냥[校獵]'이란 이름으로 전투를 익히게 하였다는 역사기록이 있다. 이해보아 교렵(校獵)은 사냥대회로 짐승을 일정한 곳에 몰아 놓고 무기를 사용하여 사냥을 하는 일종의 군사훈련 이라고 볼 수 있다.

목민심서(牧民心書) 권8 연졸 제2조(牧民心書卷八 練卒 第二條)에 “교기(教旗)라는 것은 평상시의 조련(操鍊)하는 법으로서 옛날의 교렵(校獵)이 곧 이 뜻이다.”라 하였다. 그 외 조선의 문종·연산군·중종·선조·현종실록에 9건, 승정원일기 9건, 율곡선생전서 권지2(詩)의 13건의 문집에 교렵(校獵)에 관련된 기록이 있다. 중국고문헌에 교렵(校獵)에 관한 자료는 중국정사조선전 5건, 한국고대사료집성 중국편 15건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특히 수서(隋書)¹⁹⁾ 고리전(高麗傳) 옷·무기 편에 “매년 봄·가을에 짐승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말뚝을 치고 사냥을 하는데 임금의 몸소 와서 본다.(每春秋校獵 王親臨之)”라 하였다. 중국 전한(前漢)의 역사를 기록한 한서(漢書)²⁰⁾ 성제기(成帝紀)의 주석²¹⁾선생에 “이 교(校)라는 것은 말뚝을 서로 꿰뚫어 만든 울

19) 중국 이십오사(二十五史)의 하나. 중국 당(唐)나라의 위징(魏徵) 등이 편찬한, 수(隋)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636년에 간행되었으며, 모두 85권이다.

20) 전 120권. 중국 정사(正史)의 하나로, 후한의 반고(班固 : 32~92)가 82년(建初 8) 무렵에 완성했다. 반고는 자가 맹견(孟堅)이고 부풍(扶風) 안릉(安陵 : 지금의 산시 성[陝西省] 셴양 현[咸陽縣]) 사람이다. 반고의 아버지 반표(班彪)는 사마천(司馬遷)의 <사기>가 한 무제 때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그 뒤의 일을 쓴 유향(劉向)·유홍(劉歆)·양웅(揚雄) 등의 역사책이 왕망(王莽) 정권에 아첨하여

타리(關校)를 말한다.”라 하였고, “교렵(校獵)은 울타리를 크게 둘러 짐승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사냥하는 것을 말한다.”고 교(校)와 교렵(校獵)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당나라의 초기의 학자 안사고(顏師古)는 주석에서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師古曰(사고왈)
如說非也(여설비야)
此校謂(차교위)
以木自相貫穿(이목자상관천)
為關校耳(위란교이)
校人職云(교인직운)
六廡成校(육우성교)
是則以遮關為義也(시칙이차란위의야)

校獵者(교렵자)
大為關校以遮禽獸而獵取也(대위란교이차금수이렵취야)

軍之幡旗雖有校名(군지번기수유교명)
本因部校(본인부교)

此無豫也(차무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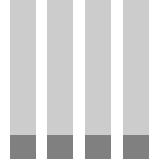
사고(師古) 가로되
<이런 주장은 틀렸다.
이 교(校)라는 것은
말뚝을 서로 꿰뚫어 만든
울타리(關校)를 말한다.
교인직(校人職)에
여섯 마구간이 교(校)를 이룬다고 하였다.
이것은 곧 울타리를 둘러막는 것이 그뜻이기 때
문이다.
교렵(校獵)은
울타리를 크게 둘러 짐승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사냥하는 것을 말한다.
군대에서 쓰는 깃발을 비록 교(校)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원래 부교(部校:군부대 가운데하나) 때
문이지
이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하였다.

(3) 校界 낱말 뜻

지금까지 수집된 각종 자료들을 중심으로 볼 때 漢文辭典에서는 校界의 낱말 뜻을 “울타리 경계”라고 보았고, 韓·中 古文獻을 통한 校界의 낱말 뜻은 “말뚝을 서로 꿰뚫어 만든 울타리경계”라는 뜻을 각각 도출하게 되었다. 위자료의 출처는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울타리 경계”라는 공통된 문구(文句)를 찾아낼 수 있었다. 한편 고문헌에서 ‘사냥[校獵]’이란 이름으로 전투를 익히게 하였다는 역사기록이 있다. 이로보아 교렵(校獵)은 사냥대회로 짐승을 일정한 곳에 몰아 놓고 무기를 사용하여 사냥을 하는 일종의 군사훈련 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장리의 명칭(노루골)과 산세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산짐승들이 서식(棲息)하였기 때문에 이곳에 사냥터(옛 군사훈련장)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추정하면서 漢書 成帝紀 顏師古 注에서 밝힌 “校

꼭필한 것을 유감으로 여겼다. 반표는 직접 사료를 찾아 <사기> 이후의 한나라 역사인 <후전 後傳> 65편을 저술했다. 반고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 책을 더욱 정비함과 아울러 <사기>의 기록을 토대로 무제 이전의 한나라 역사를 덧붙였고, 한 고조로부터 왕망 정권의 멸망에 이르는 230년간(BC 206~AD 24)의 역사를 기록했다. 이 책은 제기(帝紀) 12편, 연표(年表) 8편, 지(志) 10편, 열전(列傳) 70편 등 총 100편이다.

21) 수서(隋書) 고리전(高麗傳) (원문) (1/3)작성자 길동선생.



字”의 설명을 감안 낱말 뜻을 다음과 같이 사료한다.

〈漢書, 成帝紀 顏師古注〉

- 校 : 말뚝을 서로 꿰뚫어 만든 울타리
- 校獵 : 울타리를 크게 둘러 짐승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사냥하는 것

〈筆者의 校界 낱말 뜻 推定〉

- 校界 : 말뚝을 서로 꿰뚫어 만든 울타리 경계

V. 맺는 말

지금까지 노루골[獐里]의 유래를 중심으로 노루의 생태와 양양지역에 분포된 금석문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금표는 일정한 구역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경고등을 나타낸 표지(標識)로서 당시 황장목 보호를 위해 입산을 금지 하는 표지일 뿐 장리마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되었다.

지난 2013년 9월에 현북면 장리 달하치에서 발견된 “校界”란 암각문의 공론화(公論化)가 불가피 하였다. 고문헌 및 한문사전 등을 면밀히 고찰하였으나 그에 상응한 단어와 뜻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자 학계와 전문가에 의뢰하여 자문을 득한바 있으나 확실한 뜻을 밝히지 못하였다. 각고의 노력으로 중국당대(中國唐代)의 초기 문헌학자(文獻學者)인 안사고(顏師古)가 중국 전한(前漢)의 역사를 기록한 한서(漢書)성제기(成帝紀)의 주석에서 밝힌 바 있는 “교(校)”와 “교렵(校獵)”에 관한 두 낱말을 접하게 되었다. “교(校)”는 “말뚝을 서로 꿰뚫어 만든 울타리”라는 것과 “교렵(校獵)”은 “울타리를 크게 둘러 짐승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사냥하는 것을 말한다.”라 하였다. 다만 “교렵(校獵)”이란 낱말과 뜻은 『한한대사전(漢韓大辭典)』을 통해 알고 있었으나 중국 당대이전에 사용되었던 용어라는 것은 처음 알게 되었다.

이 마을 유래에서 보았듯이 얼마나 노루가 많았으면 “노루골” 이라고 불렀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나 그것은 산세가 노루의 생태환경에 걸맞아 많은 노루가 서식(棲息)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루서식환경이 좋은 곳에 교계[校界:말뚝을 서로 꿰뚫어 만든 울타리 경계] 암각문이 있다는 것은 그 주변에 “교렵[校獵:울타리를 크게 둘러 짐승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사냥하는 것을 말한다.]”사냥터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일반지역과 “교렵(校獵)” 사냥터(군사훈련장)의 경계를 설정하여 함부로 사냥을 하지 못하게 출입금지의 성격과 사냥에 따른 백성들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료된다. 반면 “校界” 암각문은 지금까지 주변마을에서 발견된 금표 암각문체와 비교할 때 전혀 다른 또렷한 해서체(楷書體)로 암각 된데다 크게 훼손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본 건은 확실한 설치연대와 무엇 때문에 산간오지에 암각문을 표시하게 되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선조들의 사냥문화 활동의 소산(所産)으로 보고자 하는데 큰 이의는 없으리라고 본다. 비록 규모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역사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안목에서는 역사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아 학계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행정적 차원에서 암각 위치

가 계곡이므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훼손과 산촌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위적 파손이 우려되는 곳이다. 관계 당국의 조속한 보존대책과 함께 본 “校界”란 낱말이 희소(稀少)성 단어이면서도 역사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參考文獻】

- 『大東地志』
- 『牧民心書』
- 『朝鮮王朝實錄』
- 『松禁節目』
- 『禁松契座目』
- 강원대학교 박물관지 2호 (강원도의 禁標·封標. 신종원 1995)
- 『續大典』 『萬機要覽』 『大東地志』 『襄州誌』 『寧越郡邑誌』
- 『숲과 문화 박봉우』 『소나무와 우리문화 박봉우』
- 강원대학교 박물관지 6호 (장리 禁標에 대한 조사보고. 손병섭 1999)
- 『成宗實錄』 『英祖實錄』 『關東邑誌』 『東國輿地勝覽 襄陽府』
- 『襄陽의 땅 이름』
- 『강원도의 금표·봉표』 (숲과 문화 제6권2호) 신종원 교수
- 備邊司印方眼地圖
- 『關東誌』
- 『金昌翁의 오대산기 중 일부』
- 『燕巖集』
- 『過庭錄 卷3』
- 『네이버 한문사전』
- 『韓國國語辭典』
- 『漢韓大辭典』
- 포-토 코리아 (1975년 간행)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口述】

- 김진목 (60세) : 현북면 법수치리 리장
- 박상우 (78세) : 현북면 원일전리
- 최근천 (86세) : 현북면 장리
- 신성균 (67세) : 현북면 장리 연화동
- 엄익환 (77세) : 서 면 갈천리
- 이춘우 (86세) : 서 면 황이리
- 손병섭 (56세) : 속초 설악여자중학교 교사

2014 문화학교 소개

문화학교 교실별 수료자

교 실 명	강 사	수 료 자
합 계	10 명	153명
한 시 교 실	이 종 우	김경일의 13명
서예교실(한문)	함 연 호	손인환외 31명
서예교실(한글)	김 광 희	장우인외 9명
한국화교실	정 영 택	이순애외 12명
민 요 교 실	김 봉 신	이만호외 14명
기 타 교 실	강 명 근	양승순외 20명
사물놀이교실(초급)	홍 이 표	이연주외 7명
사물놀이교실(중급)	홍 이 표	손영애외 8명
색소폰교실	이 명 재	최종원외 11명
난 타 교 실	주 동 진	민병예외 8명
수채화교실	김 영 덕	박현희외 9명

모범상 수상자

교 실 명	성 명	교 실 명	성 명
한 시 교 실	박문희	사물놀이교실(초급)	이연주
서예교실(한문)	신동우	사물놀이교실(중급)	김복순
서예교실(한글)	조덕희	색소폰교실	김용종
한국화교실	김경희	난 타 교 실	용춘자
민 요 교 실	강정희	수채화교실	윤정희
기 타 교 실	양승순		

2014년도 문화학교 수강생 수상 및 공연내역

강좌명	수상 & 공연 내역
한글서예	대한민국 강릉단오서예대전 특 선 : 김재욱(2점), 이근천, 김영순(2점) 추천작가 자격 획득 : 김재욱, 김영순 대통령상님의 침묵서예대전 우수상 : 김영순 삼체상 : 이근천, 김재욱, 김영순 특 선 : 조덕희 전국공모 강원서예대전 특 선 : 김영순 입 선 : 이근천 대한민국 운곡서예·문인화대전 삼체상 : 김재욱, 이근천 특 선 : 김영순, 조덕희
	한시
한문서예	님의침묵서예대전 특 선 : 변대환 입 선 : 신동우 강릉단오서예대전 특 선 : 변대환, 신동우 무릉서예대전 입 선 : 이근천, 전성우, 이광우, 김광태 특 선 : 변대환 운곡서예대전 입 선 : 김주용, 전성우 특 선 : 변대환, 신동우, 이광우, 김광태

강좌명	수상 & 공연 내역
한문서예	신사임당 미술대전 입 선 : 이근천, 이광우 강원미술대전(서예부문) 입 선 : 변대환
	민요
사물놀이 (중급)	· 신년하례식 공연 · 제19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은상 · 제4회 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요경창대회 공연 · 기로연 공연
	수채화
한국화	신사임당미술대전 우수상 : 박예숙 특 선 : 이순애, 김경희, 신동우 입 선 : 변대환

2014 양양문화원 제8기 어르신문화학교 사진반 개강 !



1.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실버세대들이 지역 문화자산을 발굴 개발하여 타 세대와 소통하면서 사회에 봉사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2013년 연극반에 이어 금년 8기는 “양양의 자연경관에 폭 빠진 어르신 사진반”을 운영하였습니다.



2. 이론 수업과 실습을 반복하면서 익힌 사진 기술을 바탕으로 마을 어르신의 장수 사진을 무료로 찍어드리는 나눔봉사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 어르신문화학교는 노인의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숨은 끼를 발굴하여 노년의 삶을 보람 있고 아름답게 가꾸어 갑니다.



4. “마음이 희망으로 물드는 신나는 예술여행”과 함께 사진예술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근원이며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향토문화예술 향유권을 신장시키고 지역 발전과 성장에 동참합니다.



5. 어르신문화학교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양양문화원이 주관하여 직접 교육하는 신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문화학교 사진반에 군민들이 많은 관심과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수강생 명부

번호	성명	비고
1	김양식	반장
2	김상남	총무
3	이철규	
4	최돈녀	
5	이영희	
6	길경숙	
7	김선웅	
8	강영근	

번호	성명	비고
9	김명숙	
10	정연섭	
11	천세영	
12	송미애	
13	박윤옥	
14	지봉스님	
15	전영권	강사
16	최낙민	강사

※작품 전시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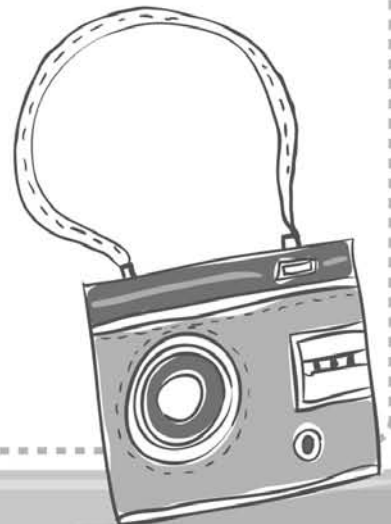
- 2014. 09. 19 홍천문화원 전시실
- 2014. 11. 02~06 양양군문화복지회관 전시실
- 2014. 11. 07 춘천문화예술회관 전시실

※회원 수상내역 : 수상자 김양식

- 2014.07.12 제27회 안동전국사진공모전 동상 (작품명:이영없기)
- 2014.11.02 제18회 강원관광사진전국공모전 입선 (작품명:연어맨손체험)
- 2014.12.01 제14회 속초관광사진전국공모전 입선 (작품명:만선외1점)

※사진반 신청 문의

- 양양문화원사진반담당자 : 신정원 033-671-8762
- 사진반총 무 : 김상남 010-6321-4684



휴양림

● 서림계곡휴양지

양양군 서면 서림리에 위치하고 있다. 구룡령을 넘어 달리다 보면 차를 멈춰 쉬고 싶은 곳, 미천골 자연휴양림과 불바라기 약수터가 가까운 곳에 있고 넓은 시냇물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있는 산자수려한 곳이다. 마을관리휴양지내 각종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다양한 체험이벤트가 개최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 미천골자연휴양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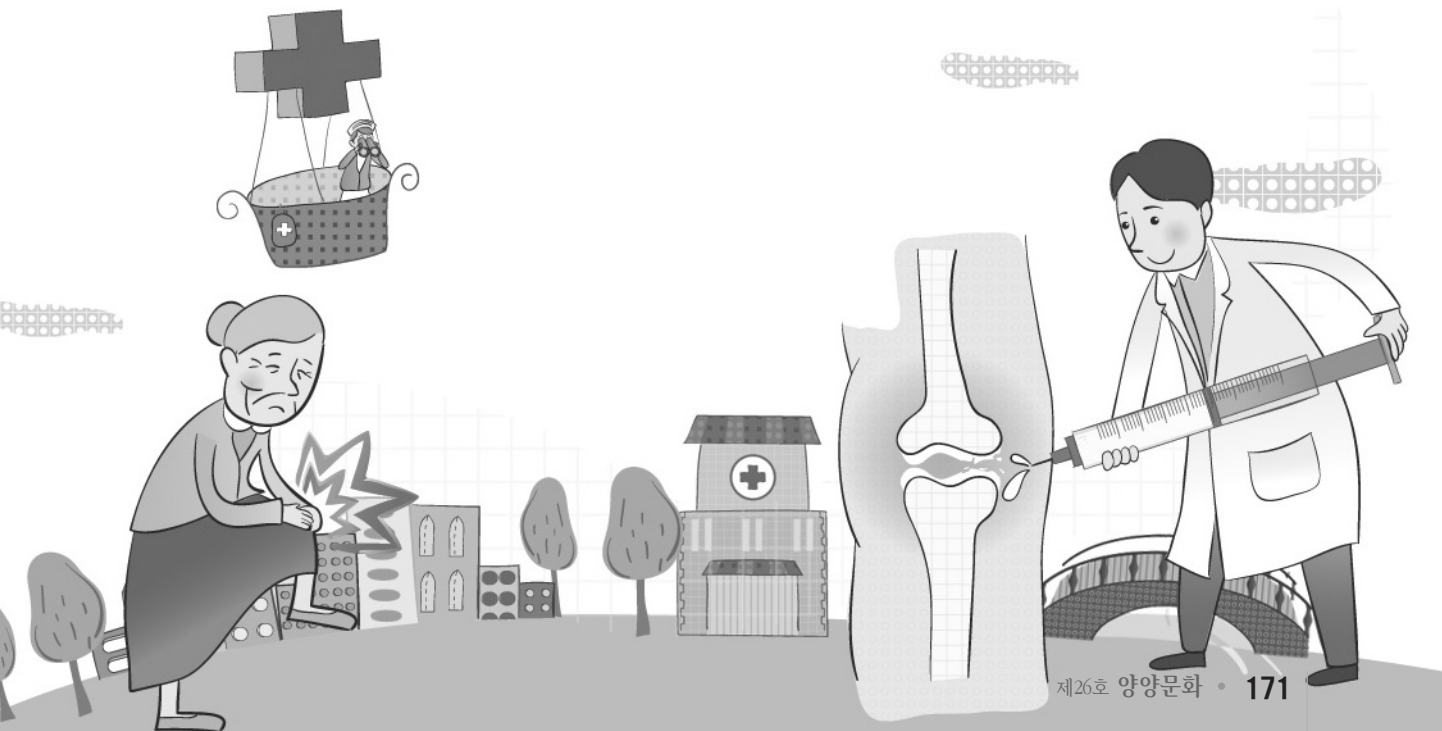
양양군 서면 황이리에 위치하고 있다. 미천골은 백두대간 동편 오지로 원시자연 그대로의 생태계가 잘 보존된 산림과 계곡에 휴양림이 조성되어 있다. 휴양림 입구에 신라 법흥왕 때 창건되었다가 고려말에 폐사된 불교 수도원 터인 선림원지가 있고, 흥각선사탑비와 부도 등 신라시대 보물급 문화재가 있다. 수령 50년 이상의 박달나무, 참나무, 피나무, 단풍나무, 물푸레나무, 자작나무 등 다양한 수종의 활엽수가 울창하며, 기묘한 형상의 암반 사이로 흐르는 맑고 긴 계곡이 장관이다. 토종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과 불바라기 약수터가 있다. 야생동식물과 버섯, 나물 등의 산림부산물도 풍부하다.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갱년기 여성 10명 중 6명은 겪을 만큼 흔한 질환이다. 갱년기 여성질환의 대표주자인 골다공증이 요즘은 젊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위협하고 있다.

폐경이나 노화, 뼈에 해로운 약물의 사용 등 여러 원인으로 뼈가 많이 손실되고 약해져 경미한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뼈의 주성분인 칼슘이 급격히 빠져나와 정상적인 뼈에 비해 골밀도가 낮아져 구멍이 많이 나는 뼈가 된다. 골다공증이 무서운 것은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서다. 가볍게 넘어지거나 심한 재채기를 하기만 해도 뼈가 부러질 수 있다. 주된 골절 부위는 척추, 대퇴골, 손목이다. 치료제 효과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해 조기 진단과 조기 예방이 중요하다. 칼슘 보충이나 운동은 골다공증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골밀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거나 골절을 예방하지 못한다.

최근 들어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20~30대 여성 골다공증 환자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폐경기도 한참 멀었는데 골다공증에 걸리는 이유는 뭘까? 무리한 다이어트와 자외선 차단제 사용, 커피 섭취가 주요 원인이다. 더욱이 요즘은 골다공증 환자 5명 중 1명이 남성 환자일 정도로 남성들 사이에서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 운동 부족 탓이다. 골다공증으로 발생하는 골절 빈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2~3



배 높지만 골절에 따른 사망률은 남성이 오히려 여성보다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골절 경험이 있거나 작고 마른 체격인 경우,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 환자는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칼슘 섭취, 규칙적인 운동, 금연·금주 생활화로 예방에 힘써야 한다.

골다공증 위험도

골다공증은 별 뚜렷한 증상이 없다. 갱년기 증상으로 병원에 오거나 종합검진을 받고난 후, 혹은 뼈가 부러진 후 진단받는 경우가 많다. 골다공증의 발생 가능성은 최대 골량치, 위험인자 유무, 폐경이나 연령에 의한 골 소실 정도로 따진다. 위험인자가 많다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 ◎ 여성=여성은 남성보다 골량이 적다. 호르몬 영향도 있고 운동량도 적어 남성보다 골다공증이 생길 가능성이 6배나 높다.
- ◎ 폐경기 이후=에스트로겐의 생산 감소로 골 소실이 빠르게 늘어난다. 난소적출수술을 받았거나 조기 폐경이 온 여성은 더 위험성이 높다.
- ◎ 백인 및 동양인=백인이나 동양인이 흑인보다 골다공증이 더 잘 생긴다.
- ◎ 성장기 골량 부족=성장기에 칼슘 섭취가 적거나 운동 부족으로 골량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한 경우 나이가 들어 골량이 조금만 줄어도 골다공증에 걸린다.
- ◎ 칼슘 섭취량이 적은 경우=우유, 요구르트, 치즈, 멸치 등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많이 못 먹으면 골다공증 위험도가 높다.
- ◎ 체중 미달이거나 운동 부족인 경우
- ◎ 술이나 커피, 담배를 많이 하는 경우
 - ◎ 만성 간질환과 신장질환 등 골대사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있는 경우
 - ◎ 부신피질호르몬제나 갑상선호르몬제 등의 약물을 장기간 섭취한 경우
 - ◎ 부모나 형제 중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골다공증 예방 수칙

무시무시한 골다공증이지만 건강 수칙만 잘 지키면 피해갈 수 있다. ‘소리 없는 뼈 도둑’으로 통하는 골다공증을 피해갈 방법을 제대로 알아보자.

1. 칼슘을 꾸준히 먹어라

성인 남자는 하루에 800mg, 갱년기 전 여성은 1000mg, 갱년기를 지나면 1500mg의 칼슘 섭취가 권장된다. 골다공증 환자도 1500mg을 권한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은 두부, 우유, 치즈, 요구르트, 멸치, 굴, 조개, 깨 등이다. 얼마간의 야채 섭취도 반드시 필요하다. 시중에서 흔히 판매하는 홍화씨는 별 효과가 없다.

골다공증 환자나 갱년기 여성은 우유 2잔, 요구르트 1병, 치즈 2장과 세 끼 음식을 섭취하면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절반이나 그 이하밖에 섭취하지 못한다. 음식에서 칼슘을 충분히 먹지 못하면 칼슘보급제로 보충하는 것도 방법이다.

알코올과 탄산음료는 위장에서 비타민, 미네랄의 흡수를 떨어뜨린다. 뼈와 관절이 약하고 칼슘 흡수가 저하된 골다공증 환자는 이런 음료를 먹지 않는 게 좋다. 카페인도 칼슘 섭취를 방해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짜게 먹으면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므로 음식을 싱겁게 먹어야 한다.

2. 무리한 다이어트를 피하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골다공증이 늘어난 것은 과도한 다이어트 때문이다. 다이어트로 인한 저체중과 영양 불균형이 골밀도를 떨어뜨린다. 특히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면 칼슘 같은 영양소가 뼈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골다공증이 생긴다.



3. 지나친 커피 섭취를 피하라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커피도 골다공증을 일으킨다. 커피 중독증에 빠진 젊은 여성들도 골다공증으로 고생하기 쉽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 성분이 뼈의 골밀도를 감소시킨다.

4. 비타민 D를 섭취하라

비타민 D는 골절을 감소시킨다. 골밀도 증가뿐 아니라 근육량을 강화시킨다. 생선, 달걀노른자에 함유돼 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고칼슘혈증과 고칼슘뇨로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전문의와 상의 없이 복용해선 안 된다. 보통 비타민 D의 하루 필요량은 경구로 최소한 1000IU를 복용하거나 3~6개월마다 근육주사를 통해 10만~20만IU를 투여하면 된다.

뼈의 주성분인 칼슘은 비타민 D에 의해 흡수된다. 비타민 D는 자외선을 통해 자연적으로 합성된다. 그런데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를 지나치게 많이 바르거나 선글라스나 모자로 자외선을 지나치게 차단할 경우 비타민 D 생성이 줄어 뼈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비타민 D를 경계하느라 자외선 차단제를 아예 바르지 않고 산책하는 것은 힘들다. 비타민 D가 많이 든 음식, 비타민 D 제제, 비타민 D 주사를 6개월에 한 번씩 맞으면 뼈 건강에 좋다.

5. 1주일에 3~4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라

규칙적인 운동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고 유연성을 길러준다. 운동으로 단련된 몸은 다치더라도 경미하거나 회복 속도가 빠르다. 활동량이 많은 노동자와 운동선수들이 평균치보다 뼈의 질량이 훨씬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쾌적하다고 느끼는 속도로 매일 30분 정도 산책을 하면 좋다.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 등산, 노 젓기 등도 권장된다. 계단 오르기, 빠르게 걷기, 춤추기, 배드민턴, 체조도 좋다. 스트레칭 같은 체중을 이용하는 부하운동이 골다공증에 좋다. 수영은 큰 효과가 없다.

테니스와 골프, 볼링, 윗몸일으키기는 피해야 할 운동이다. 복부강화 운동기구나 이두박근 강화 운동기기, 척추 운동 유도기기를 이용한 운동도 피해야 한다. 특히 척추를 구부리는 운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오봉(鰲峰)



손양면에서 정동으로 3km 해변평지에 불두형과 같이 둥그렇게 해문을 막고 돌연 올립(兀立)하여 있다. 앞으로는 만리대해를 굽어보고 뒤로는 쌍호를 굽어졌으며, 남으로는 수산석굴과 봉수대를 옆에 끼고, 북으로는 의상대와 동해묘를 바라보고 있다. 봉상에는 수백 인이 두류(逗)할 만한 범위로 평관하여 남녀창객과 노소시인들의 놀이터로 수천백인이 사시자유를 허하거니와 올라앉아 사방을 조망하면 흉금(胸襟)이 활연하여 육근벽체(六根壁滯)가 일시에 관통하는 듯 오두해활심여대 봉배천장기육신(鰲頭海心如大鵬背天長氣欲伸) : “오봉머리에 바다가 넓으니 마음도 상쾌하고, 봉새등에는 하늘이 높으니 기운도 펼 것 같다.” 부르게 된다. 청산불노오하재 백발동태노우래(靑山不老鰲何在白髮同泰鷺又來) : 청산은 늙지 않은데 오봉은 어느 곳에 있는고, 백발이 함께하니 해오래비는 또 오도다. 오봉시에 압축(壓軸)을 자랑하던 주인공은 일찍이 조선조말엽 양덕현감을 지내고 본면발포(本面鉢浦: 지금의 도화리 바래울)에 은거하시던 추원 송달현(秋宛宋達顯)의 걸작이다.



누룩바위의 전설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 누룩 바위(사진)에 관하여 내려오는 전설을 보면, 강원도를 순행하던 송강 정철(1536-1593년)이 역참이 있던 상운리를 지나면서 마침 점심시간에 이르러 말 먹이를 부탁하였는데 먹이를 주는 사람들이 늦동이에 말죽을 내어 오는 것을 보고 이 마을이 얼마나 부자 마을이기에 놀라워하며 마을을 살펴보니 부잣집이 즐비하였다고 한다. 이 마을이 잘사는 것은 누룩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과 같은 상운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여운포리의 누룩바위라고 생각하고 인부를 불러 맨 위의 바위를 굴러 떨어뜨렸다. 그 후 마을은 더 이상 부를 누릴 수 없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 전설은 부촌의 사람들이 가난한 양반이나 벼슬아치들을 멸시할까봐 송강 정철이 심술을 부린 것 아닌가 본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손양면 동호리 일원의 골프장(2007년 개장) 부지내에 “할미재 봉”이라 불리는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었는데(당시 일제가 혈을 질러 쇠늑 자욱이 별경계 있었던 것을 목격) 그 봉우리에서 남쪽을 보면 누룩바위가 바로 보이고 좌측(동쪽)으로는 “장사 바위”라 불리는 커다란 바위가 있어(현재도 일현 미술관 부근에 있음) 영험하다 하여 일제가 할미봉에 혈을 지르고 누룩바위는 깨뜨려 버려 현재의 누룩바위는 현저히 낮아졌다고 하며 지금도 누룩바위 상단의 바위는 일제가 깨뜨리기 위해 징으로 쪼은 자국이 현재 남아 있다. [증언: 2014년, 손양면 상운리 이완형(당61세)] 송강의 다른 한 면을 보면 선조 22년(1589년) 의금부 지사로 역모 사건인 기축옥사를 처리하면서 정여립과 공모했다는 죄로 수많은 동인들을 때려죽인다. 남명 조식은 제자 최영경의 편지 한장을 받은 죄로 길삼봉을 지목하여 죽이고, 이발과 그의 어머니는 82세에 주리를 틀어 죽이고 11살, 5살 아들도 죽이는 등 3년 동안 죽은 자 만도 1천여 명이 넘었다고 한다. 강원도 관찰사로 제수되었을 때 관동별곡, 훈민가를 지었고 이후에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을 지어 문학적 우수성을 앞세워 그의 잔혹함을 지워 냈다고 한다.(김진하 저 새벽 성원인쇄문화사 2010)

대청봉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번지에 위치한 영산 설악산의 지봉이며 가장 높은 주봉(1,708m)이다. 또 내설악, 외설악의 분계점이며 중청봉, 소청봉이 그 밑쪽에 자리 잡고 있다. 대청봉에서 화채봉으로 나갈 수가 있고, 중청봉에서 비선대 쪽으로 나갈 수도 있다. 또 대청봉과 중청봉을 거쳐 소청봉을 지나 독주암 능선을 타고 오색약수로 나갈 수도 있다. 소청봉에서 서북 능선을 따라 내려가면 오색령에 이른다. 수억만 개의 돌이 널려 있는 넓고 넓은 암산으로 가는 것 같다. 이곳에 기이한 것은 때를 지어서 자라는 잣나무, 주목들이 서로 기어서 지면으로 퍼져 녹해를 이루고 있다. 대자연의 신기도 여기서 볼수 있다. 드디어 상봉에 이르면 돌산 그리고 야원이 펼쳐진다. 입체의 설악산이 한 눈에 전개되어 영기에 머리 숙여진다. 설악의 대청봉에서 “일출낙조”가 신기하다고 한다. 붉은 해가 공중에 떠서 공중에서 진다고 한다. 산봉에 “요산요수(樂山樂水)”라 새긴 비가 세워졌다. 상봉에서 왼쪽으로 내려다보면 천만군병을 거느리고 창검기치를 높이 휘두르는 듯 하는 천불동 계곡의 천의 꼴을 지닌 바위들이 기상천외의 광경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천불동 오른쪽에 솟아있는 운주봉 구름이 치마폭처럼 깔려 운주봉의 허리를 걸쳤으니 그 아름다움이야 말로 선인만이 맛볼 수 있는 선경이다. 감격, 감동, 감탄, 경탄, 신비 “아!” 하는 소리가 한꺼번에 터지려는 충동을 느끼는 상봉이다. 어디 그것뿐이라. 다시 눈을 돌리면 무변광대(無邊廣大)한 동해가 보인다. 바다와 창공과의 선이 명확하게 보인다. 손짓으로 가리키고 싶은 지암(地岩)엔 북쪽 하늘에 한없는 포물선도 보인다. 속초항의 청초호, 영랑호도 호숫가에 자리 잡은 마을도 보인다. 낙산, 양양, 강릉이 한 눈 아래에 보이며, 위대한 자연 앞에 엄숙하게 수그러지는 것 같다. 수천 수백의 높고 낮은 봉이 모조리 청봉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대청봉은 군림하는 듯하다.

옛날에는 청봉(靑峰)을 봉황대(鳳凰臺)라 불렀다 한다. [雪華山人無盡子の 五歲庵事蹟記] 때로는 “봉황대의 정상인 봉정이 이 산의 극한 곳이다”라고 기록하였다.

[鳳頂卽岳極處成海應의 東國名山記] 노산(鷺山)은 “봉황대”, “봉정”, “청봉”이란 명칭이 옛 신앙의 근원이었던 “광명(光明)”에서 나온 말이라고 단정하였다. 동국명산기에서 청봉이라는 까닭을 살펴보면 청색으로 보인다 하여 그 봉우리를 청봉이라 하였다. “달견지표묘이청 고지기절이명알 청봉 (達見只縹緲而靑故指其 絕而名曰靑峰)” 정상에 오르면 허허로운 산야 같아 누구나 두리번거리며 살핀다. 그러면 눈에 띄는 것은 돌집 정도 뿐이다. 이곳은 대청봉 산신을 모셔둔 제단이다. 누구의 성의에서인지 돌담을 쌓아 담을 돌렸다.

그리고 “설악산신령(雪嶽山神靈)” 원편에 “팔도산신중도신령(八道山神中道神靈)”이라고 써서 각각 세웠고 한 가운데 위패에 “설악산봉국가천왕불신지위(雪嶽山峰 國可天王佛神之位)”라고 써서 세워 놓았다. 지금은 없어졌으나 이 유풍은 자연을 숭배하던 우리 조상들의 믿음에서 나타난 것이다. 설악산은 입체미를 갖고 상봉에서 보면 설악의 미가 한 눈에 보이며 설악산 곳곳을 찾지 않아도 다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설악산에 설해(雪海)를 보는 것이 또한 장관이다. 봄, 여름, 가을철에 골짜기마다 안개가 덮인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붉은 꽃바다를 이룬다. 대청봉 위에서 설악산을 보지 않으면 천하의 경치를 말할 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2014 경로효친 문예작품 심사평

심사위원	심 사 평	비 고
<p>정성교 (양고 교사)</p>	<p>경로효친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요즘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로효친 문예공모에 출품한 양양지역 어린 학생들의 작품을 심사하며 작은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어린 학생들의 글을 보니 아직은 글쓰기에 다소 서툰 모습이 보이기도 했지만, 작품 속에 담겨있는 어른에 대한 공경,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어린 학생들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런 문예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앞으로도 글쓰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경로효친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며 생활 속에서 어른 공경과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항상 실천하기를 바랍니다.</p>	<p>시, 산문 담당</p>
<p>조동호 (양여중 교사)</p>	<p>'경로효친'이라는 주제를 명확히 알고 그 의미를 잘 전달하고자 하는 작품 선정에 중점을 두었다. 대부분의 작품이 학교에 따라, 지도교사의 의도에 따라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나 입상작 중 몇 작품은 내용과 형식에서 뛰어난 수준을 보여 주고 있었다. "효"라는 내용과 "포스터"라는 형식 모두를 충족시키기는 초·중학교 학생에겐 쉽지 않은 과제였다는 생각이 든다. 경로효친이라는 단어가 주는 생경함과 포스터라는 분야가 주는 표현의 어려움 또한 마찬가지로 있으리라. 알고 있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 즉 실천의 문제는 다르다. 어린 학생들이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효"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효"라는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된, 그러면서도 순수함과 천진난만함을 잃지 않은, 밤하늘의 별처럼, 일곱 색깔 무지개처럼 서로 다른 색을 내는 작품들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한다.</p>	<p>포스터 담당</p>

2014년도 경로효친 문예작품 입상자 현황

부문 등위 학교별	산문			시			포스터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	우수	장려	
초등학교	한남초 5학년 최인정	강현초 4학년 정준섭	한남초 4학년 김다빈	손양초 5학년 김아빈	손양초 5학년 김아빈	한남초 6학년 김희수	공수전분교 5학년 김혜정	인구초 6학년 박성영	조산초 4학년 강보현	
		한남초 4학년 권서연	인구초 6학년 김신			손양초 5학년 김규연		인구초 3학년 이현석	공수전 분교 5학년 이명신	한남초 4학년 전나영
			강현초 3학년 박서현					조산초 4학년 백선빈		조산초 4학년 손예슬
중학교	현남중 2학년 최리아	현남중 1학년 최성은	-	현남중 2학년 정소희	현남중 2학년 이소망	-	현남중 1학년 박지윤	양양 여자중 3학년 최형윤	-	





양양문화원 임직원



번호	직 위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1	원장	윤여준	양양읍 북문길 22-22 정아차A-801	671-3195 010-5378-3195
2	부원장	이상범	현남면 해송천로 14-23	671-6344 010-7363-6344
3	이사	윤여경	양양읍 군청길1 문화관광과장	670-2240 010-9033-9856
4	"	남용희	양양읍 군청길 67	672-9244 010-5365-8233
5	"	최낙민	양양읍 동해대로 2825	672-3457 010-6371-3459
6	"	최종한	양양읍 서문2길12-3	672-3346 010-4311-3346
7	"	이건필	양양읍 현산공원길 42-14	671-7707 010-5375-3437
8	"	김남극	양양읍 일출로 540	673-8100 010-5365-2588
9	"	손영애	양양읍 남문로 103-11	671-0230 010-5598-0230
10	"	이철규	서면 물윗구미길15	672-3816 010-5379-5247
11	"	김종환	서면 쌍솔배기길 122-6	672-0672 010-3345-0672
12	"	김남규	손양면 선사유적로 323	672-2272 010-5374-2271
13	"	김정승	손양면 송중로 95	672-0717 010-8795-0719
14	"	이근천	현북면 송이로 590	672-1161 010-9479-6310
15	"	이치우	현북면 송이로 245-56	672-3322 011-9057-3325
16	"	김장기	현남면 임호정리길 40-10	671-7675 010-3271-7675
17	"	손인환	강현면 물치천로 26-18	671-1995 010-5376-0069
18	"	안광혁	강현면 복골길 265번길 14	671-5668 011-373-5661
19	감사	문명완	강현면 물치1길 28	671-5003 010-5363-0356
20	"	양순자	양양읍 미륵길 11-2	671-2081 010-5376-2081
20	사무국장	김광영	양양읍 거마천로 297-5	672-5295 010-4335-5295
20	과장	최선미	양양읍 양양로 159-9	672-7489 010-3137-7489
20	직원	신정원	현북면 도리1길 40	673-1616 010-4519-9244
20	직원	윤진희	양양읍 거마천로 350-35	671-3864 010-8878-3864



양양문화원 언론홍보현황

〈편집실〉

[news1 2014년 1월 3일 엄용주기자]
[단신]양양문화원 신년인사회



2014 양양군 신년인사회가 3일 솔비치에서 개최됐다. 양양문화원은 정상철 양양군수, 김일수 군의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3일 오전 11시 솔비치에서 2014년 신년인사회를 실시했다.

[news1 2014년 4월 10일 엄용주기자]
뜨거웠던 양양의 '1919년 4월 만세운동' 재현



10일 양양군은 3.1만세운동 95주년을 맞아 양양문화원 주관으로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물치리 일원에서 개최했다.

양양군이 10일 3.1만세운동 95주년을 맞아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개최했다.

6회째 열린 이번 기념행사에는 강릉보훈지청 및 애국열사 유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양문화원 주관으로 강현면 물치리에서 3.1운동역사를 재현했다.

양양 기미 독립만세운동은 1919년 3월1일 거행된 서울의 독립만세운동에 용기를 얻어 양양 독자적으로 거행된 만세운동이다. 이 운동은 4월 4일 양양장날을 기해 임천리를 포함한 9개 마을 주민들이 양양경찰서 앞에서 집결해 양양읍으로 진입하면서 그



시작을 알렸으며 9일까지 6일간 실시했다. 당시 군내 6개면 82개 마을에서 군민 6000여명이 참가, 30인의 열사가 순국했다.

특히 4월 9일 현북면 하광정리에서는 주재소를 습격할 것을 결의하고 기사문리로 행진하던 중 일경과 충돌, 9명이 피살되고 20여명이 부상당해 이때부터 이곳을 '만세고개'라 명명했다. 군은 지난 2000년 삼일절을 기해 이곳에 기념비를 건립해 유적화했으며, 매년 6월 현산문화제를 통해 3.1만세운동 재현행사도 개최·지원하고 있다.

양동창 양양문화원장은 "95년 전 양양의 4월은 어느 곳보다도 뜨거웠고 민족혼이 불타았던 곳"이라며 "행사를 통해 송고한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함으로써 군민이 화합하고 발전의 동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신문 2014년 5월 11일 황만호기자]

【새의자】양양문화원장에 윤여준씨 선출



양양문화원이 지난 9일 실시한 임원선거에서 군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윤여준씨(사진, 만 64세)가 선출, 현 양동창 문화원장의 뒤를 이어 양양문화를 이끄는 수장의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

신임 윤여준 원장은 강릉고등학교를 졸업후 1970년 2월부터 양양군청에서 공직에 입문해 사회, 문화공보, 민방위, 자치행정과장과 기획감사실장 등을

두루 역임하는 등 33년간을 복무하다 2009년 퇴임한 후 지난 2011년부터는 양양군 자원봉사센터장을 맞아 무한봉사를 실천해 오고 있다.

윤여준 원장은 "앞으로 향토사 발굴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문화학교 등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를 창달하는데 앞장서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양양문화원은 이 날 윤원장 이외에 양양읍 4명과 각 면별 2명씩 모두 14명의 이사를 선출했다.

[강원일보 2014년 5월 12일 이경웅기자]

윤여준 양양문화원장 선출

양양문화원장에 윤여준(64·사진) 군 자원봉사센터소장이 선출됐다. 양양문화원은 지난 9일 실시한 임원선거에서 윤여준 원장과 14명의 이사를 선출했다. 신임 윤여준 원장은 현북초교와 양

양중, 강릉고를 졸업하고 1970년부터 양양군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사회, 문화공보, 민방위, 자치행정과장과 기획감사실장 등 33년간을 일했다. 2009년 퇴임한 후 2011년부터 양양군 자원봉사센터소장을 맞아 무한봉사를 실천해 오고 있다. 윤여준 원장은 "앞으로 지역 향토사 발굴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문화학교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문화를 창달하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가족은 부인 용상춘씨와 1남1녀를 두고 있다.

[강원신문 2014년 5월 22일 황만호기자]

양양군, 제36회 양양 현산문화제 개최

모내기를 끝낸 푸른 들녘을 배경으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양양군민들의 한마당 축제인 제36회 현산문화제 및 제46회 군민체육대회가 남대천 둔치에서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 열린다. 양양군 현산문화제위원회(위원장, 최익수)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이 주관하는 제36회 현산문화제는 3·1독립만세정신과 향토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양양군민들의 높은 기상과 자긍심 고취, 풍농풍어,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양양군 고유의 민속축제이다. 올해 현산문화제는 세월호의 애도를 기리면서 그네뛰기·탁상사놀이·씨름 등 읍면대항 민속경기대회를 통하여 민속문화를 공유하며 군인, 학생, 청장년, 주부, 노인 등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유도, 분재, 공예품 등 각 분야에서 갖고 닦은 기량을 군민들에게 선보이고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속문화의 세대간 계승과 발전이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하는 진정한 군민들의 한마당 문화축제의 장이다. 올해 현산문화제는 6월 19일 양양읍 군행리 고치물에서 장군성황제와 고치물제를 올림으로써 축제의 시작을 알리게 되며 매년 시행되었던 시가행진과 남대천둔치 특설무대에서 진행되었던 군민노래자랑 및 인기가수초청공연, 불꽃놀이하는 진행되지 않으며 읍면대항으로 펼쳐지던 농악경연대회와 사물놀이,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통배놀이도 시행되지 않는다.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행사장에서는 한시백일장, 휘호대회, 바둑대회, 현산백일장 등 전통문화 경연, 분재·공예품·시낭송회·휘호대회·야생화전시회·공예특산품 전시회, 서예·꽃누르미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및 제46회 양양군민체육대회가 읍면대항으로 펼쳐진다.

[강원일보 2014년 5월 23일 이경웅기자]

현산문화제 내달 19일 개최

제36회 현산문화제 및 제46회 군민체육대회가 양양 남대천 둔

치에서 오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열린다. 양양군 현산 문화제위원회(위원장:최익수)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이 주관하는 제36회 현산문화제는 3·1 독립만세정신과 향토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양양군민들의 높은 기상과 자긍심 고취, 풍농·풍어,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양양군 고유의 민속축제이다.

[강원일보 2014년 5월 23일 이경웅기자]

제36회 현산문화제 및 제46회 군민체육대회가 양양 남대천 둔치에서 오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열린다. 양양군 현산문화제위원회(위원장:최익수)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이 주관하는 제36회 현산문화제는 3·1 독립만세정신과 향토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양양군민들의 높은 기상과 자긍심 고취, 풍농·풍어,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양양군 고유의 민속축제이다.

[강원도민일보 2014년 6월 18일 송원호기자]

현산문화제 개막
내일부터 남대천 일대
양양군민의 한마당 축제인 제36회 현산문화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남대천 둔치 일대에서 개최된다. 양양군 현산문화제위원회(위원장 최익수)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이 주관하는 올 현산문화제는 제46회 군민체육대회와 겸해 첫날 전야제를 시작으로 양양을 일대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현산문화제 첫날인 19일 오후 4시 군행리 고치물에서 장군성황제와 고치물제를 올리며 시가행진 등 전야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회적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올해는 취소됐다. 축제 기간 한시백일장, 휘호대회, 바둑대회, 공예품, 서예 등 전시회와 그네뛰기, 탁장사놀이, 씨름 등 읍면대항 민속경기대회가 진행된다.

[강원일보 2014년 6월 20일 이경웅기자]

민속놀이 즐기며 군민 화합 다져요.
오늘 양양 현산문화제·군민체육대회 개막식
양양군민들의 한마당 축제인 제36회 현산문화제 및 제46회 군민체육대회가 20일 남대천 둔치에서 개막된다. 양양군 현산문화제위원회(위원장:최익수)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이 주관하는 제36회 현산문화제는 3·1 독립만세 정신과 향토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양양군민들의 높은 기상과 자긍심 고취, 풍농풍어,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양양군 고유의 민속 축제이다. 현산문화제는 19일 고치물에서 장군성황제와 고치물제

가 시작됐으며 20일 개막식과 함께 21일까지 진행된다. 올해는 매년 시행됐던 시가행진과 남대천둔치 특설무대에서 열렸던 군민노래자랑 및 인기가수 초청공연, 불꽃놀이, 읍·면대항으로 펼쳐지는 농악경연대회와 사물놀이, 청소년국악경연대회, 통배놀이 등은 세월호 참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시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네뛰기와 탁장사놀이, 씨름 등 읍·면 대항 민속경기대회를 통해 민속문화를 공유한다. 또 군인, 학생, 청장년, 주부, 노인 등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공예품 등 각 분야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군민들에게 선보이고 함께 참여함으로써 군민들의 한마당 문화축제의 장으로 마련된다. 한시백일장, 바둑대회, 현산 백일장 등 전통문화 경연, 분재, 공예품, 시낭송회, 휘호대회, 야생화전시회, 공예특산품 전시회, 서예, 꽃누르미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및 제46회 양양군민체육대회 읍·면대항으로 펼쳐진다.

**[강원일보 2014년 7월 12일]
[포토뉴스]양양문화원 임시이사회**



양양문화원은 윤여준 원장 취임 후 첫 임시이사회를 11일 문화원 회의실에서 열어 신규 회원가입 승인의 건, 이상범 부원장과 신임이사 선임의 건을 협의했다.

**[강원도민일보 2014년 11월 5일 최훈기자]
양양부사 연암 박지원 심포지엄**

강원도민일보는 18세기 대표적인 지식인 연암 박지원이 양양부사로 봉직할 자취와 양양지역의 수려한 경관을 일찌감치 소중히 경제적 자산으로 인식한 일화를 조명하는 '연암 박지원 문화콘텐츠 조명 심포지엄'을 양양문화원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양양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에서 1만 냥을 받았고 녹봉으로 2천 냥을 받았다'는 연암의 '경관녹봉론'은 21세기 생태문화와 양양군 경



관콘텐츠에 역사문화성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연암의 생태사상과 경관자산론을 조명하고 역사문화콘텐츠 방안을 창출하게 될 담론의 장에 강원도민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 시 : 2014년 11월 24일(월)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양양문화복지회관 소강당
- 기조발표 : 양양군 발전과 연암 박지원 문화콘텐츠 확장
-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 주제발표
△발제 1 : 연암 박지원과 양양군 스토리텔링 - 이학주 강원대학교 강사
△발제 2 : 양양부사 박지원 유적지와 타 문화유적지 연계방안 - 양언석 강원도립대학교수

- 사회 : 천남수 강원사회조사연구소 연구위원
- 약정토론 : △이근세 국민대 교수 △주영아 한양대 국문과 교수 △엄찬호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엄현섭 강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진종호 양양군의원 △김양식 양양문화원 향토사연구원 △윤여경 양양군청 문화관광과장
- 주최 : 강원도민일보 · 양양문화원
- 후원 : 양양군 · 양양군의회

[강원도민일보 2014년 11월 25일 최후기자]
“양양 자연경관, 문화콘텐츠로 활용”



- 연암 박지원 문화콘텐츠 조명 심포지엄 테마거리 제시도
- ▲ 강원도민일보와 양양문화원이 공동 주최한 연암 박지원 문화콘텐츠 조명 심포지엄이 24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열렸다.

조선 후기 대표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이 양양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풍유적으로 표현했던 이른바 '경관자산론'을 지역의 자연가치는 물론 새로운 문화산업의 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도민일보와 양양문화원(원장:윤여준)이 주최한 '연암 박지원 문화콘텐츠 조명 심포지엄'이 24일 오후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김진하 군수와 최홍규 군의장, 장석삼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언석 강원도립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연암 박지원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양양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며 "역사문화적 유적을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현대적으로 재창조한다면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학주 강원대 강사는 "연암과 양양을 연계해 지역에 보탬이 되는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연암의 모든 업적을 양양읍내에 풀어놓아 연암의 테마거리를 만들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고 제안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지역의 가치는 그 지역 사람들의 열정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녹색자원의 가치를 강조한 양양부사 연암 박지원의 '경관녹봉론'을 활용해 양양군이 동북아의 진주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암 박지원(1737~1805)은 양양부사로 봉직할 당시 "양양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에서 1만 냥을 받았고 녹봉으로 2000냥을 받았다"는 '경관녹봉론'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강원도민일보는 녹봉 일화를 바탕으로 지난 2012년부터 양양군과 함께 연암이 감탄한 자연경관을 문화상품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편/집/후/기

어느덧 갑오년도 저물었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문화가족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한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문화원은 지난 8년간 양양문화원의 발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시고 떠나신 양동창 원장님의 뒤를 이어, 7월 1일 제11대 윤여준 문화원장의 시대를 새롭게 열었습니다. 또한 문화원의 여러 사업중 향토사 연구소의 연구 활동은 계속되어 “6.25한국전쟁시기 軍政이 양양지역에 미친 영향”과, “고려 조선시기 천민의 활동사례 연구” 등 2건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많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다가올 을미년에는 오색케이블카의 성공적인 유치와 오색령의 지명이 복원되기를 기원하며 문화원 회원을 위한 문화강좌의 개설과 양양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등 굵직한 사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우리 문화가족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때라 하겠습니다. 해마다 양양문화를 알차게 편집하고자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우며 문화가족 여러분의 애환이 담긴 원고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문화가족 여러분의 가정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수십 년만의 12월 강추위가 계속되는 어느 겨울 아침에...

襄陽文化院 事務局長 金光泳

양양에너지월드

“물로 만드는 빛 이야기”

한국수력원자력(주) 양양양수발전소는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 관 시 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휴관 및 휴무 : 매주 월요일(명절연휴, 회사사정에 의한 지정일)
- 문 의 전 화 : 070-4034-2344~5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양양양수발전소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

주지 도후 외
사부대중일동

무산사(양양포교당)

낙산유치원

불교대학

템플스테이

강원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무산복지재단

낙산요양원

노인복지센터

양양군 노인복지관

양양시니어클럽

무산지역아동센터

의상도서관

아동청소년 장학사업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100

033)672-2447~8 www.naksansa.or.kr

매년 6월, 남대천 둔치 및 행사장



襄陽 峴山文化祭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양양의 문화축제!

주요행사내용

- 전야제
- 민속놀이
- 식전행사
- 경축문예행사
- 개막식
- 전시및부대행사
- 식후행사
- 양양군민체육대회



양양현산문화제위원회

